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7월 2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32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호텔행사

'△△회 송년법회 ××호텔', '나라안녕과 민족통일을 위한 기원법회 ○○호텔 ○○홀'…

불교계의 크고 작은 행사들중 그 장소가 호텔인 경우를 종종 본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경우 주차와 식사 등의 편리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행사가 아닌,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등의 순서로 이뤄지는 법회식의 불교행사가 호텔에서 치러지는 모습은 어딱하기 그지 없다.

사찰에서 하는 것이 더 여법한 경우가 있는데도 호텔을 이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수년전 전국신도회가 매년 여는 신년기원법회를 호텔에서 개최해 지탄을 받았고, 일부 지방에서는 봉축행사 결가모임까지 호텔에서 가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과시용 행사 지양
대형행사장 만들어야

아무래도 큰 비용이 드는 호텔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호화사치'를 연상케 하고, 무소유와 청빈(淸貧)의 이미지를 주는 불교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삼보정재를 낭비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불교계가 호텔 행사를 할수밖에 없는데는 시쳇말대로 '폼이 난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불교계에 변변한 대형 행사장이 없어 '물며 겨자 먹기식'으로 호텔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천만불자를 자랑하는 불교계지만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려고 해도 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형 회관이 별로 없고, 몇 백명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행사를 가질 만한 적절한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불교계는 그 어느 곳보다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이지만 번듯한 전용 전시장이나 일반 대중들을 흡수할 문화공연장 하나 없는 실정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불교계의 호텔행사는 많이 사라졌다. 사찰에서 여법히 봉행할 수도 있는 행사를 호텔에서 '과시용' 또는 '체면치레용'으로 개최하는 일은 이제 지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사찰재정공개 의무화' 백만명 서명운동 전개

재가연대, 조계종에 법 제·개정 요구키로

8월16일 '관람료 사찰' 포럼 열어
고산스님 "직영사찰부터 실시" 밝혀

사찰재정 투명화와 사찰운영의 사부대중 참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21일 조계종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최근 조계사 불국사 등의 삼보정재 유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백만불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가연대는 "사찰재정의 투명한 운용 및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사찰운영을 조계종의 모든 사찰로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재가연대는 이날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9월경 1차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종법을 제·개정, 실시할 것을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8월중 공정 혜암스님을 친견해 종정교시를 요청하며, 8월 16일에는 '관람료 사찰의 재정현황과 관람료수입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재가연대는 또 23일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과 22일 중앙종회 의장단을 방문해 서명운동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명에 동참한 고산스님은 "사찰재정 공개 의무화를 직영사찰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구본사와 주요사찰 주지스님을 찾아 사찰재정의 공개와 사찰운영위원회의 구성도 촉구할 예정이다. 재가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계종단과 검찰은 조계사 불국사 삼보정재 횡령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 △사찰재정의 정기적 공개 의무화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종법령의 제정 실시 △사찰운영위원회법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고산스님도 서명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23일 '사찰재정 투명화 · 사찰운영의 사부대중 참여를 위한 운동'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고영배기자

부정부패 척결-개혁추진 촉구

고산스님등 종교지도자 청와대 예방 건의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은 19일 청와대를 방문, 김대중대통령에게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및 강력한 개혁추진을 촉구했다.

고산스님과 김동완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상근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 최창규 성균관장 등 8명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님께 드립니다'라는 건의서에서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근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도자들은 "공평한 분배 실현을 통한 사회정의 확립, 인권법 등 여러 개혁입법에 진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정쟁 즉시 중단과 개혁 매진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8·15 전 국민대화합을 위한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 사면조치의 광범위한 단행을 요청했다. 종교지도자들은 또 "종교인의 대화합과 일치를 위해 2000년 3월 1일 '화해·평화를 향한 국내외 은겨레손잡기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8·15를 앞두고 구속자 석방과 수배해제가 많이 될 것이며, 부패방지법 인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주유공자보상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혁법안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윤 기자 (swjung@buddhapia.com)

"원불교 가입신청후 가부 결정하자"

종단협 16일 이사회

종단협의회(회장 고산)는 1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과 관련, 원불교측에서 정식으로 가입을 요청해오면 논의키로 했다.

또 이날 종단협이사회는 '종단심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이 기구를 통해 종단협 비가입 종단의 현황을 파악해 건전한 종단이면 종단협 가입을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원불교는 8일 임시수위단회를 열어 "원불교는 새 주세불인 소태산 대종사에 의해 개교한 새불교임을 거듭 확인한다"고 결의했다.

정성윤 기자



20세기 빛낸 고승 기념메달

한국조폐공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제작 보급하고 있는 20세기 고승 여덟분의 기념메달 1차분 세트가 출시됐습니다. 이 여덟 메달의 주인공은 만공 한암 용성 만해 경봉 청담 고암 성철 스님입니다. 500개 한정으로 출시되는 이 메달세트를 소장하셔서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한국조폐공사가 직접 디자인 조각해 품질보증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메달입니다.

◇가격: 낱개 각 5만원 · 8분 세트 40만원(500개 한정)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 전화 (02)737-8881, 722-4162

◇은행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279
농 협 053-01-296053

공원입장권 당일사용 '새불씨'

조계종, 관람료사찰주지회의 열어 대책논의키로

조계종 관람료사찰주지회의는 29일 긴급회의를 열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권 사용 변경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8월 1일부터 입장권 효력에 대해 '당해 공원 발매당일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한 현행 방침을 바꿔 '당해 공원 발매당일'로 함에 따라 조계종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일 관람료 사찰에 공문을 보내 방침 변경을 알렸다.

관리공단은 당해 국립공원 재입장시 이중 징수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내 사찰토지면적이 좁거나 외곽에 위치한 내장사 신흥사 백련사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조계종총무원은 관람료사찰을 찾는 관람객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새로 부과해야 하는 분리징수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성윤 기자

"불교TV 경영정상화 조계종 적극나서기로"

종단차원 공식 표명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은 23일 btn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위위원장과 문화부장에게 종단의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6일 열린 제8차 btn특위에서 "btn 경영정상화를 위해 종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결의를 고산스님이 받아들인 것이다.

고산 총무원장의 이번 발언은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한 종단의 공식적인 의지를 처음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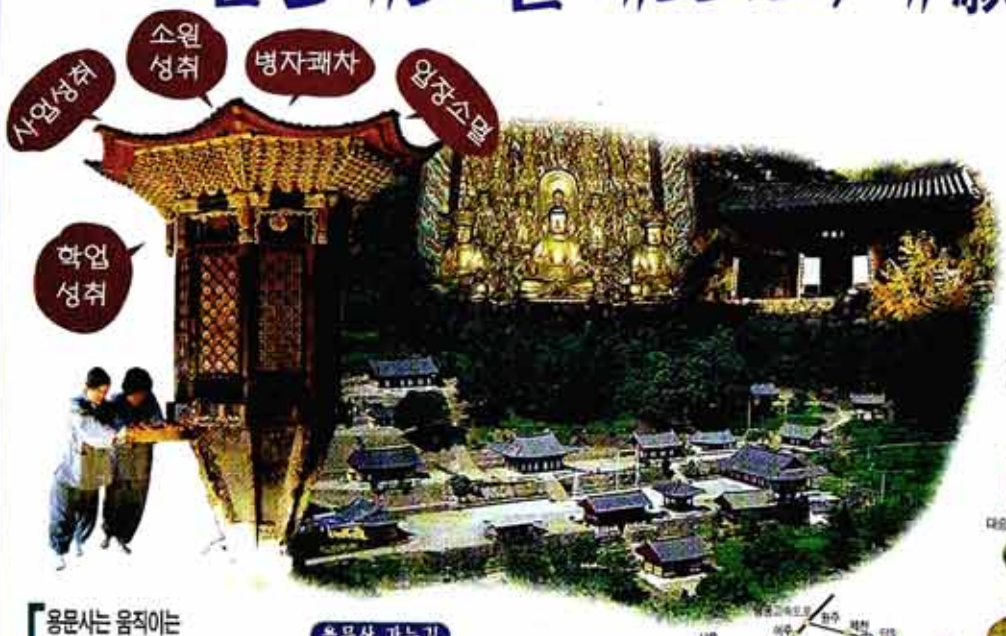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새연재 **백두대간 속으로** 14면

금주부터 새기획 '백두대간 속으로'를 월1회 연재합니다. 지난해 사진 영상의 해를 맞아 연재했던 '백두대간 승결을 듣는다'에 이어 기획된 '백두대간 속으로'는 우리 산하의 등뼈인 백두대간 내면을 깊숙히 탐색하는 속살기행입니다.

백두대간이 이땅의 가장 큰 법당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민족정기와 정신을 봉기는 이 작업에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

윤장대(보물 제684호)에 願(원)을 실어 돌려라 ~ 이루어지리라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운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청 안 합장

• 입 재 : 1999(불기2543)년 10월 17일(음 9월 9일)토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1999(불기2543)년 10월 26일(음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 등(1인1등) 10,000원 • 영가 위패(1위당) 10,000원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 용 문 사
우 체 국 : 702191-0016235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윤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문사

문 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용문사는 움직이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9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보물 684호)

용문사 가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40분간격)
3시간 1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서울 ⇒ 예천)대한항공 오전 8시 45분 오후 5시
아시아나 오후 4시
(예천 ⇒ 서울)대한항공 오전 10시 10분 오후 6시 30분
아시아나 오후 5시 20분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사 설

계획보다 실천이다

조계종이 21세기를 앞두고 수립한 중장기 사업계획은 앞으로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9일 발표한 사업계획은 앞으로의 종단운영 방향을 수행과 포교중심의 승가상 정립, 신도조직 강화, 불교문화 대중화, 불교사회운동 전형창출, 정보화 인프라 구축, 종단기간시설 건립 등 크게 여섯 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60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계획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수행과 포교 중심의 승가상 구현'을 종단운영의 제1과제로 설정한 점이다. 불교종단의 존재이유가 수행과 포교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삼 이를 종단운영의 제1과제로 내세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과거를 반성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교종단은 명목상으로는 언제나 수행과 포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이 문제를 매우 등한시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수없이 종단 분규가 일어나고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돼온 원인도 기실 수행과 포교라는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이미 이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다행히 불교계의 장자종단인 조계종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새로운 시대에는 반드시 정상적인 종단운영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중장기 사업계획 발표를 보면서 또 한가지 의미깊게 생각되는 것은 불교계도 이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종단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성급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조계종이 발표한 6대방향 60대 과제가 2002년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러 가지 잠복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데다가 과연 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역량이 있는 가도 의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유의미하게 평가되는 것은 이제 종단이 어느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다. 물론 과거에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교중흥의 방략과 종단발전 과제들이 논의되기는 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즉흥적이고 단기적 과제에만 집착한 것이어서 종합적인 비전의 수준이라고 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계획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어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계획안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종도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다. 지금까지 불교계가 추진해온 각종 프로젝트들은 그 현실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서는 용두사미로 끝난 것들이 많았다. 여기에는 수많은 복합적 요인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대중적 지지와 성원을 끌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어떤 목표가 정해지고 계획이 수립되면 나머지는 끊임없는 대중설득과 강력한 추진이 뒤따라야 한다. 보수적이고 고루한 인식이 팽만해 있는 집단일수록 이러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러자면 종단지도부가 업적과시를 위해 사진 찍기만 좋아하고 존경받는 일에만 익숙해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에 몸으로 뛰어들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대중들의 호응은 저절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의욕적인 계획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조계종 중장기 발전계획 6대 종책 60개 과제 선정

2002년까지 완료하거나 1차 성과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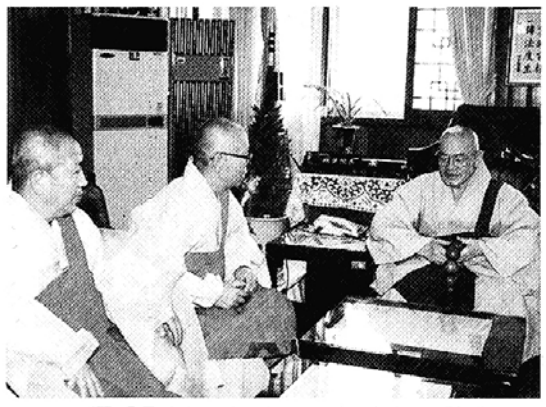
조계종은 19일 불교회관1층에서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교육원장 일면스님, 포교원장 정련스님을 비롯 3원의 부·실장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6대 종책방향과 60개 사업과제를 담은 '화합과 공생의 자비공동체 구현을 위한 종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6대 종책방향은 ▲수행과 포교 중심의 승가상 구현 ▲신행의 정립 및 신도조직의 강화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통한 전통문화의 재창조 ▲불교사회운동 전형 창출 및 조직건설 ▲불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기간시설 건립 등이며, 이에 따라 부문별로 4~18개의 사업과제를 제시했다. 60개 사업과제는 별도의 운영계획과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연도별 분야별로 인력과 예산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60개 사업과제는 올해부터 시작해 2002년까지 완료하거나 1차 성과물을 낸다는 계획이다. 각급 신도단체 임원 연수, 자비의 대중화 기금 조성 등 이미 실행하고 있거나 기획단계에 들어간 것도 있다.

조계종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21세기를 향도할 불교상을 정립하고 △종단사업의 일관성과 집중성 유지 △종단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실장 만성스님은 "세계화·정보화,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증대,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의 역할이 증대되는 사회변화와 승가의 위의와 지도력 향상을 요구하는 종도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6대 방향 및 60대 과제 선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조계종의 중장기 사업계획은 95년 '종단 4개년 발전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어 97년 교계지도자 설문조사(1500명 대상)를 통해 '종단 5개년 계획안'을 마련했고, 98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사회환경과 조건에 비춰 종단의 내부 역량과 한계를 점검하여 사업의 구체성과 집중성을 보완하는 등 오랜 연구를 거쳤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사진 오른쪽)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이 19일 만나 선암사 봉원사 등의 분규를 종식하기 위해 두 종단간의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사미의제 시행 촉구
조계종 교육위원회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위원장 법산)는 19일 회의를 열고 승가 위계질서의 회복을 위해 사미 승가대학에서 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사미의제의 전폭적인 시행촉구를 결의했다. 또 사미니 승가대학(강원)의 학인 수가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내년도 예산에 사미니 승가대학 증설 예산을 확보할 것을 교육원에 주문했다.

선학원 합의안 인준등
조계종종회 안건 확정
22일 종회의장단회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22일 사무처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141회 임시종회(26~30일)에서 논의할 안건및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안건은 △중앙종회의원(탄우스님) 제명 △사면동의 △통도사 교구행정 정상화 △영축총림 해제 △통도사 말사(해남사 관룡사 문수사) 직영사찰 지정 승인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인준 등이다.

정성운 기자

추경예산 4억2천6백만원 심의

조계종 상임분과위 회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21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각 상임분과위원장 및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지명) 연석회의를 열고 총무원이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4억2천6백만원의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추경예산안 가운데 증액 부분은 ▲소송비, 청사경호용역비, 종회 특별위원회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 3억1천6백여만원 ▲기초선원, 종비생, 군법당 건립과 군승단 지원 등 보조금의 지원 요청에 따른 증액 1억5천8백여만원▲도난성보백서 발간, 불교정보화(달마넷) 사업, 직장직능신행단 등 사업확대로 인한 사업비 증액분 8천3백여만원이다.

반면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킨 사업, 업무효율화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업비 1억4천1백여만원을 감액했다.

사업규모를 축소 또는 취소한 분야는 한중일 우호교류대회, 포살법회 등이며, 불교문학현상공모, 불교문화출판사업 등은 내년으로 이월했다.

정성운 기자

사찰환경대책위 28일 결성 활동시작

사찰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 대책위 결성이 28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결성식에 앞서 오후 1시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공동대표(해인사 주지 보광스님, 사회부장 성조스님, 종회사회분과위원장 여연스님), 대책위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결성식에서는 대책위 활동계획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찰환경 침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정성운 기자

중앙신도회 선관위 대의원 305명 구성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오는 8월20일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20일 신도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의원 3백5명으로 구성된 '중앙신도회장 선거인 명단'을 확정했다.

선거인들은 25개 교구본사 대의원 236명과 9개 신도연합단체 대의원 58명, 초대임원(부회장단)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관련 칼럼 6면>

김재경 기자

해외거주자에도 포교사자격
조계종 국제포교사관리령 개정키로

조계종은 15일 종무회의에서 해외포교인력 양성과 포교활성화를 위해 해외거주자를 대상으로한 국제포교사 자격시험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포교사관리령'(98년 7월8일 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거주 조계종 스님, 조계종 해외사찰 주지스님의 추천을 받은 해외거주 2년이상의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국제포교사 시험이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불교의 기본사상과 문화, 현대사상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영어 인터뷰 등의 전형으로 치뤄진다.

하지만 국제포교사 연수생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된 국내 거주 연수생의 경우에는 예전처럼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한후 실시되는 자격심사로 자격시험을 대체하게 된다. 국제포교사는 현재 8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조-태분규' 대화 다시 시작

고산스님 "양측대표 실무기구 구성 논의"
인곡스님 "현시점서 종식 큰불교 지향"

조계종과 태고종의 오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두 종단간의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과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스님, 두 종단의 부·실장스님들은 19일 조계종총무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조-태분규 해소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이후 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날 만남은 태고종총무원이 북한비료보내기 성금 2천만원을 북한동포돕기 불교추진위(총재 고산)에 전달하고, 두 종단 집행부가 상견례를 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인곡스님은 "사찰을 놓고 법정투쟁을 해봤자 서로 득될 것이 없으니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를 현상태에서 끝내자"고 제안하고 "이판과 사판이 힘을 합쳐 큰불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산스님은 최근 선학원과의 합의문 작성을 언급하며 "조계종에 위원회(조-태분규사찰 해결위원회, 위원장 정휴)를 구성했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산스님은 "소송의 당사자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이와 관련 22일 "8월중 조태위원회를 열어 조계종의 입장을 정리한 후 태고종측에 실무협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태고 분규사찰은 소유권은 조계종에, 점유는 태고종이 하고 있는 형태로, 선암사 봉원사 등 10여 사찰에 이른다. 두 종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분규종식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선암사 등 일부 사찰은 소유권 반환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놀」성분을 대량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21세기 불교' 청사진 제시

조계종 중장기 사업계획 의의

수행·포교 중심 종단운영 역점
거시적 계획…종도 역량결집 기대

4년여의 작업 과정을 거쳐 19일 발표한 조계종의 '종단 중장기 발전계획'(1999~2002년)은 21세기의 새로운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조계종의 비전을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조계종은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종단 외부환경의 기회와 위협 요인, 내부 여건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종책방향과 단위사업을 도출하는 SWOT 분석기법을 도입했다. 1차로 선정된 사업과제는 기술적, 경제적, 법적, 조직적, 사업기간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필요한 사업이라도 역량이 미치지 못하거나 사업기간이 적정하지 못하면 제외했다. 이전에도 사업계획 발표는 있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가 사업의 명분은 높았으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점에 비춰볼 때 진일보한 모습이라는 평가다.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발표를 통해 종단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를 향도할 불교상 제시 △종단사업의 일관성과 집중성 유지 △종단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역량 결집이 기대된다.

60개 사업과제의 실현의 최대 조건은 무엇보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이다. 고산스님은 이와 관련, "29대 총무원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 및 사부대중에 의한 종단운영을 위해 중단없이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 교구본사 재가단체 등의 이해와 참여를 이끄는 후속작업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한 수순이다.

중장기계획에 따라 내년부터의 예산 편성도 변화가 예상된다. 청사 건립 및 승가복지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사업에 대한 큰 폭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기획실장 만성스님은 "중장기 사업 중 특별회계 소관 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은 교육 포교 문화 사회 분야의 사업계획에 집중 편성될 예정이며, 경상비 등은 최소한으로 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60개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설명이다.

60개 사업과제 가운데 승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10개를 배치한 것은 청정승가상 구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행정립 및 신도조직 강화와 불교사회운동의 전형창출 및 조직건설에도 평생의례 개발, 불교사회활동 프로프램개발 등 각각 17개, 18개를 배치해 교육되고 조직된 신도를 통해 사회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

불교문화 새천년 사업, 연등축제 정착 등은 불교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승려복지를 통해 승풍 혼탁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의도이나, 기성승단의 승풍진작을 위한 방안은 빠졌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중장기사업계획 수립의 기법과 노하우를 교구본사로 전파해 중앙종무기관과 지역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중앙)이 교육원장 일면스님(좌)과 포교원장 정련스님(우), 3원의 부·실장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계종 중장기 60개 사업과제

(괄호안은 준비년도~완료년도, 실시년도)

수행과 포교 중심의 승가상 구현
◇종단 근현대사 연구(2000~2001)
◇승직, 법계제도 연구(1999~2001)
◇선사유품전 개최(2000, 2001)
◇승가노후복지시설(요양원) 설립(1999~2002)
◇승가의료보장 방안 연구(1999~2002)
◇승가복지기금 조성(2000~2001)
◇승가 교육제도 및 체계의 개선(1999~2001)
◇각급 교육기관의 활성화(1999~2000)
◇전공·교양교과목 이수제 실시(2000~2001)
◇승가 재교육의 다양화(1999~2000)

신행의 정립 및 신도조직의 강화
◇신도교육체계 정립(1999~2000)
◇신행체계(위계) 제도화(1999~2001)
◇각급 신도교육기관 정비(1999~2001)
◇신행프로그램 개발(1999~2000)
◇평생의례 개발(1999~2001)
◇포교신행 자료 개발(포교전서 등)(2000~2002)
◇포교지도 작성(1999~2000)
◇수도권 포교전략 수립(1999~2001)
◇사찰의 사회참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1999~2001)
◇국제홍보도량 지정(2000~2002)
◇여의도 불교문화원 운영(1999~2000)
◇지역별 분야별 포교주체 육성(2000~2002)
◇각급 신도단체 임원 연수교육(2000, 2001, 2002)
◇신도단체 활동 조직체계 정비(2000, 2001)
◇신도의 종단운영 참여방안 마련(2000~2002)
◇현대화된 불교상장례 개발 보급(2000~2002)
◇사찰 납골당 건립 지원(2001~2002)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통한 전통문화의 재창조
◇불교문화 새천년 사업 추진(1999~2000, 2001, 2002)
◇연등축제의 정착 및 해외홍보 강화(매년)
◇사찰의 지역불교문화 활동 강화(2000, 2001, 2002)
◇사찰문화안내서 발간(1999~2000, 2001)
◇불교문화의 전시체험 프로그램 개발(1999~2000)
◇중앙불교문화재 조사사업단 설립(1999~2001)
◇성보문화재 종단지정사업 확대(2000~2001)

불교사회운동 전형 창출 및 조직건설
◇불교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1999~2000)
◇불교시민사회활동 조직 육성(2000~2001)
◇자비의 대중화운동 기금 조성(매년)
◇남북불교지도자 상호방문 추진(1999~2000)
◇금강산내 전통사찰 복원(1999~2001)
◇남북불교학자 공동조사연구 추진(2000~2001)
◇북한동포돕기 사업 추진(1999~2000)
◇종단 영문소식지 발간(1999)
◇한국불교문화 안내책자 발간(2000~2001)
◇해외사찰 현황파악 및 종단 연계 강화(1999~2001)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개정(1999)
◇전통사찰 보호구역 설정 및 책자 발간(2000~2001)
◇지역단위 사찰환경보존위 구성(2000)
◇환경백서 발간(2000)
◇1사찰 1복지시설 설치운동 추진(2000~2001)
◇종단자원봉사센터 설립(2000~2001)
◇사회복지상담 및 정보자료실 운영(1999)
◇불교복지후원회 조직 및 모금사업(1999~2000)

불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통합종무행정 전산망 구축(2000~2001)
◇달마넷 사업 추진(1999)
◇1사찰 1ID갖기운동 추진(1999~2000)
◇종단 정보전산실 구성(2000)

기간시설 건립
◇불교종합회관 건립(1999~2001)
◇불교중앙박물관 설립(1999~2001)
◇중앙연수원 설립(2000~2002)
◇상설행자교육원 설립(2000~2002)

젊음이 있는 조직 '탈바꿈'

인터뷰 대불청 20대 회장 전안호씨



대한불교청년회 제20대 중앙회장 선거가 18일 대전 중앙불교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선거에서 기호 1번에 입후보한 전안호씨(포항지부 감사, 대경철강(주) 대표이사)가 62표를 얻어 이상번 후보를 10표 차이로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

전안호 회장은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리더십으로 지난 1년6개월 동안 좌초됐던 불청을 화합으로 이끌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히고 "불신과 반목으로 굉배한 불청을 젊음이 있는 곳으로 탈바꿈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또 "회장 선출문제보다 회장을 보필할 적임자를 등용하는 문제가 본회 발전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며 부회장을 비롯한 각 부차장 인선에 불청인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87년 포항지부 초대회장을 거쳐 5, 6대 경북지구장, 중앙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전 회장은 △불청조직의 화합도모 △사무인력 전문화 △중앙사무국 정비 △승단과의 관계 개선 및 종단발전에 기여 △부채 해결 △불청의 자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전 회장은 모든 정책의 결정을 정관의 제도적 기구 안에서 공론화하고 결정할 방침을 밝혔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예비역 군법사단 공식기구로"

조계종 '전역법사의 활동' 세미나서 제기

예비역군법사단을 종단의 공식기구(포교원 또는 군승특별교구의 산하·지원 기구 등)로 인정하고 전역 군법사에게 자격(상임포교사 등)을 부여해 포교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예비역군법사단(단장 성광·화계사 주지)이 16, 17일 강화 법왕사에서 조계종 포교부장 현진스님과 50여명의 예비역 군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하계수련대회 및 '전역법사의 종단 직위문제와 향후 활동방향'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예비역 군법사들이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종단내 지위로 인한 전역후 수행 및 포교 공간을 보장받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종단내 직위문제를 정립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6월11일 예비역군법사단 대표와 포교원장 정련스님과의 간담회에서 '예비역군법사들을 포교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종단적 관심을 표명한 것도 이번 세미나 개최의 한 계기가 됐다.

예비역 법사는 160여명에 이른다. 이중 출가자로 복귀한 법사가 60여명, 교계 종사자 30명, 교법사 8명, 교수 또는 강사 20명 등이 포교관련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상당수(30% 정도)의 예비역 법사들이 실제 포교의 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이 현실이다.

포교원이 늦게나마 예비역 군법사를 포교 일선에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교계 최강의 포교자원' 확보라는 하나의 신선한 바람이 될 전망이다. 예비역군법사들의 포교역량 제고를 위해 제안한 방안들은 그래서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법사 선발 임관 과정에서 종단이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군법사로 파송할 인재의 양성및 관리 △전역을 앞둔 군법사를 공식 소집해 전역후의 적절한 신분과 자격을 부여(비구, 전법사, 중앙포교사, 상임포교사, 국제포교사, 교법사 등) △예비역군법사단을 활용해 군포교 및 다양한 직장 직능, 계층별 신행단체를 지원하도록 후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예비역군법사단은 이번 논의를 공론화시키고 종단에 공식 건의, 종단적 정체성 확립과 함께 의욕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목어

DJP의 거짓말

옛부터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고 하였다. 국민의 뜻은 곧 하늘의 뜻이라, 요즘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지적하라면 당연히 정치인을 지목할 것이다. 국민과의 공약(公約)은 하늘과의 약속이다. 하늘을 머리에 이고 하늘에 기도드리며 하늘 밑에 사는 인간이 하늘과의 약속을 어긴다면 하늘은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다. 옛부터 인륜의 도덕을 어기면 천벌(天罰)을 받는다고 하였다.

오즈음 신문에 많은 읽을거리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도덕성을 잃고 천륜의 공악을 어기는 몰염치한 사람이 있으니 집권 여당의 소위 DJP라고 하는 양두마차라고들 한다. 내각제 연기에 대하여 DJ는 "내각제 연기의 여론이 높다"면서 "필요한 때가 되면 정식거론할 것"이라고 꽁무니를 빼고, JP는 '구국의 결단'으로 연기의사를 비치고 있다. 신문의 논평에서는 '내각제, 연기는 곧 포기'임을 시사하고 있다. DJP는 지난 선거에서 내각제 개헌 공약의 언약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총리가 되었다.

이제 또 국민의 굉계를 대고 구국의 결단을 구실로 대통령과 총리의 공약을 자신들이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대통령과 총리는 하늘이 낸 정치 지도자이다. 그들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 정권 연장의 차원에서 하늘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면 그 얼굴은 멀지않아 스스로의 오물을 뒤집어쓰는 과보가 있을 것이다.

DJP는 두 분 모두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신자라고 듣고 있다. 민심을 살펴 국민의 뜻을 잘 보고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에 목사가 자리잡았다. 그도 역시 국민을 하늘처럼 모신다고 하였다. 과연 한국 기독교의 풍토 아래에서 기독교 성직자인 목사가 다종교 사회인 한국민의 여론을 얼마나 정직하게 수렴하여 신자인 두 정치지도자에게 올바르게 민심의 동향을 보고하여 국정에 반영하게 될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은 말이 없지만 보지 않고 듣지 못함이 없다.

국민의 소리를 널리 공청하여 국민의 원성을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내생에 벙어리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으며, 지옥이 가면 혀를 뽑는 발설(拔舌)지옥에 간다고 하였다. 인과(因果)에 떨어지지 않기(不落)를 바라지 말고, 인과에 어긋석지 않는(不昧)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플레이에서만 재생됩니다.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24초) 3. 아미타경(13분38초)
4. 화엄경 약찬게(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성게(2분 49초) 9. 무상게(4분 51초)
10. 관음정진(10분02초) 11. 금강경(33분15초) 12. 반회심곡(13분07초)
13. 천수경(18분24초) …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51초)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00초) … 55. 회심곡(9분05초)
56. 탑돌이(8분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13번
① 번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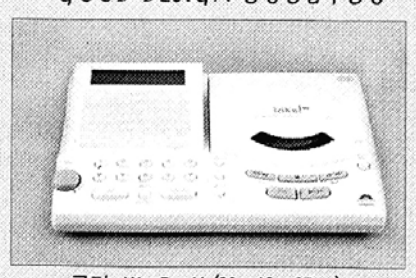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매입니다.

♣ 듣고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경내나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산업부선정



규격: W×D×H (26×18×65cm)

인켈에서 세계특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불교방송 ●
서울·경기 F.M 101.9MHz
부산 89.9MHz 광주 89.7 MHz
대구 94.5 MHz 청주 96.7 MHz

※모든 기능을 원터치로 쉽고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080-900-0101 032-343-22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활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 보급처 : 법운정사 홍법회

■ '사부대중공동체' 창립준비위 제1차 토론회

"재가자 참여로 대승불교 구현"



◇현응스님

지난해 조계종 사태때 결성됐던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연대회의'가 20일 조계사 교육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공식해산. '미래를 열어가는 사부대중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응스님이 '불교계의 현실 진단과 대안의 길'을 주제로 발제했다. 다음은 발제 요지. 〈편집자 주〉

한국불교는 교리상의 역사적 전통은 대승불교이지만 현실적 교단모습은 승단과 신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상좌부시대의 모습이다. 이는 사찰과 교단을 승단이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해 온 한국불교 교단사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통과 관행이 오늘날 엄청난 종단적 업무에도 불구하고 재가불자나 신도들로 하여금 사찰운영이나 종단운영에서 배제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불교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부대중공동회의'가 필요하다.

사부대중공동회의란 오늘날 교단이 역사적 유산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책무 때문에 소홀하거나 방기하고 있는 불교본연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대승보살의 일원으로서 사부대중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한국불교의 역사적 유산을 관리운영하는 제도적 시스템으로서의 '종단'이라는 틀에 사로잡히거나 연연함 없이, 종단이라는 틀을 뛰어넘는 논의의 광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사부대중공동회의는 정치적 의미에서는 하나의 회의체이지만 그 참여구성과 성격상 이상적인 대승불교 정신을 실현하는 공의적 공동체(公議的 共同體)이다. 출가승단과 재가불자가 회의의 공간에서 만난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깨달음의 영역이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역사의 영역과 결합되어 조화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부대중공동회의를 통해 각자의 영역을 살찌우며 사부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작업들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교차로

결식 이웃돕기 후원사업 시작



법정 '맑고 향기롭게' 회주 스님은 8월부터 결식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후원사업을 시작한다. (02)741-4697

유치원 교사 수련회



정인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장 스님은 7월31일~8월2일 하동 쌍계사에서 '처음시작하는 마음, 부처님 마음'을 주제로 제 26회 수련회를 개최한다.

호국흑룡사에 불서등 지원



대은 태고종 인천 종무원장 스님은 최근 종교편향사례가 발생한 백령도 유일의 사찰 호국흑룡사 지원에 나서 초, 향, 불서, 포교용 게임기 등을 전달했다.

해인불교경전대 첫 졸업식



수진 부산 해인정사 주지는 20일 해인정사 부설 해인불교경전대학 제1기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날 2백명의 첫 졸업생이 배출됐다.

광에 한국사찰 개원

반월 부산 연등사 주지는 8월8일 미국령 괌도에 한국사찰로서는 처음으로 관해정사를 개원하고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한다. 이날 하오에는 KAL기 위령탑에서 교미불자들과 함께 천도재를 지낸다.



관악경찰서 경승실장에



광옥 서울 약수사 주지(비구니)는 20일 경승단으로부터 관악경찰서 경승실장에 위촉됐다.

'우리문화 역사기행' 행사



박철언 자민련불자회 회장은 8월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청년조직원들과 함께 '우리문화역사기행'을 떠난다. '우리문화역사기행'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신도운동 모색' 세미나



선진규 전국신도회장은 8월10·11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신도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 세미나 및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단군사상과 불교사상' 강연

김지하 시인은 8월7일 조계사 열린 강연회에서 '단군사상과 불교사상'을 주제로 강연한다. (02)720-1390

조계종직할 종회의원 현각스님 당선



23일 실시된 조계종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현각스님이 당선됐다. 현각스님은 희찬스님을 은사로 출가, 71년 사미계, 7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승가대와 동국大 불교대학을 졸업했으며, 영월 보덕사 주지등을 역임했다. 현 원주 성불원 원장, 월정사 사회국장.

불교유치원에 놀이기구 보급



김동일 美 L.A. 관음사 연화랑 부관장은 최근 국내에 미국 수입교구 및 놀이기구 회사인 샘즈 코리아 부장으로 임명돼 불교유치원에 질 좋은 놀이기구를 보급한다. (011)9012-9873

'균여' 연구로 동대서 석사학위



조돈규 경찰청 수사국 경정은 최근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균여의 화엄사상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인 사

조계종

◇총무원(7월 19일자) ▲기획국장 정도스님 ▲호법국장 법승스님

조계종 교육원 3개 위원장 선출

교육-법산, 교재편찬-무관, 역경-장산스님



◇법산스님



◇무관스님



◇장산스님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19일 교육원에서 교육위원회의를 연데 이어 20일 교재편찬·역경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각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원 명단 본지 230호 참조〉

올해 처음으로 열린 각 위원회에서는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을 교육위원장에, 무관스님(법계사 주지)을 교재편찬위원장에, 장산스님(동명불원 주지)을 역경위원장에 각각 선출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카오스이론은 화엄사상과 같아"

김용운교수 새시대불교포럼서 강연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한국수학문화연구소장)는 20일 조계종 포교원 4층에서 열린 새시대불교포럼 7월 월례 발표회에서 '카오스이론과 불교'에 대해 강연했다.

김 교수는 "카오스 이론은 과학의 세계정복이 아닌 예측키 어려운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를 위한 공존과 화합에 그 기본틀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카오스 이론은 모든 것을 전체 속의 부분으로 보는 인식에서 출발한 불교의 화엄사상과 일치하는 특색을 지닌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또 "카오스 이론은 개인과 사회가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사상과 다를 바 없으며, 화엄불교는 이미 카오스 이론의 근본원리를 꿰뚫고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시력낮다고 사회활동 막아서야"

저시력인 대상 강좌 여는 미영순씨



"저시력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시각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는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것보다 매우 열악합니다. 이들이 일반인들과 같은 학력과 직업을 갖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저시력인연대 대표 미영순씨(현대종국연구회 수석연구위원)는 이런 생각에 지난 22일 저시력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각 1개월, 3개월 과정의 컴퓨터와 한문교실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부터는 후원의 고마움을 회향한다는 차원에서 후원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회화, 중국어, 교양한문 등의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강사는 각 부문 전공자인 저시력인들이 맡고 있다.

"저시력인들은 다른 장애인들과는 달리 학습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강좌는 그런 저시력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들은 약간의 시력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일을 맡겨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것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씨는 저시력인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저시력인연대 3백여 회원은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확대 및 음성지원 프로그램'과 확대독서기, 확대경 등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각종 보조기기를 무료로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02)593-3396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강화 화개사 섬어린이 서울나들이

"조계사 부처님 얼굴이 참 예뻐요" "벽화는 그림이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경기도 강화군 교동도에 위치한 화개사(주지 윤진)는 19일 섬마을 어린이 서울나들이를 실시했다. 3박4일간의 수련회 일환으로 가진 이날 서울나들이에는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조계사를 둘러보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용가리'를 관람했다.

어린이들은 사찰의 이모저모에 대해 스님의 설명을 들으니 무섭지도 않고 흥미롭다며 즐거워했다.

윤진스님은 "흥미 위주의 수련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배움의 장을 마련,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외국인 불교체험 시연

"외국인들은 반가부좌를 튼 채 오래 앉아 있기 힘드니, 5분~10분 정도 참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과 조계사(부주지 지홍)는 19일 관광회사 임원 및 외국인 가이드 40명을 대상으로 2시간용 외국인 한국불교 체험 프로그램 시연회를 개최했다.

조계사 상임법사 종서스님의 안내로 열린 이날 시연회는 사찰 소개, 사찰예절 실습, 참선 및 다도 실수 등으로 이뤄졌다. 가이드들은 삼보가 무엇이고, 참선시 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진지하게 실습에 임했다.

이번 시연회는 한국관광공사의 신규관광상품 설명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김재경 기자

Focus

전통식품지정업체

0598-945-0075~7
삼부농산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새로운차, 꼭 드셔야 할 차
귀한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황토삼백초

황토삼백초와 함께 몸도, 마음도 맑아진다.
- 황토삼백초차,신농차-



신비의 황토삼백초



신비의 약용식물 황토삼백초

에르쿠르 본초강목, 중국본초지요, 동의보감 등에 놀라운 효능이 많이 있지만 희귀식물로 특정지역에서만 자생되어 일반인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스승한 약용식물 황토삼백초! 이제 손쉽게 만나 실 수 있습니다.
국내최초로 심부농산 김봉서 선생이 거창의 청정지역 함양에서 특허와, 유기농으로 대량재배 · 기능식 고급차로 개발하였습니다.

몸과 정신의 기를 맑게 정화시켜주는 황토삼백초차, 신농차

-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해독작용. • 음식이 잘소화되어 면역력 증강 작용.
- 피를 맑게하고, 맑은 피를 온몸에 잘 순환시켜주어 원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
- 위장기능을 튼튼히 하여 속을 편하게 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작용.



이런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 자꾸 자주 드시는 분 • 대사에 의욕이 없거나 늘상 피곤 하시는 분
- 스트가 인해고 속이 거북하거나, 관리 않은 분
- 머리가 개운치 않고 항시 무겁은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생 하시는 분 • 변비속병에 시달리시는 분 • 식수공해가 염려되시는 분 • 몸이 적속적으로 안좋으신 분

특 징

- 비에프 증식 및 기억력 증진과 치매에 관여하는 콜린과 피놀레피노이드 배당체가 풍이 있습니다.
- 장기능을 활성화 해주는 천연 섬유고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 피를 맑게하고 막힌 혈관을 열어주어 피의 순환을 돕고 손상된 혈관 치유에 도움을 주고, 고지혈증과 조직에프 생성 억제로 혈압, 노화 방지에 영향을 미치고, 해독과 이뇨작용에 좋은 프로테계 물질과 수용성 단신, 무진등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 희귀미네랄인 게르마늄과 천연아미노산인 아스파라신, 글루타민산, 트레오닌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용법

- 온가족이 일상차나 숭늉처럼 드시거나 손님접대용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물용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 참고문헌 : 조규형 편저 "삼백초건강법"

레이키 - 그날부터 氣능력자가 되는 법 전수

레이키

세상의 여러 기공법과는 달리 누구나 그날부터 氣능력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레이키(Reiki)법입니다. 이미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중남미 여러나라, 인도를 포함하는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의 수백만명에 대한 전수 실적이 증명하고 있어서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날부터 氣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만 한가지 제약조건은 있습니다. 확실한 자격과 높은 능력을 가진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입니다. 확실한 자격과 높은 능력을 가진 레이키 마스터여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능력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전수 방법을 전통적으로는 영수(靈授)라고 했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어튠먼트(Attunement)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어튠먼트를 하는 능력에 레이키 마스터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높고 확실한 능력을 가진 좋은 마스터에게 전수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운이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박희준)는 레이키 마스터로서 높고 폭넓은 능력을 갖기 위해 2년에 걸쳐서 도합 10여 차례나 일본을 내왕하면서 다양한 레이키 유파(현대화된 여러 갈래의 우스이식 레이키와 카루나식 레이키)의 레이키를 전수받았고 다른 나라로 전수되지 않은 극비의 전통적 레이키(眞傳靈氣라고 합니다)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리어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이 한국으로 레이키를 배우러 올 수 있게 하는 태세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레이키(氣)는 일본에서 태어나 (우스이 미카오씨가 창시) 서양에서 발전해 일본으로 역수입된 경위를 가지고 있는 세계인류의 「氣문화 자산」입니다.

레이키는 진정한 의미의 「우주생명 에너지」이며 「사랑의 힐링도구」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사는 재미를 모르고 살던 많은 사람들을 활력과 행복감과 환희심이 넘치는 생활로 되돌려 주는 힐링(요법)의 도구입니다.

정통적 의료와 힘을 합해 많은 난치병 환자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는 협진의 도구입니다.

1. 레이키법의 전수 절차

우리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에서는 레이키 능력 전수단계를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전문 임상 응용단계」, 「제4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능력을 전수하고 있으며, 별도로 「카루나 레이키」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 2일
(1) 1시간의 레이키 주입 (2) 2회의 어튠먼트
(3) 발령법 학습 (4) 12포인트 자타치료법
(5) 오라크리닝법 (6) 차크라조정법
(7) 레이키호흡법 (8) 동식물치료법 · 에너지주입법

※제2단계 + 제3단계 : 2일
(1)2단계의 어튜먼트 3회, 3단계의 어튠먼트 3회와 각단계에 따르는 상징들 전수 (2)물질, 에너지 상품, 음식물, 환경 등에 대한 에너지 주입, 정화법, (3)원격 치료법, 본격적 레이키 시술법 (4) 생활 각방면에서의 레이키활용법 (5)기감개발법, 합장행기법, 광명상법 (6)셀프어튠먼트법, 참나개발법, 단축레이키요법 등

※전문임상 응용단계 : 수일
(1)3개월에 걸쳐서 실시되는 4회이상의 어튠먼트
(2)우스이식 전통적 레이키요법, 완전한 레이키 요법,
(3)250가지 이상의 질병에 대한 시간 단축 치료법 발췌 실습
(4)염달치료법, 우스이식 전통적 음양 반응점 요법
(5)전문적 레이키오법가가 되는데 필요한 새로운 임상자료나 레이키관련 정보의 추가공급
(6)사이킥서저리(시미령수술)법

※카루나 레이키 : 1일
카루나레이키는 미국의 레이키마스터인 윌리암랜드씨가 1995년부터 개발해 보급하기 시작한 새로운 레이키법이며 사람의 심신을 치료하는데 87가지 종류의 치료용 氣를 우스이식 레이키 요법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2. 지도자 : 박희준 (우스이레이키마스터 · 카루나 레이키마스터) 번역저술가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Reiki.co.kr ♣♣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구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전화 (02)720-5682, 725-2311, 핸드폰 019)392-2557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퍼어선빌딩
※반드시 미리 전화하고 오셔야 하며 공휴일에도 계별 지도합니다.

우리 모임에선

부산청년산악회 수련회



부산청년불자산악회(회장 김정관)는 16일부터 18일까지 동해 두타산과 청옥산 삼화사에서 하계 수련법회를 가졌다.

회원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법회에서 부산청년불자산악회는 산행을 수행에 접목시켜 나가는 묵언 산행, 호흡주시 산행, 잘 들여다보기 산행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부산청년불자산악회는 이 밖에도 불교교리와 좌선법 강의 및 실수시간을 가졌으며, 철야정진 후 삼화사 주지 원행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기도 했다.

전국교사불자 연수

한국불교교육원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김광열)은 8월 6일~8일 충북 괴산 다보사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연수회를 개최한다. 포교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 교사 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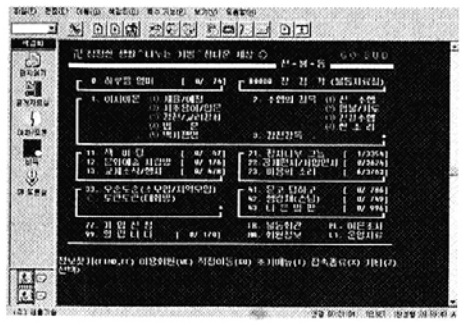
연수회는 입재해 오리엔테이션, 동국대 정병조교수의 강의, 수행실수, 친교시간, 기도정진 등으로 진행된다.

성불회 정기법회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회장 윤동수)는 29일 정오 강당에서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클릭! 수행방법·도반 만나요

유불동 금강경 100번 읽기 캠페인 전개
천불동 경전 공부방·염불기도방 등 운영
하불동 불교영어·구법토론·상담실 개설



◇각 통신 불교동호회에 클릭하면 자신에 맞는 수행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사진은 천리안 불교동호회 메뉴.

땡볕 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요즘 각 불교통신동호회가 굳이 절에 찾아가지 않고도 '네티즌들이 수행에 몰두할 수 방법들을 속속 소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불교통신동호회는 사이버 상에 개설된 '경전강독' '신행상담' '구법토의' 등의 신행코너를 강화하고 불자네티즌들의 수행 이끌기에 한창이다.

유니텔불교동호회(대표시샵 정경자)는 서경지역장의 제안으로 '금강경 100번 읽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불동은 캠페인을 통해 얻는 △불경 몸에 지니기 △불자 의식수준 향상 △불교 공부하는 습관 기르기 등의 기대효과를 불교계 저변에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은 경전 구입 방법에서부터 독경 방법, 경구의 뜻, 수행점검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온라인 상에서 운영진들과 수시로 질의응답해 궁금증을 풀 수 있다.

지공 서경지역장은 "경전을 읽는 공덕은 물론 유불동 회원들이 하나의 신행으로 공감대를 형성, 사이버 도반으로서의 연을 맺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리안불교동호회(회장 이경재)도 '경전강독' 코너에서 △〈해심밀경〉을 중심으로 한 유식사상 공부방 △산스크리트본 〈법화경〉 △〈능단금강경 반야반라밀다경〉공부방 등을 운영, 경전을 읽으며 한여름 더위를 물리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천불동은 그 외에도 △선수행 △염불·기도 △건강·실용수행 등을 통해 다양한 신행실수의 방법과 자가점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정지문)는 '불교영어' '구법토의' '팔만대장경' '신행상담실' '불교기초' 등의 코너를 강화, 기초교리에서 선(禪) 수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자들의 신행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특히 '구법토의'에서는 네티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며 신행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론 내용도 '무엇이 참된 바라문인가' '라즈니쉬 그는 사이비일 뿐이다' 등 다양해 눈길을 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한전 8개 불자회 봉정암서 철야정진



한국전력 전국 8개 지역 사업장 불자회가 17~18일 봉정암에서 합동 철야정진 수련회를 가졌다. 수련대회에는 본사 반야회를 비롯 월성원자력불자회, 울진원자력불자회와 남서울전력, 한일병원, 수원전력관리, 경남지사, 중앙교육원 등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1백여 명의 한전불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백담사 참배, 연합법회, 상견례, 철야정진 등의 순서로 진행된 수련회에서 한전불자들은 신심증장 수련에 앞서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불자로서 연대감을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류했다.

김영창 한전 본사 반야회 회장은 "각 사업소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법회를 가지게 돼 여간 기쁘지 않다"며 "한전이 분사(分社)되기 전에 연합조직을 구성하고 법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또 김흥수 울진원자력불자회 회장은 "직장인들에게 철야정진은 쉽지 않은 수행이다. 자기 사진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운불련 첫 체육대회



제1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박영조) 체육대회가 18일 대구 경북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15개 지역회 팀이 축구, 배구, 족구, 테니스 등 4개 종목에 걸쳐 경합을 벌인 이날 체육대회는 5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영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있어 한 지붕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축구경기에서는 끝까지 팀워크를 유지하며 혼현일체가 된 대구지역회(회장 류지순)가 부산지역회와 결승을 벌여 우승기를 차지했다. 또 결승전에서 영호남 대항을 벌인 배구와 족구, 테니스는 광주지역회(회장 김용문), 포항지역회(회장 권용재), 대구지역회가 각각 우승컵을 걸머졌다.

탐방 경주교도소 교정불자회

열린 교화행정-마음공부 병행



◇경주교도소 교정불자회는 올 봄 회원 가족들과 석두암 성지순례를 가졌다.

직원 180명중 회원 70명
재소자에 영치금 후원

최근 탈옥수 신창원의 검거로 교도행정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가운데 '재소자들을 교화갱생시키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가'를 화두로 삼고 있는 불자회가 있다.

경주교도소 교정불자회(회장 서경석)는 이 화두를 풀기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는 모임. 同 불자회는 경주교도소에서 교도행정을 담당하는 불자들이 지난95년 3월 개인적 수행과 재소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조직됐다.

同교도소에 근무하는 1백80여 명의 직원중 70여명이 가입된 불자회는 매월 한차례 불국사불교교육원에서 석두암주지 성탄스님을 지도법사로 정기법회를 갖는다. 이와는 별도로 재소자들은 매주 한차례 수요법회를 갖는데 이때는 폐쇄되고 격리된 공간이 심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 법회는 불국사와 울산 한마음선원 그리고 경주시내 사찰에서 번갈아 가며 봉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재소자들을 감화시킨다는 원력을 세워 봉사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회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영치금없는 재소자 30명에게 1만원씩 영치금을 넣어주기도 했으며, 2년전 추석에는 송편을 빚어 제공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3부제 교대근무가 많아 회원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기가 어렵고 수행공간을 마련할수 없는 등 애로사항도 적지않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말에는 회원 가족들이 동참한 가운데 '반야의 밤'을 개최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틈틈이 성지순례도 다녀오는 등 신행활동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재소자들이 법회에 참석해 감화를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서경석회장은 "교도소 실정에 맞는 신행행태를 개발하려고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조계사 대장경 정대불사 회향

조계사(부주지 지홍)는 16일~18일 3일간 대웅전 앞마당에서 신도 1천5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대장경 정대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독경을 하면서 법계도에 따라 도량을 선회하는 행사. 조계사는 70년대 말 경판을 제작해 매년 한 차례씩 '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해 오고 있다.



종단협 불교연합합창단 창립

불교연합 합창단이 창립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순임·봉선사 합창단장)는 22일 종단협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관음종 홍파 총무원장을 비롯 합창단원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진각종 회당학원 제1회 가족체전

회당학원(이사장 최지광)은 19일, 20일 양일간 경주 위덕대에서 진각종립 5개 학교 직원들이 참여한 제1회 회당학원 가족체전을 개최했다. '미래를 향하는 회당 교육가족의 함성'이라는 주제 아래 서울 진선여중, 진선여고, 대구 심인중·고, 경주 위덕대학교 등 교직원 4백여 명이 참석한 체전은 19일 기념법회, 전야축제, 20일 배구, 풋베이스볼, 4백m 계주, 줄다리기 등으로 진행됐다.



신행모임 '신수회' 운문사서 수련회

신수회와 여여회는 17일~18일 양일간 청도 운문사에서 합동 수련회를 가졌다. 20여 명의 재가불자들이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철야정진, 아침예불, 운문사 주지 혜은스님의 법문, 가람순례 등으로 진행됐다. 혜은스님은 "비록 몸에 병이 들어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부처님께 일심으로 기도하면 가피를 입게 된다"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사 과 문

본인은 미얀마 삼보불상조각원 대표로서 99년 6월 25일경 "「옥불」 미얀마의 天然白玉佛로 가피력과 氣의 신비를 느껴보십시오"

제하의 팜플렛을 제작하면서 국내 대한석불 조각원 작가 이재순씨가 제작한 관세음보살 백옥불상의 사진을 작가와의 승인없이 팜플렛 전면에 게재하여 마치 미얀마에서 제작한 것과 같이 홍보한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추후 귀 작품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7월 일

미얀마삼보불상조각원 대표 최상호
회장 최정수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동문 졸업·40기생 모집중>

1.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외 법패의식 (법현스님) 특강(동·하계 스쿨링때 법패의식 교육)

1학년	1학기 (16주)	◇불교경전의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불교상용 의식	◇유식사상
	2학기 (12주)	◇화엄사상 ◇구사론(아비달마)	◇중국불교의 이해 ◇불교상용의식 실습	◇비교종교
2학년	1학기 (18주)	◇부파불교의 이해 ◇대승기신론	◇밀교학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반야사상
	2학기 (12주)	◇한국불교의 이해 ◇선사상	◇대승불교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천태사상

3. 교 수 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김종명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법사, 법현스님(동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불교학 출강 00명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불교학 통신 00명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원주 법웅사 (0371)742-2701
▶제천 묘장암 (0443)653-3249 ▶진해 삼밀사 (0553-542-6531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6. 특전사항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이렇게 들었다 공동체 삶

"연기법은 깊고 분명하다"

너와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 바로 부처님이 평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삶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같은 가르침을 잊은채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좇아 가족, 친구, 이웃, 자연의 소중함을 잊고 산 지 오래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각종 범죄와 대형사고, 환경오염 등도 너와 내가 하나라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교계에서는 도농공동체운동본부추진위원회, 사찰환경대책위원회, 사부대중공동체 등 공동체 삶을 실천하기 위한 모임들이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 함께 힘을 모아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공동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경전속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지혜, 계율, 도덕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된다. 자기를 남과 동등하다거나 남보다 못하다거나 또는 뛰어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법구경〉

▨"탐욕에 집착하면 마음이 캄캄해져 자기와 남을 해치게 된다. 그러면 현세에서도 죄를 받고 후세에서도 죄를 받기 때문이다. 분노와 어리석음에 집착해도 또한 그와 같다. 탐진치 삼독에 집착하게 되면 그 순간 사람은 밝은 것도 아니며, 열반에 이르는 것을 방해 할 뿐이다. 그래서 삼독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독을 끊으면 자기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현세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후세에서도 과보를 받지 않게 된다. 마음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우며, 번뇌를 떠나 현세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전타경〉

▨정법(正法)을 섭수(攝受)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대지를 건립해서 4종(국토 및 일체중생)의 중임(重任)을 능히 짊어지며, 널리 중생을 위해 벗이 되고 대비(大悲)로써 중생을 안위하고 애민하여 세상의 법모(法母)가 된다. 〈승만경〉

▨과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어떤 것은 오래 갔고, 어떤 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가르침이 오래 존속된 부처님들은 반드시 계율을 제정하여 제자들이 지키게 했다. "이 일은 하고 이 일은 하지 말라. 이 일은 생각하고 이 일은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끊고 이것은 잘 지켜라." 〈사분율〉

▨나는 보름마다 여러 부처님의 계법(戒法)을 외운다. 너희들도 따라서 외우라…모든 여래의 근본이고, 보살도를 행하는 근본이며, 모든 불자들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받아서 지켜야 하고, 외워야 하며, 잘 배워야 한다.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집승에 이르기까지 법사(法師)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두 이 계를 받을 것이니, 계를 받음으로써 가장 청정한 자가 될 것이다. 〈범망경〉

▨자신의 명성이나 생활의 양식을 얻기 위해 출가자인 스승을 따라서는 안된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공경하기 위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설하는 구도자를 따르라. 〈반야경〉

▨배고프고 궁핍한 중생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중생들에게 의식(衣食)에 대한 궁핍을 없게 하겠다는 서원을 일으키는 것이 보시바라밀을 닦는 마음이다. 〈대품반야바라밀경〉

▨욕망과 인연되어 잡음(取)이 있고, 잡음과 인연되어 존재가 있으며, 존재와 인연되어 남이있고, 남과 인연되어 늙음, 병, 죽음과 근심, 슬픔,번민, 괴로움이 있으니, 이렇게 하여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인다. 비유하면, 기름과 심지가 인연되어 등불을 켜는데, 거기에 때때로 기름을 더하고 심지를 갈면 그 등불은 언제나 밝고 꺼지지 않는 것과 같다. 〈잡아함경〉

▨아난다야, 연기를 참답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어지러울 뿐, 생사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다. 연기는 깊고 분명한 법이다. 〈중아함경〉

자비의 벽돌 한장 쌓기

목.소.리



보각
소쩍새마을 원장

만약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권선(勸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착한 인연을 맺도록 해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주 치악산 소재 소쩍새마을에는 의지할 곳 없는 노인 장애인 고아 등 2백50여명의 대 식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아픈 사연들을 이루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갖고있는 사연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사회로부터의 냉대와 멸시를 받으며 소외된 채 살아야 했던 과거의 아픈 추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일반인들처럼 떳떳하게 사회를 이루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승가원은 지난 97년 9월말경 강원도 횡성에 종합복지타운 부지 20만평을 매입, 금년 1월부터 '자비의 벽돌 한장쌓기' 운동을 통해 벽돌 1백만장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여진 벽돌은 소쩍새마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새 보금자리를 조성하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자비의 벽돌…'은 인연없는 사람에게는 인연을 맺어주며 선업을 쌓도록 돕는 '착한 공덕 쌓기'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이 전개된 지 수개월이 경과했지만 아직 참여율이 저조해 공사가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방울이 물이 모여 넓은 바다를 이루고 한줌의 흙이 모여 태산을 이루듯 종합복지타운 조성도 벽돌 한장 한장이 모이다보면 반드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불자여러분들께서 '자비의 벽돌 한장 쌓기' 권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비의 벽돌 1장 1만원. 문의 (02)928-0750)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임창열씨 부부 합장사진 언론보도 불자들 '망연'

경기은행 퇴출을 둘러싼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7월 16일 한국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와 지방지 그리고 KBS MBC SBS 등 TV방송사는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가 나란히 서서 합장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자료를 보도했다. 연합 뉴스가 제공한 문제의 사진자료는 임씨 부부가 지난해 신라호텔 호국법회에 참석했을 때의 사진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공인으로서 참석했을 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 부부가 불교인이 아니라 엄연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언론사들은 임씨 부부가 합장하는 모습의 사진자료를 무책임하게 게재, 삽입방송하여 독자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불자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1천만 불자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김재일〈보리방송모니터회장〉

봉정암 2박3일 참배 '부처님세상' 절로 체험

아카시아꽃 향기도 사라져가고 녹음이 점점 짙어가는 초여름을 문앞에 두고 나는 도반들과 설악산 봉정암으로 떠났다. 강원도 백담사를 거쳐 오세암에서 하룻밤 관음기도를 마치고 봉정암으로 가는데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 지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 이렇게 여섯 고개를 넘어가자 마지막 깔딱고개는 정말 고행이라 생각될 만큼 위험이 따랐다. 이러한 고행을 겪고 보니 업장소멸이 아니될 수가 없겠다 싶었다. 그러나 험난한 고개를 넘고 드디어 봉정암 사리탑에서 앞을 바라보니 산맥을 타고 병풍처럼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의 모습은 봉황처럼 부처님처럼 생긴,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힘들게 올라오니 성취감과 감회가 더욱 깊었다.

2박3일 일정을 마치고 새벽에 수림계곡으로 내려오는데 그 경치 또한 장관이었다. 금강산이 장엄하다지만 여기 또한 못지 않을 것 같았다. 어디선가 풍겨오는 이름모를 향기속에서 우리 일행은 조심스럽게 하행을 했다. 유리같은 계곡의 옥수와 하늘을 찌를듯 뾰족히 솟아있는 계곡을 바라보면서 내려오는 길이 하염없이 길었지만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걸으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처처가 불국토이고 그대로가 부처님의 향기로운 음성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봉정암 참배였다. 부처님적멸보궁을 참배한 감동은 일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건순〈대전시 동구 가양 1동〉

서로 다른 '불교수화집' 통일작업 서둘러야

최근 해성스님이 펴낸 〈자비의 수화교실〉과 지난해 강주수씨가 펴낸 〈불교수화〉의 내용이 서로 달라 청각장애인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또 모 교계신문에는 스님의 불교수화가 게재되고 있는데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본뜻대로 이해되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절을 목탁과 집을 합친 단어로, 수행을 목탁을 치는 연습 이라고 단편적으로 만들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수화도 엄밀히 말하면 언어의 일종이므로 한번 잘못 사용되면 바로잡기는 몇배나 어려움이 따를 것은 분명하다. 불교수화를 대중화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보다 올바른 불교수화를 먼저 정립하고 보급해야 하지 않을까. 불교전체를 대표하는 수화가 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통해 보완이 선결된 이후 보급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강자비화〈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불교아닌 사이비불교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내가 다니는 사찰 옆에는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국제도덕협회'라는, 겉으로는 불교 비슷한 종교단체가 있다. 이 단체에 대해 일반인들은 불교로 알고 있고 절에 다니는 불자들조차 불교단체인가 혼동하고 있다. 그 단체의 교리책을 보면 석가모니부처님의 법문은 삼천년간으로 되어있고 그후에 오시는 부처님으로 미륵부처님이 기재되어 있다. 육조스님의 법도 불교에 있지않고 자기네 종교에 있다는 등 터무니없는 글들로 불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부처님은 생멸을 초월한 법신이고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다는 경전의 말씀도 있는데 이 단체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교리를 앞세워 포교하고 있다. 이 말에 현혹되는 사람이 많은지 응장하고 화려한 몇개의 건물을 세워 교세를 확장해가고 있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때는 스님들의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저 모습이 부처님시대가 끝나가는 증거라 외쳐댔고 많은 불자들이 이 단체의 주장처럼 석가모니불 시대가 끝나는 줄 알고 이 단체로 몰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단체가 이렇게 억지주장으로 교세를 넓혀가는데도 불자들 누구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사찰 바로 옆에서 부처님시대가 끝나간다고 외쳐도 항의하지 않고 무관심한 불자들과 스님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또 교주 스스로 미륵임을 자처하는 대순진리회나 증산교 같은 종교의 교리책을 읽어보면 부처님을 형편없이 격하시켜 표현하고 있고 스님들을 비하시킴에도 이 종교들은 사월초파일에는 어찌된 셈인지 연등을 팔아 치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종교들은 전국적으로 신자수가 수십만을 헤아리고 불교가 아님에도 불교와 유사한 방편을 써 불자들을 혼란시키는데 불교신자들과 스님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 답답하다. 종단에서는 이러한 유사 단체들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그 심각한 폐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은주〈경남 진주시 옥봉동〉

동화사스님 고발 사태 수행자 본모습 아니다

대구불심을 상징하는 동화사 스님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고발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불자들은 안타까움과 더불어 우려의 시선을 감출 수가 없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로 불교의 위상이 추락할 대로 추락했고 사찰을 찾는 신도수가 급감하는 시점에서 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틈만 나면 강조하는 스님들이 이제 신도들을 향해 뭐라 설법할 것인가. 수행과 전법도생을 위해 입산한 스님들이 주지직과 같은 권력에 집착하는 것도 볼썽사납지만 같은 문중의 스님들을 매스컴을 동원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세속법에 의지해 서로를 고발하는 것은 수행자다운 참다운 모습이라 할 수 없다. 팔공사 동화사는 옛부터 많은 선지식들이 수행하던 선기 퍼런 곳이다. 이 동화사가 법향 그윽한 옛 면모를 회복할 수 있도록 스님들은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바란다.

한지호〈대구시 남구 대명동〉

간섭없는 선거

목탁소리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중앙신도회장 선거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여법하게 치뤄져야 하며, 총무원의 특정후보에 대한 지원이나 간섭은 일체 없을 것입니다."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자천 타천으로 신도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한 신도단체 회장과의 면담에서 밝힌 말이다. 하지만 중신회 선거의 중립을 천명한 고산스님 뜻과 달리 일부 종무원들이 특정 인사를 지지하고 사전선거 운동에 돌입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산스님과의 면담 후에도 총무원이 특정인을 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 후보 예상자는 주위의 적극적인 추천에도 불구하고 신도회장 선거 후보등록을 22일 현재 포기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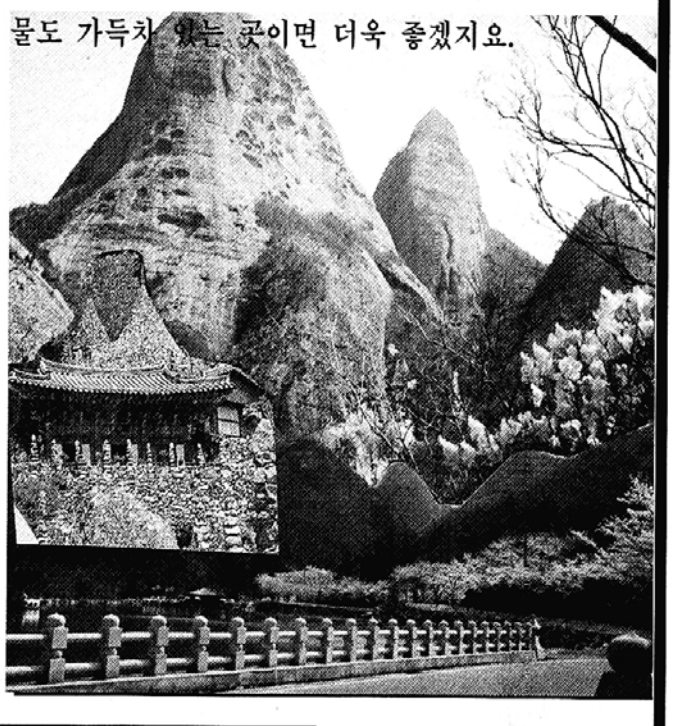
총무원장 스님이 모 인사를 추천만 했을 뿐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종무원들이 막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 나도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일부에서는 종무원들이 고산스님의 뜻을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종무원들의 생각은 재가불교운동의 중흥이란 나름의 사명감과 어른을 모시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아무리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정정당당히 선거를 치른다해도 다른 후보들이 결과에 승복하기란 쉽지않을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총무원이 공정한 게임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스님과 신도란 종적 관계가 보이지 않는 위축심리를 줄 것이 자명하고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타 후보들이 생각한다면 선거이후의 잡음과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97년 3월 당시 중앙신도회 초대 회장이 월주스님의 지명에 의해 선출돼 자율적인 신도회 건설에 실패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총무원의 철저한 중립을 통해 신도회의 자율적인 선거를 실현하는 길만이 불교 신도운동의 토대를 다지는 길임을 관계자들은 유념했으면 한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433-2900, 0303
(0655)432-0652, 0072

■약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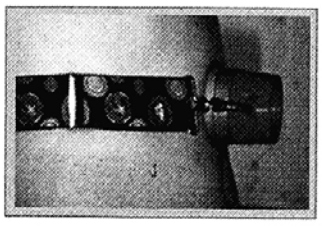
신 개 발 품
시·연·쑥·뜸·기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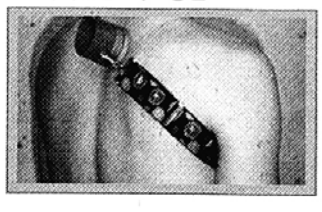
김시연스님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컨허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결림 치료장면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수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며 장래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태랑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종목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양면을 동시에 해결케 해준다고 하였다.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 혈 압	
견 비 통	신 경 통	저 혈 압	
간 장 병	당 뇨 병	요 통	
전 립 선	조 루 증	냉 증	
피 부 병	생 리 통	위 장 병	

♣몸 어느 한곳이라도 좋지 않은 분은 本社 제품 꼭한번 사용하세요.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점입니다.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쑥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2,000원)포함

옷주름없는 금동여래입상 한-중 불교미술교류사 '증거'

북경서 11월까지 '산동성출토 불교미술전' 열려

경주와 산동성 불상 제작양식 공통점 발견

우리나라에서는 양평·경주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옷주름 전혀없는 금동여래입상의 독특한 양식은 불교미술교류사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을까.

최근 중국 북경 중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산동성 출토 불교미술' 전을 관람하고 돌아온 경주국립박물관 강우방 관장은 지금껏 학계의 논쟁으로 남아있던 남조 불상의 전형적인 양식을 엿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 사르나트지방의 불상 양식이 한국등 동남아시아를 거쳐 이곳 산동성 청주에서 꽃피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주목된다.

7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1996년 산동성 청주 용흥사의 금당 뒤 가로 870cm 세로 680cm 깊이 350cm 정방형 구덩이에서 수습된 불상 조각 800여건을 3년간 보수, 이중 엄선된 불상 80점이 선보이고 있다.

석회암으로 제작된 이들 불상은 주로 북위 말기부터 동위 북제, 즉 530년부터 570년에 이르는 약 40년간에 제작된 것으로, 굴곡진 곡선이 돋보이는 불상과는 눈에 띄게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바로 얇은 옷을 주름 하나 없이 몸에 밀착시켜 여성적인 몸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강관장은 이러한 특징이 경기도 양평과 경북 경주에서 출토되는 금동여래입상, 백제의 동위 계열 남석제 불상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불상연구 분야에서 남조 불상의 양식은 최대의 쟁점이었지만, 현존하는 남조 불상이 없어 전혀 그 특징을 추론할 수 없었다. 강관장은 전시된 불상이 타지역 불상과 다른 점이 많고, 청주는 한때 남조에 속했던 곳이라며 이 불상군에서 남조 불상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관장은 중국 동남 연해 해상교통의 한 거점으로서 청주의 위치에 주목, 산등반도는 백제와 가장 가까운 거리로 신라방이 있었고 신라인이 세운 법화원이 있었던 지역인 만큼 인도에서 시작한 불상 특징이 한국을 비롯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이곳 청주에서 남조 불상 양식의 절정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불상연구 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옷주름 없는 불상' 즉, 양평·경주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입상 등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금동약사여래입상(7C). 다리의 굴곡이 뚜렷하고 옷주름은 극히 절제되었다.



◇ 산동성 출토 철금채회불 입상(550~577년). 옷주름 없는 불상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왈종씨의 '일상'.

1천 화가의 3천작품 감상

'아! 대한민국展'

갤러리상, 8월15일까지

운주사 전경, 삼매에 빠진 선승 등 불교를 소재로 한 미술 작품들이 새 천년을 준비하는 미술인들의 대화합의 장에 나투었다. (주)미술세계(대표이사 백용현)가 21세기를 앞두고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상에 마련한 '아! 대한민국' 전에 전시된 것.

중견작가 1천명이 참여, 3호 크기의 작품 3천여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유채·수채·아크릴·판화 등 다양한 장르에 담아낸 예술작품을 한 자리에서 조망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아! 대한민국' 전에 출품된 불교미술작품은 '운주사'(박구환), '불상과 종'(박인호), '삼매에 빠진 선승'(안태성), '산문'(이경희) 등 총 15점.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주)미술세계 백용현 대표이사는 "새로운 천년의 패러다임은 문화와 정신인 만큼 미술 속에 투영된 시대의 정신을 한 자리에서 보는 것 또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신라 천년문화 가상현실로 재현

KIST 영상미디어센터 황룡사 9층탑등 복원

70억 들여 내년 경주엑스포서 선보여

신라 천년의 숨결이 최첨단 가상현실로 되살아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 박호군) 영상미디어센터 김형곤 박사팀은 총 70억원을 들여 내년 9월 경주에서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 주제영상관에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법을 활용한 신라천년의 문화를 재현한다.

신라시대의 탄생설화, 화랑도, 이차돈의 순교, 처용, 원효, 혜초, 황룡사 9층탑, 석굴암, 안압지 등 삼국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최첨단으로 재탄생된다.

김박사팀이 개발한 주제영상관은 '서라벌의 숨결속으로'를 주제로 7백여명 이동시에 관람이 가능하고 가상현실 내용물을 임의로 고쳐볼 수 있는 가상현실컨텐츠와 스테레오 음향시스템 그리고 비주얼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인터렉션, 가로 24m, 세로 9m 크기의 초대형 라운드스크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사람의 몸에 데이터글로브, 특수헬멧 등 전용특수장비를 부착해 가상현실에 몰두하도록 몰입형시스템으로 구축, 서라운드 입체음향을 통해 봉덕사의 신종소리를 사실감있게 가상현실화면과 함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안동 신세동 7층전탑 보호하자"

하이텔 토론광장…"철도진동 때문에 훼손"

네티즌들이 토론광장을 개설, 국보 16호인 경북 안동 신세동 7층전탑 보호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하이텔 이용자 우재석씨는 13일부터 토론마당에 '국보 16호를 살립시다'라는 제목의 토론방을 개설하고 국보 16호가 중앙선 철도때문에 위기에 빠져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씨는 "일제가 1930년 중앙선 철도를 건설하면서 철길을 고의로 탑 인근으로 지나가게 했다"며 "7층탑이 69년간 진동에 시달려 무너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또 "탑에서 불과 3m 밖에 위치한 철도로 기차가 하루에도 수십번 지나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철로이설을 호소했다.

높이 16.5m의 전탑은 통일신라시대 때 조성됐으며 62년 12월 국보 16호로 지정됐다. 경북 안동시의 주산인 영남산 동쪽 기슭 옛 법흥사 터에 자리한 탑은 순토전(흙으로 구운벽돌)으로 만들어졌고 높이나 역사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전탑으로 인정 받고 있다. 당국이 95년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탑이 전체적으로 동북으로 기울고 분진 등에 의해 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13명의 재청을 받아 개설된 토론방에 참여한 한 이용자는 "국보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역사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종욱 기자

제1회 만해 청소년백일장

최양일군·박진선양 '대상'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고산·조계종 총무원장)가 주최한 제1회 만해청소년백일장에서 최양일(신남고 3년)군과 박진선(강릉여고 2년)양이 각각 시와 산문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만해 한용운스님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19일~20일 인제 백담사 만해수련원에서 열린 이번 만해 청소년백일장에는 강원도내 시·군 38개 고교 1백20여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가해 28명이 입선, 각각 상장과 장학금을 받았다.

청소년백일장에서는 이외에도 경희대 김재홍교수의 '만해 한용운스님의 사상과 문학정신'이란 주제의 문학강연을 비롯 '님의 침묵' 암송대회, 오세암 등정 등 만해스님의 문학혼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문

부지런한 그가 싫다.
내가 그 앞에 서있는 이유를
그는 모른채 마냥 움직인다.
그런 그가 싫다.
이젠

사람들은 자신 앞의 눈물을
꽃망울에 피어난 아침이슬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왔다.
물러나지 않는 그를 한손에 움켜짐으로
이겨왔기에
그 이슬은 꽃망울에 피었으리라.

이슬보다 눈물보다 나음을 알아서였을까.
한 손의 아픔은 상처난 얼굴에
천진스러움을 그려주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피워왔는데
이젠 한 손의 아픔으론 어려우리만큼
시들고 있다.
점점 말라가고 꺾여지고 있다.
밀고 당김의 고통을 힘들을 입지 않아도
그는 이유없이 까닭없이 움직인다.
나태한 사람들의 작품
부지런한 그
하지만 그는 왜 부지런해야만 하는지 모른다.
내가 그앞에 서있는 이유를 모른채 움직인다.
나태한 우리들의 작품.
우리들의 움직임을 빼앗은 그

이젠, 게으름의 문을 만들자
사람들의 손에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에 더할 수 없는
기쁨이란 약으로 덮어주리라.

최양일〈신남고 3학년〉



◇기타치며 불음포교 나선 도일스님.

도일스님 찬불가 음반 무상보시

통기타로 찬불가를 포교하는 도일스님(직지사 수성포교원 황룡사주지)이 찬불가와 법문을 담은 테이프를 15일 출시했다. 이번 음반에는 찬불가 '우리의 기도' '믿음' '뉘우치오니' '해탈의 기쁨' 등 찬불가 10여곡이 수록됐다. 도일스님은 "앉아서 기다리는 포교보다는 일반 불자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음성 포교를 하고 싶었다"고 를 밝혔다. 3천개가 제작된 이번 음반은 사찰과 신도들에게 무상으로 보시한다. (053)784-8620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전통 생활공예 모음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삶의 여유와 멋을 가꾸는-전통생활공예모음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통공예가 40명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전통생활공예품과 전통문화상품 400여점이 전시된다. (02)566-6313

문화 단신

해외 한국문학 심포지엄

한국문인협회는 제9회 해외 한국문학 심포지엄을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다. '한국문학과 남방문명의 만남'을 주제로 수필가 정목일씨가 '인도의 불교전래와 한국문학', 문학평론가 김영기씨가 '한국문학과 남방문명의 만남' 등을 발표한다.

제주청교련 합창단 창단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 부설 제주청소년합창단이 창단된다. 연합회는 지난 2일 창단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초대단장에 고윤권씨, 지휘자에 홍영희씨를 각각 선출했다. (064)725-0108

창작시대 전화 325-5355 팩스 325-5385

♠ 우리는 이 책을 읽고 꼭 행복해져야 합니다!

히말라야 '山中問答' 生과 死를 논하다!

승려와 철학자

부자간의 대화를 통한 동서양의 만남!
현대 철학자 5인 중의 한 명인 아버지와 생물학자이자 티베트 승려인 아들이 세계와 인류, 삶의 의미에 관한 열흘간의 지적 성찰을 통해 우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이 책은 순전히 우연한 기회에, 아니 굳이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이런 책이 출간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 나오게 되었다
— 프랑스 「날」 편집부 —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 · 교보문고 인문 베스트셀러 1위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르벨 · matieu 리카르 지음/ 이용철 옮김/ 양장본 값 12,000원

뉴욕타임스, 더타임스, 르몽드 등 이 책에 쏟아진 세계언론들의 찬사!

저자인 두 사람도 이 책의 성공에 깜짝 놀랐다. 철학이 소르본느 대학의 강의실이 아닌 공항의 대합실에서도 쉽게 읽히게 되었다 —더타임스

이 책에 수록된 대화가 난해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대화를 나누는 주인공이 보여주는 진지함과 지적 깊이 때문일 것이다 —뉴욕타임스

공부하고 깊이 있는 지적 대화로 이루어진 이 책은 커다란 대중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르몽드

철학자인 아버지와 승려인 아들이 만났다. 두사람은 「승려와 철학자」라는 부자간의 대화록을 출간,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조선일보

아들의 대화가 더욱 가치 있는 점은 둘 다 최고 수준의 서양 과학문명을 공부한 학자라는 점이들의 대화는 불교뿐만 아니라 철학, 정치학, 윤리학, 심리학 등 인류 정신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 탐구로 이어진다 —동아일보

이 책은 현대인의 삶과 사회를 되짚어보고, 그 병리와 대안을 생각하는 데도 유효한 계기를 마련한다 깊이 있는 지적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어렵지 않게 읽힌다 —문화일보

초베스트셀러가 된 책,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내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이책의 가치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전미 베스트 1위, 일 년 만에 600만부 돌파!
일본 베스트 1위, 6개월 만에 200만부 돌파!
한국 서점연합회 비소설 베스트셀러 1위!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왜, 맨날 이 모양이지?
허구한날 푸념만 할뿐,
아무것도 달라지지않는 인생을 위하여
비비 꼬인 인생의 매듭을 확실히 풀어줍니다.
아주 쉽고도 편안한 실천 방법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리처드 칼슨 지음
정영문 옮김/ 값 7,500원

원효스님 중생사랑 현장서 확인

장휘옥교수 '자 떠나자 원효 찾으러'

생애와 사상등 무거운 주제 여행하며 대화하며 공부 기행문 형식의 원효연구사



고승들의 행적과 사상을 쉽게 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신간 〈자 떠나자 원효 찾으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모델이다. 장휘옥교수는 '대화여행'으로 원효스님 전기 읽기를 새롭게 시도했다. 원효스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저자 장교수와 원효스님에 대해 무지한 친구가 원효스님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작가의 표현대로 '원효스님의 껍데기만 훑고 있는 범주에서 벗어나' 원효, 그의 생애와 사상이란 화두를 들고, 독자들은 이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원효스님의 생애에 질문을 던지게 된다.

원효스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원효스님 유적지들이 어디 어디인지, 태어난 곳은 어디인지, 왜 출가했는지, 요석공주 때문에 파계했다던데 그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원효의 사상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없는지…. 그러면 불교학자인 장교수는 가끔씩 친구의 무식을 놀려대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자상하게 대답을 해준다. 원효스님의 생애와 사상, 무엇하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친구와 손잡고 떠난 여행속에서 무거운 주제들을 생활속의 잡담, 수다와 같이 풀어내고 있는 저자 특유의 필치가 돋보인다.

이 책은 단순히 쉽고 재미있게 읽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대화체의 문장을 통해 원효스님에 대한 여러가지 사료와 학자들의 논문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 수정하며 역사속으로 끝없이 파고든다. 이미 알려진 사실만을 재미있게 구성한 것은 아니다. 원효스님에 관한 최신의 연구결과와 논쟁이 책의 가치를 더해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원효스님 당나라 유학설과 깨달음에 대한 부분이다. 저자는 유학설에 대해서 〈송고승전〉과 〈삼국유사〉에 수록된 네가지 기록들을 비교분석하여 유학을 시도한 것은 한차례뿐이라고 친구에게 설명한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한 2차 유학 시도는 역사의 미스테리로 남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인다. 깨달음에 대해서는 〈종경록〉 〈송고승전〉 〈임간록〉 등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 검토하면서 깨달음의 장소가 무덤이었다는 것은 일치하지만 계기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송고승전〉에는 해골이 나뭉구는 고분속임을 알았을 때로, 〈종경록〉과 〈임간록〉에는 샘물인 줄만 알고 마셨던 물은 달고 시원했으나 그 물이 해골에 고여 있던 물임을 본 다음 역겨움을 경험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저술연대가 제일 빠른 〈종경록〉에 가장 신빙성을 두고 있지만, 설화적인 색채가 배어있기 때문에 어느것이 옳고 그름을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맺는다. 이밖에도 이 책에서는 원효스님의 수많은 경론과 주석서를 인용하면서 행적·사상·업적 등을 낱낱히 파헤치고 있다.

원효스님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을 다년간 연구한 불교학자의 연구 성과가 대화속에서 하나씩 정리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기행문 형식으로 쓴 원효연구사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 친구인 지영이 엄마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원효스님은 중생을 얼마나 사랑했나'를 원효스님의 저술 〈무량수경종요〉를 통해 학승이 아니라 무애자재한 실천행으로서 스님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딸아이의 청바지를 빌려 입고 들뜬 마음으로 잠을 설치고 〈삼국유사〉를 뒤적이며 원효스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는 친구의 공부는 여행속의 체험들과 어우러져 독자들의 궁금증을 충족시켜 준다. 또 여행중에 찍어온 사진들을 모아 감상과 에피소드들을 적어 넣은 것들은 마치 여행뒤 앨범을 뒤적이듯 솔솔한 재미도 느낀다.

원효스님의 유적지를 직접 찾아 다니며 친구와 나눈 대화로 구성된 〈자 떠나자…〉는 원효스님의 사상을 물론 숨결까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가 된다. 〈시공사 刊, 값 7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구절마다 바른 삶의 행로 제시

법구경 한명숙 옮김



인간 삶의 바른 행로를 가르치는 영원한 불교성전 〈법구경〉. 불교에서는 '들음(聞)'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들음이란 내가 접한 사물이나 글귀가 그것을 전하는 이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실 그대로의 목소리로 생생히 전해져 오는 것을 말한다. 한명숙씨(가산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가 팔리어본을 옮긴 신간 〈법구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다보면 마음속에 인간 삶의 바른 행로를 전하고자 하는 성현의 말씀이 사무치게 들려올 것이다.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법구경〉이 불자들에게 가장 널리 읽혀 온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홍익 刊, 값1만1천원〉

화제의 책

산사에서 '나'를 돌아보고 오자

산따라 절따라 박건태 지음



산사 순례기. 우리나라 곳곳에 산재한 산사를 찾아 그 유래와 정신을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 시가 있는 풍경을 노래한 용화사, 관음사 도솔암, 가을 설악의 신흥사 등 각 사찰들의 특성을 살린 저자 특유의 문학적 향취를 느끼게 한다.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안에서 그저 한 번 보고 지나치는 산사는 아니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반추를 해 볼 수 있는 산사들이다. 이 책은 우리 산사 곳곳에 대한 회한이 넘친다. 저자 박건태씨의 유년시절에 대한 회상과 〈화엄경〉에 대한 논문도 간략하게 게재돼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이 품안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한다.〈한국불교연구원 刊, 값 8천5백원〉

새로나온 책



▲화엄법계의 소 울음 소리를 들었느냐= 사람들은 불심이 절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상상하고 무거운 경전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불성은 산에 있는 것도 아니요, 불경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다. 그 일상생활속에서 얼마든지 불성을 찾을 수 있다. 불심과 불성은 절이나 경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속에 있음을 강조한 만용스님(삼봉정사 주지)의 명상록. 〈빛샘 刊, 7천원〉



▲다시 보는 명심보감=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농축된 책. 자녀교육문제, 고부간·부부간 불화, 직장문제 등 신도들의 고민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없을까. 주위의 조언을 구하고 수많은 서적을 뒤적이다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명심보감〉을 선택하고 생활지혜를 바탕으로 새롭게 엮었다. 이 책은 왜 선하게 살아야 하며, 배움을 계속해야 하는가를 조목조목 쉽게 가르쳐 준다. 허정스님 엮음〈금산 刊, 값 7천원〉



▲영가천도= 방황하는 영가를 올바르게 천도하여 주변을 다스리고 복을 쌓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죽음뒤의 세상' '영가가 깃드는 사람' '영가천도의 기본자세' '여러가지 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와 무주고혼 천도' 등 모두 6장으로 구성. 영가천도는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의 근본가르침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편으로서 중요한 수행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룡스님 지음 〈효림 刊, 값3천5백원〉



▲방생공덕감로보우= 도휘스님(연등사 주지)이 테베트 져맺편촉 법왕을 만나 '방생공덕이 무량하다'는 설법을 듣고 정리한 책. '뭇 생명을 살리는 공덕이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공덕이다.' '뭇 생명을 죽임은 내 생명의 죽음이다' 등 방생의 공덕과 살생의 과실을 대비하여 방생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다. 또 방생이 현대에 고통받고 핍박받은 중생을 위함 것임도 강조한다.〈부다가야 刊, 값 4천원〉

바위서 문화의 뿌리 찾는다

노승대씨 '바위로 배우는 우리문화'

입산(入山). 선조들은 산에 오른다는 말 대신에 산에 든다(入山)는 말을 애용했다. 산은 엄숙하고 숭고한 기도처로써 신성한 품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영산을 들어갈 때는 대·소변 그릇을 가져가기도 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던 간에 기도처로서 산을 꼽는다. 명산대찰과 작은 암자가 산에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반증해주고 있다.

노승대씨가 10여년간 전국의 산을 찾아 쓴 신간 〈바위로 배우는 우리문화〉는 산속에 있는 바위들이 우리문화의 한 부분임을 탐색한 책. 사찰·봉우리·산의 바위문화가 각각 수록된 이 책에는 전국의 산에 남겨진 미륵바위, 선바위, 거북바위, 알터 등을 추적하여 전통신앙과 문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바위들이 불교나 민속에 끼친 영향들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무한 刊, 값 1만5천원〉



◇영암 월출산 해발 600m의 바위에 새겨진 마애불.

"내 영혼의 어머니는 불교"

최인호 수상록 '…스님이 되고싶다'



나는 아직도 스님이 되고 싶다

가톨릭 신자인 중견작가 최인호씨(54)가 불교 수상록 〈나는 아직도 스님이 되고 싶다〉를 내놓았다. 3부로 이루어진 수상록을 통해 생활속에서 마주친 불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가톨릭문학상을 수상했던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5년 여간 절을 찾아다니며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 정신의 아버지가 가톨릭이라면 내 영혼의 어머니는 불교이다"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다. '불교적 가톨릭 신자'라고 털어놓은 그는 경허스님의 행장을 소설로 옮기기 위해 청계사, 수덕사 등을 답사하고 다닐 무렵 정말 스님이 되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가톨릭 신자인 그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경허스님 법어집 가운데 '일 없음이 오히려 할 일이거늘(無事爲成事)'이라는 문구다.

그는 "이 한구절을 통해 한국 근대불교의 큰스님 경허라는 두레박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두레박을 타고 불교의 깊은 우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우리민족의 성격을 형성시킨 불교의 정신이 우리민족의 영혼임을 깨달았다는 그는 불자들에게 대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불교인들이 뿌족이 깎은 연필의 촉처럼 정신의 촉이 날카로워지기를 바란다."

〈여백 刊, 값 7천원〉

티벳관련 책 출간 '봇물'

최근들어 티베트인들의 삶 속에 스며있는 불교적 세계관과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 책들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소설가 김영종씨가 펴낸 〈티벳에서 온 편지〉(사계절 刊)는 현대문명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티베트 라사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여행하면서 자연과 성 문명에 대한 생각들을 적었다.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강연내용을 담은 〈테베트의 성자와 보낸 3일〉(솔 刊), 라마 소파린포체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고변화 수행법'에 대한 설법집 〈티베드에서 온 행복의 열쇠〉(정우사 刊), 소걀 린포체가 바라본 삶과 죽음의 철학인 〈티베트의 지혜〉(민음사 刊),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수행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초겔스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여시아문 刊) 등이 대표적 티베트 관련 불서이다.

이밖에도 〈티베트 방랑기〉(한양 刊), 〈티벳 사자의 서〉(정신세계사 刊),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녹색평론사 刊), 〈모둑〉(학고재 刊) 등이 나와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창작시대
2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3	티베트에서 온…	주 민 황	정 우 사
4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5	육바라밀 수행법	김 현 준	효 림
6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불교다라니
7	길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정 찬 주	해들누리
8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9	예불문과 반야심경	무 비	불 일
10	역주 수능엄경	일 귀	불 일

구입문의:(02)737-0695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160면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백중·49재 법보시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원하시는 책이 있으시면 본사로 연락주십시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동선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월간 『법공양』을 보셨습니까?



월간 『법공양』은 불자들의 바른 신행생활을 위해 매월 1회 발간하는 64쪽의 조그마한 잡지입니다.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우어 주는 큰스님들의 비중있는 법문과 신행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김현준 원장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년 구독회비는 1만원이며 법보시를 원하는 분을 운영위원으로도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월간 『법공양』을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이 한 권의 잡지가 틀림없이 신행생활의 기초를 다져주고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회원가입 및 문의 : ☎ (02) 587~6613

불교신행연구원

"중국 보타산 불긍거 관음전 일본인 아닌 신라상인 조성"

조영록교수 '선화봉사고려도경' 기록 근거 주장


◇조영록교수

중국 보타산 조음동 불긍거 관음전의 개기(開基)는 일본 혜악선사에 의해서가 아닌 신라상인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여태까지 일본·중국 학계에서는 〈불조통기〉 등의 자료를 근거로 일본 혜악선사가 보타산 불긍거 관음전의 터를 잡았다는 설을 정설로 인정해왔다. 이에 대해 조영록 교수(동국대·사진)는 〈선화봉사고려도경〉의 보타산 조음동 불긍거 관음전이 신라상인에 의하여 조성됐다는 기록에 근거, 이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7월8일~9일 중국 보타산과 절강대 한국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뗏목 동아지중해호 황해탐사(대장 윤명철) 성공 2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중 해상교류와 불교문화'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친 조 교수는 "1123년에 사절단의 일원으로 고려에 다녀간 서긍의 〈고려도경〉은 그들이 명주에서 출항하여 보타산을 거쳐 고려에 체재한 후 귀국해 그 견문한 바를 일기체로 쓴 견문기이다. 이는 1269년 지반이 지은 〈불조통기〉보다 1세기 전에 쓰여진 것으로 더 신빙성 있다"고 지적했다.

〈불조통기〉에는 일본의 혜악선사가 오대산에서 모셔온 관음상이 좌초하자 해변에 초옥을 지어 관음상을 모셨다며, 조공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건너지 못함이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에 비해 〈고려도경〉에 의하면 신라상인들이 오대산에 갔다가 관음상을 조각하여 싣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다로 나아갔으나 암초에 걸려 배가 나아가지 않아 보타산에 있는 보타원에 관음상을 모셨다고 나온다. 지금도 보타산 앞바다에는 그 배가 좌초했다는 신라초(新羅礁)가 있다. 조 교수는 바로 이부분에 의거해 보타산 관음도량의 시원은 신라상인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중국 절강일보와 주산일보 등이 1면에 대서특필 하는등 현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기도 해 중국의 불교계와 학계에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밖에 최현식 법사(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가 '신라 범일선사의 낙산사 중창과 그 의미'를, 박옥걸 교수(아주대)가 '10~12세기 한·중간의 인적교류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이번 학회에서는 보타산 불긍거 관음전(사진)과 낙산사 홍련암에 대한 유사성 비교도 논의됐다.

"문아대사 업적 원효에 버금"

고영섭씨 주장

동아시아 신구유식학의 총섭자라 평가받는 서명 문아(西明 文雅)대사. 원측으로 더 많이 알려진 문아대사는 우리 역사의 주류에서 잊혀졌던 인물이다. 이러한 문아대사를 새롭게 조명한 책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불교영상이 펴낸 〈문아대사〉를 집필한 고영섭 강사(동국대)는 "역사 속에 남긴 문아대사의 업적은 원효와 의상에 결코 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국인 신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아는 우리 역사 속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오지 못했다"며 "문아의 정체성과 인식틀을 명료히 밝힘으로써 그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평가를 이끌어내려고 했다"고 밝혔다.

문아대사는 7세기 동아시아의 대표적 학통이었던 자은학통의 주요담론인 오성각변설(살아있는 것들은 이미 다섯 가지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주장)을 한 방편으로 이해하고 모든 것에는 불성이 내재해 있어 끝내는 성불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래의 주요 담론이었던 구유식의 9식설을 취하지 않고 신유식의 8식설을 취함으로써 제9아마라식을 제8아뢰야식의 청정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등 독창적인 불교 이해의 지평을 열었다. 특히 이 책은 유식학의 대표적 교관이었던 3시설을 단지 설하는 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조화와 통일의 입장에서 불성을 이해했던 문아대사의 독특한 해석방식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도선스님은 선승이다"

민족사 학술총서 '도선연구' 나와
국내학자 9명의 논문 묶어

미국 칼럼비아대학에서 최유청(崔惟淸)의 '백계산옥룡사증시선각국사비명(白鷄山玉龍寺贈諡先覺國師碑銘)이 〈한국문명자료집〉으로 나오는 등 도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학자 9명의 발표 논문을 수록한 〈도선연구〉(민족사 刊)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은 '선각국사 도선 연구'에서 도선에 관한 비문이나 풍수설의 다양한 자료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때 도선 관계 자료 모두가 성립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유청의 도선국사 비문은 선승으로서의 도선이 선법을 전하는 기록이라기보다 고려왕실과의 인연관계 및 고려왕국의 정당성을 선승이자 풍수지리의 대가인 도선국사의 존재와 권위를 빌려 입증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찬술로 평가했다.

도선이라는 인물이 전설 속에서 어떻게 변이하고 있는지를 모색한 '도선전설의 변이와 형성'에서 이준곤 교수(목포해양대)는 "도선의 출생을 식자층에서는 고귀한 혈통으로 보려 하였고 순수한 구전계층의 서민들은 미천한 출신으로 보려했다. 행적은 입당 산세자르기 방아찧기의 삽화로 나누어 변이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구비자료에서는 중국과 우리가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으나 문헌자료에서는 우리가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는 변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사문 도선상 소묘-김지견 △도선국사 비보사탑설의 연구-양은용 교수(원광대) △도선실록과 도선의 오해-김정호 관장(전남 영산호관광 농업박물관) 등 9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학술재단 지원 불교학술지 4개뿐

8월25일 신청마감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해마다 독립 학회 및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평가해 지원하는 발간비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불교관련 학술지는 단 4개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발간비를 지원받는 학회 가운데 겨우 3%에 불과한 수치이다. 지난해 신청해 올해 학술지 발간비용을 지원받은 학회는 모두 162개. 이가운데 불교관련 학회는 국제선무학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종교학회 등 4곳에 불과해 불교학계의 관심도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열악한 불교학계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는 8월25일까지 신청을 마감하는데 신청상한액은 1천2백만원. 국내에서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로 재단의 '학술지 평가'를 신청한 학회면 자격이 부여된다.

'한국선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출간



지난해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개최된 무차선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16편을 수록한 〈한국선 국제학술대회 논문집〉이 최근 출간됐다.

특히 논문 외에도 논평문과 토론을 녹취해 기록하는 등 무차선회를 지면으로 옮겨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논문집에는 '동북아시아의 조사선 전통' '여러불교사상 전통 하에서 본 불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 '한국 선불교 전통에서 본 불교적 깨우침에 대한 이해' '선불교의 현대적 의미' 등이 수록돼 있다. 또 서옹스님 법어 2편을 비롯해 혜암·진제스님과 김대중 대통령 축하메시지도 담겨져 있다. 비백교학연구소 측은 "조사선에 대한 연구 토대 마련을 위해 논문집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술단신

'선종의 언어'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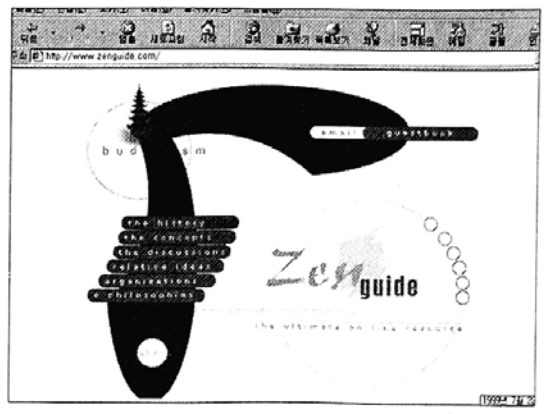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묵정배)은 8월19일 오후2시 개선 백련불교아카데미 '선종의 언어'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박영록 교수(충주대)가 '선어록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송인성 교수(영산대)가 '선어록 언어 연구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미술사 논단' 8호 나와

한국미술연구소(소장 홍선표) 최근 펴낸 〈미술사논단〉 제8호는 '서예이론과 창작의 전통'을 특집으로 다뤘다.

특히 조송식 강사(중앙대)의 '종병의 불교사상과 그의 〈화산수서〉에 나타난 와유론'은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에 살았던 종병(宗炳)의 불교관과 자연·예술관을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밖에 '서예가 지닌 대우주적 가치의 소우주적인 근원-인체' '법서의 복본과 위작' '안평대군 소장 중국서화' '미술사학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이 수록됐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선 가이드

교리·수행·선불교영상등 정보제공
梵·英 불경어휘 전자 사전 서비스

인터넷에 조금이라도 친숙한 불자라면 담연히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데에 관심이 갈 것이다. 또 그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앙, 즉 불교의 교리와 수행을 소개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불자 네티즌이 있다면 '선 안내(Zen Guide)' 사이트를 방문해 봄직하다.

'선 안내' 사이트는 미국인 불자 파이버(42)씨가 개설한 개인 홈페이지로, '교리' '수행' '불교사' '불교철학' 등 다양한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불자가 제공하는 정보이지만 깊이 있고 회소성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의 디자인, 정보구성, 링크 등은 개인홈페이지 개설을 꿈꾸는 불자 네티즌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줄 것이다.

묵향을 풍기는 커다란 아이콘과 원융을 뜻하는 등근 원으로 구성된 이 사이트의 메인(Main) 페이지 메뉴 색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곳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 즉 '불교사' '불교교리' '토론방' '조직' '불교철학' '선(禪)비디오' 등을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선 비디오'에서는 '명상과 무소유'(알란 와츠), '선불교'(다이도 로리) 등을 비롯 6종의 선불교 관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폭넓은 정보를 원하는 불자 네티즌을 위해 '선불교비디오(Zen Video)' 사이트와 연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불교교리'에서는 범·영 '불경어휘전자사전'을 제공한다. 알파벳으로 구분된 이 전자사전에는 범어를 영어로 음역하고 뜻을 설명해 놓은 500개의 용어들이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파이버씨가 입력해 놓은 〈금강경〉 원문을 읽을 때, 각 낱말을 '불경어휘전자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링크되어 있다. 〈금강경〉도 읽고 어휘도 공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환경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브리태니커〉, 〈웹스터〉, 〈통맨〉 등의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불교어휘를 일목요연하게 정의해 놓고 있다.

'불교와 철학'에서는 영국의 존 스네링 박사가 발간한 〈불교편람〉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각과 탈교리'를 비롯해 포용력, 불교의 자유탐구, 수행법, 수계 등을 요약해 놓고 있다. 또 서방불교교우회 회장 상가라시타가 불교와 부처, 수행관, 불교와 죽음 등을 주제로 쓴 글과 플로리다 대학 제랄드 그로운 교수가 쓴 사성제와 팔정도, 참선, 부처님 일생, 증도, 사성제, 지혜, 도덕 등을 요약해 놓고, 이들 정의를 토대로 파이버 자신이 생각하는 '불교의 세계관'을 피력해 놓았다. 이외에도 파이버씨는 콜게이트대학 빅터 맨스필드 교수의 '대승불교와 현대 문리학의 시간관'을 비롯해 부처님이 인도 바라나시에서 설교했던 고, 죽음, 윤회 등의 개념도 정리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사이트 주소 http://www.zenguide.com/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투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제 기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분별지 아닌 지혜의 이론

경전 속의 禪 사상 28

대승기신론 ㊦

선 · 화엄 · 천태 · 정토등 대승불교 상술
독보적 논서…저자 · 역자 이견 많아

글쓴이

박 태 원
〈울산대 교수〉

깨달음, 해탈, 열반! 이런 저런 아픔으로 깊게 주름 패인 영혼들에게는 실로 가슴 설레는 말들이다. 구구 절절 사연 많은 그 숱한 고뇌들로부터 말끔하게 벗어난 자유를 한번쯤이라도 꿈꾸어 본 사람이라면 솔깃할 수밖에 없는 강렬한 매력의 언어들이다. 그리하여 불자들은 선문(禪門)을 두드린다. 상상으로나 품어보던 희망의 언어를 지금 이곳의 삶에서 체현하기 위해.

그런데 종교적 언어로 그려보는 희망의 세계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 세심하게 따져보는 이들은 의외로 드물다. 깨달음이니 구원이니 하는 언어에 자신의 희원을 뭉뚱그려 투사할 뿐, 정작 그 언어로 그려보는 경지나 세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 없이 건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매혹적인 희망의 언어들에 빠져 들다보면, 비록 진지하고도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혹 엉뚱한 결과나 후유증을 초래하기도 한다.

사후에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확신하여 지상의 온갖 부귀영화와 시비다툼에 초연한 듯 살아가는 진지한 종교인은 과연 '구원'이니 '천국'이니 하는 언어로써 어떤 세상을 그리고 있을까? 혹 현세의 삶에서는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인간 관계나 부귀영화의 욕구를 천국에서의 삶에다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성스러운 언어로 포장된 그의 종교적 희망은 사실상 지극히 세속적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탐욕과 집착의 연장에 불과하다.

깨달음이란 언어 주변에도 혹 이런 사정들이 알게 모르게 얽혀 있다면 참선의 여정은 애초부터 간과할 수 없는 후유증을 잉태하게 된다. 도대체 우리는 깨달음이란 말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대장부 일대사라며 의기양양한 것도 좋지만 항상 이 점을 깊이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어차피 깨달음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전에는 제아무리 깊은 성찰로도 깨달음의 경지를 온전하게 그려낼 수 없는 일이지만, 목표에 대한 정확한 조준 역시 필수적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언어(敎)를 주목하게 된다. 적절하고 적합한 언어는 목표로 정확하게 안내하는 필수불가결한 가이드이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깨달음의 뜨락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일순간 열어 제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언어 결핍과 과잉의 후유증을 넘어선, 깨달음과 언어의 하나됨은 언어의 속성을 철저히 간파한 이후에야 가능하다. 대승기신론의 언어가 빛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6세기 중반 이후 중국에 등장한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모든 내용을 정교하게 압축하고 있는 불교이론서로 평가받으며 선 · 화엄 · 천태 · 정토사상의 형성과 전개에 깊이 관여하면서 논서로서는 단연 독보적 지위를 누린다. 저자를 마명(馬鳴)으로 하여 진제(眞諦, 499-569)와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의 한역본 두 가지가 전하지만, 원본인 산스크리트본(本)이나 티벳본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저자나 역자 등을 둘러싸고 이견들이 많다. 특히 기신론이 중국에서 중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어 그에 대한 찬반론이 분분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 사상내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적어도 인도불교의 사상적 맥락에서 성립하였으며, 순전히 중국불교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인들에 의해 찬술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추정이라 할 수 있다.

기신론이 논서라고 해서 요즘 학문이 양산하고 있는 이론서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몸(수행)과 머리(지식)가 분리된 채 머리로만 작업해낸 오늘의 메마른 이론들과는 달리, 수행과 이론이 하나가 되어 형성된 영성 넘쳐나는 지혜의 이론이 기신론이다. 극도로 예리하지만 자기 분열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분별지의 상상물이 아니라, 기신론이 설하는 진여삼매(眞如三昧)의 몸에서 발하는 지혜의 언어적 표현이 기신론이다. 그렇다면 기신론은 깨달음이라는 목표 조준에 어떤 언어로써 기여하고 있을까? 다음 번에 기신론 삼세육추(三細六麤)의 이론에서 그 한 해답을 음미해 보기로 한다.

태국 내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⑨

진리의 향기 ①

어느날 부처님이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이던 다가자누라의 질문을 받았다. "저희는 세 속의 즐거움을 누리는 속인입니다 … 비록 이런 형편의 우리들이지만 이생 동안 행복으로 이끌어줄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다가자누여! 이 생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무엇인가 줄기찬 노력, 주변을 잘 보살핌, 좋은 친구와 사귐, 분수에 맞는 생활, 이 넷의 구족(具足)이 그것이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세속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을 딱 잘라 양분해서는 안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직업이라 해서 반드시 생계수단에 그쳐야 할 이유는 없고 정신적 발전의 수단도 될 수 있어야 한다. 사무원이든 사업가든, 주부이든 의사든, 농부든, 판사든 간에 바로 그 직업을 정신적 자질을 계발하는 수단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하는 행위이다. 규칙적인 명상은 내면의 고요와 평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과 판별력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인생은 정말로 경이로운 경험으로 가득찬 멋진 모험 길이 된다. 왜냐하면 일상 생활에서 부딪쳐야 하는 갖가지 갈래 길에 당황하지 않고 이를 태연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만히 서 있으며, 잠시동안 눈을 감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일터를 마음 속에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인식하고 느껴보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보다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등 두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일터에는 깨달은 보살의 선물 꾸러미가 숨겨져 있다. 우리가 이 꾸러미에 한 걸음씩 다가설 수록 보다 의식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일은 정신계발의 수단

"일터에서 평화와 조화를 계속 찾자"

만약 부처님이 왜 선물을 남겼는지 다소간의 설명이 필요하다면 메모를 읽으면 된다. 여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두 세 마디의 경구들이 적혀 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내 일터에서 평화와 조화를 계속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일하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내 일 속에서 불법, 진리를 찾기 시작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들에 대해 마음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일터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사랑, 보살핌, 다정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잭 케로악의 어느 산문중에서 다음 구절은 한 번쯤 곱씹게 하는 사상이 담겨있다. "제나로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한다. 왜소한 그이지만 거대한 대지조차 안고 싶어 한다. 이것은 제나로의 삶이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지,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그가 어떻게 평온할 수 있는가의 합당한 해답이 된다. 그러나 그의 사랑이라는 열정에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녹아있다. 그는 슬픔도 넉넉히 놓아버릴 수 있다. 그런 그에게 자연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 정신에 자유를 준다. 집착하지 않고 사랑할 때, 타인의 슬픔도 놓아줄 수 있다."

현명함은 명상 수행을 통해 갖추어지는 마음의 성숙이다. 그러므로 명상 수행은 재가생활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해 주는 것이며 명상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재가생활 역시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명상 수행은 어디까지나 자기 변혁을 이루어 내는 자기 계발의 방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대단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자기 계발은 매우 특이한 들과 작업을 완수해 내므로, 그것은 지성의 겉껍질을 돌파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혜의 빛 앞에 활짝 열리도록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지혜의 빛이 흘러들어와야만 우리의 인격은 비로소 향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끝없이 성난 파도가 밀려드는 이 세상에서 든든한 마음의 방파제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있을까.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 학 산 책

우연의 일치

이번 호에서는 너무나 비일상적이며 심리적 의미 또한 있어 단순히 우연만의 결과라고 볼 수 없는 우연의 일치를 지칭하는 싱크로너서티(synchronicity, 동시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 싱크로너서티에 관한 연구는 융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며 조화원리(배타성원리)의 발견자로 잘 알려진 파울리의 공동 저작에 의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싱크로너서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둘 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건들과 명백한 관계가 있냐 없냐에 의해 구별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차이는 명확하지 않다.

첫 번째 종류는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경험에서부터 '신기한'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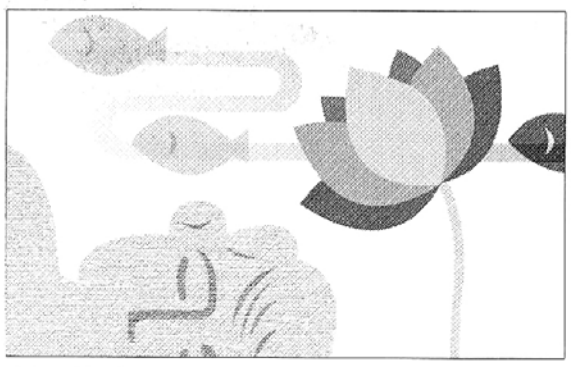
책에서 어떤 부분을 찾고자 마음먹고 책을 펼쳤는데 찾고자 하는 바로 그 부분이 펼쳐진 경우, 친구가 마음속에 떠올라 전화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데 바로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 여러분도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경험을 하면서도 여러분은 단지 기분 좋은 우연의 일치로만 생각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더욱 믿어지지 않는 예도 있다. 영화 때문에 다시 유명해진 타이타닉호의 비극과 관련 있는 싱크로너서티 예가 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날 영국의 한 신문의 글자 맞추기 퀴즈의 정답이 우연히도 상륙작전의 암호명들이었다. 놀란 군인들이 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을 추궁했으나 이 선생님은 왜 그런 단어들이 떠올랐는지를 알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마음에 떠오른 사람 전화 걸어오고
타이타닉호 소설 내용처럼 침몰

"동시성 현상 우연 아니다" 융 주장

1898년 모건 로버트슨이라는 소설가는 타이타닉호라는 배를 소재로 소설을 썼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고 여겨진 이 배가 대서양 처녀 항해 때 빙산에 부딪쳐 침몰한다는 줄거리이다. 또한 충분한 구명정을 마련하지 않아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실제로 그런 이름의 배가 그런 이유로 참사를 당했다. 또 융 자신의 임상경험이다. 융은 너무나 이성적인 여성을 치료하게 되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느 날 환자는 풍뎅이가 나오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융은 이집트 신화에서 풍뎅이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여성의 무의식적인 마음이 그녀가 일종의 심리적인 다시태어남을 겪으려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융이 이를 막 말하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고 융은 유리창 바깥에 있는 풍뎅이를 보았다. 그 때가 융의 창문에 풍뎅이가 나타난 유일한 때이다. 융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면서 창문을 열어 풍뎅이가 날아들어올 수 있게 했다. 이 여성은 너무나 어리벙벙해져서 그녀의 지나친 합리적 견해를 누그러뜨렸고 그 이후로 치료 효과가 향상되었다. 융은 자신의 심리치료 동안에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많이 만났으며 이들이 거의 항상 정서적으로 격렬한 시기와 정서적 변화의 시기를 수반하며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믿음의 기본적인 변화, 혹은 갑작스럽고 새로운 통찰력이 생긴다든지, 죽음, 탄생, 심지어 직업의 변화가 있는 시기 말이다. 융은 또한 그러한 새로운 깨달음 혹은 통찰이 환자의 의식의 표면에 막 등장하려는 때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경향이 있음도 알아냈다.

융은 이런 싱크로노서티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개인들의 심리작용과 연관되어있다고 주장한다. 아직까지 논쟁도 많고 연구가 더 깊이 돼야겠지만 무의식의 드러나지 않은 요소가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넘어 물질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이제는 집에서도 온 가족이 손쉽게 법회를!

가정법회

모든 불자들을 위한 가정법회 안내서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5계 수지문 낭독 ·
찬불가 · 성구 및 해설 · 발원문 · 사홍서원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아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성구와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해설,
축원이나 감사는 물론 각종 행사나 절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발원문,
온 가족이 날짜나 요일을 정해놓고 혹은 특별한 날에 가정법회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불자가정은 물론 삶의 지혜와 교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학종 편저/신국판/350쪽/값 10,000원

중국과 대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선학총서 첫 번째 권

불교와 유학

불교와 유교, 동아시아 사상계의 가장 큰 충돌,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와 불교화된 유교!



불교와 유학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상호간의 투쟁, 배척, 흡수, 융합
등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양자의 관계를
정확한 관점과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이 갖는
각각의 특징,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 유학이 미친 영향,
역으로 중국의 유학에 불교가 끼친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의 결과 및 의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賴永海 저 · 김진무 역/신국판/363쪽/값 12,000원

알기쉬운

한문해석법

현대 한문해석법의 완성과 반야심경에 대한
최초의 문법적 분석



불교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 책은 한문의 기초부터 한시는 물론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이다. 특히 반야심경을 현대의
한문해석법에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장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값 12,000원

初發心自警文

누구나 쉽게 공부할수 있게 꾸민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번역 및 자해난은 물론 원문에 토를 달고,
원문 해석의 순서와 방점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혜공 편역/신국판/136쪽/값 4,500원

1999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교서적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종합정보지.

전 서적에 대한 내용별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전체목록 색인란과 출판사별 색인란을 두어
목록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가까운 불교서점에 가시거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비 2,000원 동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불교적인 의식과 분위기 속에서 고인의 입종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교장례식장은 전국에 두곳 뿐이다. 그중 한곳인 석왕사 장례예식장에서 장례가 치러지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부천 석왕사 장례예식장인 왕생극락전.



◇광주 빛고을장례식장 전경.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불교 장례예식장

석왕사 왕생극락전·빛고을 장례식장 2곳뿐
95년부터 설립신고제…일정시설 갖추면 가능

인천 갈산동에 사는 이명호씨(55)는 20일 오전 10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부천 석왕사 장례예식장으로 전화를 걸었다. 장례식장에서 보낸 영구차는 1시간도 못돼 도착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장례식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40분. 도착하자마자 이곳의 직원들은 시신의 팔다리를 반듯이 펴는 수시(收屍)를 하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그리 간단치 않을 일이었다. 수시가 끝나자 초와 향을 피우고 분향실이 차려졌고 1시간여만에 장례식 준비가 순조롭게 끝났다.

잠시후 스님 한 분이 들어오더니 어머니 영정을 마주보고 시다림을 하기 시작했다. 무슨 의식인가 싶어 직원에게 물어보니 고인을 사후세계로 편안히 인도하기 위해 염불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소 절에 다니시며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공경하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부처님 사진 아래 모두 불교식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1시간여의 시다림은 고인뿐만 아니라 상심한 가족 모두를 편안케 해주었다. 시다림이 끝나고 수의며 상복이며, 각종 상제용품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직원과 상담을 통해 결정했다.

저녁이 가까와 오자 스님이 오셔서 또 시다림을 해주었다. 발인까지 모두 다섯차례나 시다림을 해준다고 한다. 아직 결정은 안했지만 벽제나 부평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어머니 유골을 이곳 납골당에 모시기로 했다. 모레면 발인인데 발인하기 전에 치르는 입관식과 성복제(입관후 상복을 입고 영가전에 제상을 마련해 분향하는 의식)도 이곳에서 맡아주다니 걱정을 덜었다.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시기까지의 모든 절차도 지금처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니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고인을 편안히 모신 것같아 마음이 가뿐했다.

불교 장례예식장은 이처럼 상업적인 일반 장례식장과는 모든 면에서 크게 다르다. 특히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병원 영안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병원 영안실의 경우 장소가 비좁은데다 옆사람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시끄럽다.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도 힘들고 사용료도 엄청나다. 고인을 예경하는 분위기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불교 장례식장은 보다 넓은 장소에서 숙연한 마음으로 고인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 있다. 스님이 해주는 시다림과 염습은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필요한 물품은 싼 값에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교 장례예식장은 불자들은 물론 타종교인에게까지도 인기가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님과 불자들의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찰내에 장례식장과 납골묘가 일반화돼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능인선원, 영각사 등 몇몇 사찰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불교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정신적 위안감을 주는 등 포교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불교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스님)와 전라도 광주 연화회(회장 회정스님) 두 곳뿐이다. 사찰로서는 유일한 '왕생극락전'으로 불리우는 부천 석왕사 장례예식장은 지난 97년 개원, 안락정토실(입종실) 도솔천궁(분향소) 왕생당(안치실) 납골당 상의용품관매소 등과 주방접객실 등을 갖추고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한달 평균 30여건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곳을 이용하는 개신교인이나 천주교인들도 적지 않다. 저렴한데다 분위기도 좋기 때문이다. 스님이 정성껏 해주는 시다림과 염습(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다음 입관하는 절차)은 이곳을 이용해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듯 가장 감동을 받았던 때라고 말한다.

광주 빛고을 장례예식장도 차별화된 서비스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광주 연화회가 설립, 지난해 11월 문을 연 우성병원 부설 빛고을 장례식장은 석왕사만큼 저렴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장례식장보다 최소 10%이상 싸다. 현재 15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회원에게는 20% 이상 할인해준다.

한달 평균 30여명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곳 역시 불자뿐만 아니라 타종교인에게도 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개신교 천주교식 분향소를 종교에 맞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특징. 그래서인지 이용자의 70%가 천주교인이다.

사찰 장례식장 설립은 생각보다 쉽다. 95년부터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일정시설을 갖추고 해당 지역 관청에 신고만 하면된다. 갖춰야 할 시설로는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냉장시설과 예식실, 접객실, 주차장, 화장실 등이며, 시설을 갖추고 문화 및 관광집회시설로 건물용도변경을 하면된다.

부천=한명우 기자, 광주=주용직 지사장
(mwhan@buddhapia.com)



◇석왕사 납골당. 화장후 유골함이 여기에 영구히 봉안된다.



◇석왕사 입종실. 가족과 함께 입종을 맞을 수 있다.

유족의 말

"비용싸고 분위기 엄숙 차분하게 '큰일' 치뤄"

지난 14일 아내의 상을 당한 노희영씨(52·부천시 원미구)는 불교식으로 장례를 해달라는 아내의 뜻대로 고인을 석왕사 장례예식장에 모셨다. 노씨는 발인때까지 줄곧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갑작스런 일이고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러웠지만 노씨는 장례식장에 분향소를 차리면서부터 오히려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던 노씨에게 장례식장의 직원들은 친절하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아내를 석왕사로 모시자고 했어요. 평소 아내의 뜻이기도 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응했는데,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할 때까지 그야말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특히 스님이 해주신 염불때문인지 아내가 극락왕생했을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노씨를 놀라게 한 것은 스님들과 직원들의 친절뿐만이 아니었다. 비용은 예상을 뛰어넘는 너무도 저렴한 값이었다. "운구에서부터 화장이나 매장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고 수의, 관 등 일부 장의용품을 제외하고는 분향실 사용료 등 일체의 비용이 무료라서 비용이 시중의 4분의1 수준이더군요. 일반 영안실 일부에서는 폭리를 취한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노씨는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곳에서 장례를 모시고 싶고 자신도 부처님곁에서 잠들고 싶다고 말했다.

취재수첩

부처님 품에서 잠들도록…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장례식장은 석왕사 장례식장(032-663-7771)과 빛고을 장례식장(062-225-2444) 단 두 곳이다. 납골묘는 그런대로 생겨나고 있지만 장례식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교회나 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뤄주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개종하는 사례도 있다. 인간에게 생사문제만큼 큰 문제는 없고, 장례의식과 장소문제 등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교계는 이러한 사회현상을 소홀히 여겨왔고 따라서 포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장례식장의 부족은 바로 이를 증명한다.

그 원인으로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인식부족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불자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 그런데도 스님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 사찰운영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인은 불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죽으면 절로 간다. 장례식장과 납골묘 등 일본의 장례문화는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불자가 부처님 곁에서 잠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불교 장례식장과 장례문화가 없다는 것은 불교인들의 권리를 빼앗고, 포교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빛고을 장례식장 회장인 회정스님(일본 관음사 주지)은 "불교계가 앞장서서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천 장암리 마애불은 독특한 형태로 연구가치가 높다.

마애불을 찾아서

이천 장암리 관음보살상

고려 경종때 조성…보물 지정
손에 연꽃가지 들고있어 '특이'

경기도 이천시 장암리의 미륵바위라는 커다란 화강암에 조각돼 있는 이 마애불은 보물 제982호로 지정돼 있다. 바위뒷면에 '태평흥국 6년 신사 이월 십삼일 향도…'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고려 경종 6년(981년)에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화불이 새겨진 높은 보관을 쓰고 손에는 연꽃 가지를 들고 오른 발을 내려 양련좌위에 놓고 왼발은 오른쪽 무릎위에 올려놓은 반가상이다. 얼굴은 사각형에 가깝고 넓은 이마, 짧은 듯한 두 귀, 두꺼운 입술은 둔중한 느낌을 준다.

양 어깨위에 통견의 법의가 희미하게 선각되었고 가슴에는 장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연꽃을 든 오른손은 신체에 비해서 왜소한 편이다. 이 보살상은 통견식 불의에 높은 보관을 쓰고 연꽃가지를 손에 든 독특한 형태의 관음보살로 지방색이 짙고 조각성은 떨어지지만 10세기에 조성된 기년명 조각으로 다른 동시대 불상과 비교 연구자료로써 높이 평가되고 있다.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제공
(011-337-7312)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애정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은행지로 : 8003478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3 외환은행 : 189-13-03929-3
예 금 주 : 불 교 방 송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마포빌딩 (전화 : 02-705-5560~1)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카드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공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화에 세계사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24066호) 했다. 천만불자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선보이는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배현 용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떨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 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운전사고 예방, 시험대비 합격기원
건강을 지키기위해, 부와 사업번창, 불운과 재앙방지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정신 달마도를 고급 포장백자(27cm×32cm)화한 액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원: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휴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④

僧云 如何保任 師云 一翳在眼
승운 여하보림 사운 일예재안
空花亂墜 其僧 言下有省
공화난추 기승 언하유성
上來所擧古聖 入道因緣 明白簡易
상래소거고성 입도인연 명백간이
不妨省力 因此公案 若有信解處
불방성력 인차공안 약유신해처
卽與古聖 把手共行
즉여고성 파수공행

스님이 말했다.
'어떻게 보림(保任:깨달은 경지를 잘 보호하며 닦아가는 것)해야 합니까.'
화상이 말했다.
'하나의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허공의 꽃(空花:눈병이 생기면 때로는 아무 것도 없는 허공에 꽃무늬 같은 헛것이 보인다)이 어지러이 떨어지느니라.'
그 스님은 이 말에 곧 깨달음이 있었다.

口談眞理 心生退屈 返墮無分之失者
구담진리 심생퇴굴 반타무분지실자
皆汝所疑 學道而不知先後
개여소의 학도이부지선후
說理而不分本末者 是名邪見
설리이불분본말자 시명사견
不名修學 非唯自誤 兼亦誤他
불명수학 비유자오 겸역오타
其可不愼歟
기가불신여
夫入道多門 以要言之
부입도다문 이요언지
不出頓悟漸修兩門耳 雖曰頓悟頓修
불출돈오점수양문이 수왈돈오돈수
是最上根機得入也 若推過去 已是
시최상근기득입야 약추과거 이시
多生 依悟而修 漸熏而來 至於今生
다생 의오이수 점훈이래 지어금생
聞卽發悟 一時頓畢 以實而論
문즉발오 일시돈필 이실이논
是亦先悟後修之機也 則而此
시역선오후수지기야 즉이차

입으로만 진리 말하고 사견에 빠지면 자신도 그르치고 남도 잘못되게 한다

위에서 말한 옛성현이 도에 들어간 이야기가 명백하고 간단하여, 수고로움을 덜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안(公案:즉 공부의 규범이 되는 것)을 의지해서 믿음과 이해가 있게 되면 바로 옛 성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問汝言見性 若眞見性 卽是聖人
문여언견성 약진견성 즉시성인
應現神通變化 與人有殊
응현신통변화 여인유수
何故今時修心之輩 無有一人
하고금시수심지배 무유일인
發現神通 變化耶
발현신통 변화야

물었다. '스님은 성품을 보았다고 하시는데 만일 참으로 성품을 보았다면 바로 성인이시라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보통 사람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요즘 마음 닦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까.

答汝不得輕發狂言 不分邪正
답여부득경발광언 불분사정
是爲迷倒之人 今是學道之人
시위미도지인 금시학도지인

대답하다. '그대는 함부로 미친소리를 하지 말라. 사(邪)와 정(正)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는 미혹에 빠진 사람이다. 요즘은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마음은 포기상태여서 도리어 분수에 없다는 잘못(無分之失: 중생으로서는 성인의 경지에 들 수 없다는 착각)에 떨어진 자들은 다 그대가 의심하는 것과 같다. 도를 배우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되 본말(本末)을 분간하지 못하면 이를 일컬어 사견(邪見)이라 하지 수행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는 자신만 그르칠 뿐만 아니라 겸하여 남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니 삼가지 않아서 되겠는가. 대개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두 가지 문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돈오와 점수는 최상의 근기(根機)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과거를 미루어보면 이미 여러 생애에 걸쳐 깨달음에 의지해 닦고 차츰 익혀왔으므로 금생에 이르러 진리를 들으면 즉시 깨닫게 되어 일시에 모든 것을 끝낸다. 하지만 사실 이것 역시 먼저 깨닫고 뒤에 닦은 근기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 창고는 물질로

등운스님 〈강릉 보광사 조실〉



약력
- 1915년 강원도 명주 生
- 1932년 월정사에서 만운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37년 월정사강원 대교과 수료
- 1944년 일본 경도 임제학원 수료
- 1954년 명주 보현사 주지
- 1975년 태고종 강원교구 사정원장
- 1983년 태고종 강원교구 종무원장
- 1998년 태고종 승정
- 현 강릉 보광사 주석

"한순간 마음 잘못 다스리면 개인은 물론 사회에 파장 일으키니 방심말고 부처님마음 찾으세요"

요즘 날씨가 덥다보니 절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36년간 한적한 이곳 대관령 토굴에서 지내다보니 사람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불교의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나는 지불범(知不凡)을 중요시 합니다. 지불범은 '알면서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스스로 범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때문에 불교내부에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님네들이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를 쓸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서 죽을 때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대로 실천을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불제자는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돼요. 불제자라고 자처하려면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만큼은 어떤일이 있어도 믿어야 해요. 믿음만 있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밭에 씨앗을 뿌려놓고 가꾸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수확의 기쁨은 맛볼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법 만나기도 백천만겁 난조우지요. 불시은이 너무 크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처님의 바른법을 실천하기 위해 초발심의 자세로 항상 정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부처님 말씀에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 단름 지혜를 깨쳐 살아가야 합을 일깨운 것이지요.

신창원 사건등 여러 제반의 사회문제들도 따지고 보면 불평등에서 일어난 일들이지요. 그러니 모두가 공업중생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으로 끝납니다. 한순간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개인과 사회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을 명심하고 순수하고 바른 부처님의 마음을 찾도록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정신을 다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크게 하던 우주의 진리를 보게 되지만 마음을 작게 하면 바늘구멍만도 못하게돼 삶을 그르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18세때 월정사에서 만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출가동기는 월정사에서 30여개 말사당 한명의 학생을 추천하여 공부시켜줬는데 다행히 삼화사 종비생으로 뽑히게 된것이 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기 위한 생각으로 왔지만 차츰 불교에 대해 알게 되니 신심이 절로 나 그곳에서 7년간 대교과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강원에서는 불교를 내과로 하고 외과로 일본어 수학 역사등을 배웠습니다. 은사이신 만운스님은 항상 절약하고 아끼는 생활을 하셨지요. 저에게도 출가사문은 항상 검소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강원시절에는 어린스님들이 모여 있다보니 가끔 사고도 많이 냈지요. 월정사 위에 지장암이라는 비구니 사찰이 있었는데 어느날 기제사를 올리고 시루떡을 잠시 밖에 놔둔 것을 학인들이 들고와 버렸지요. 거기에다 고추장을 담아둔 단지까지 들고 왔는데 가져와보니 걸레가 들어있지 뭡니까. 그때 함께 공부하던 도반들도 이제는 거의 입적하고 원주 국형사의 석우스님과 삼척 감로사 이봉섭스님이 전부예요.

당시 월정사 주지 이종욱스님은 퇴락한 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요. 가장먼저 산판해서 불사하여 사찰을 재건하고, 상원사 청량선원을 재건했지요. 월정사를 불가의 종가라며 중창복원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다음 대화주였던 김용호거사의 후원으로 인재불사를 위해 강원을 일으켜 세웠지요. 스님은 안으로 구도의 열정을 불사르고 밖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지요.

이종욱스님은 이외에도 평창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 지역불자들과 주민들의 호응은 대단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스님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던 때였습니다. 생산불교를 위해 버스회사인 강원여객을 설립하기도 했어요. 이종욱스님의 노력으로 월정사는 대중스님이 50명 학인스님들이 20명에 이르렀지요.

강원을 마치고 상원사 선원에 갔습니다. 상원사에는 당시 선지식이었던 방한암스님이 조실로 계셨지요. 당시 조계종 총본산 종정으로 추대된 스님은 1926년부터 1951년 생사가 둘이 아님을 보여주는 좌탈입망에 들때까지 산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1년동안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동안거와 하안거를 마쳤지요. 한암스님은 계율을 얼마나 잘 지켰던지 수좌들의 좌표였습니다. 그때 세수가 70이 다됐는데 오후불식에 안빠지시고 새벽 3시면 빠짐없이 일어나 예불과 대중공양에 참석하셨지요.

한암스님은 틀니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틀니를 청소하시며 틀니에 끼어있던 음식이 나오면 물로 씻어내고 그 물을 드셨을 정도였어요. 한암스님은 항상 공부하는 수좌들에게 시주은혜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정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한암스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불은(佛恩)이 얼마나 지중한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부모는 7생이지만 사승은 누겁이어서 의가 깊고 은혜가 중하다는 것을 어리석은 자는 잘 모릅니다. 계를 받았으면서 잠깐이라도 뜻을 잊어버리면 오랜동안

1 奉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8월 25일, 음 7월 15일) 行
우리조상 전도발원 후손들의 보은공덕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 672-2448

2 奉 일시 : 8월 25일 (음 7월 15일, 수요일) 行
백중절 영가전도대법회
한국불교법륜종 보현정사 ☎ 276-1730

3 奉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8월 25일, 음 7월 15일) 行
조상님 공경하고 어버이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금성산 다보사 ☎ 334-4201

4 막대구멍 5
부모님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라
사랑하고 연민하심 한결같고 끊임없네
단것은 아기에게 먹이느라 당신은 안찬보고
쓴것은 삼키면서 찡그린적 한번없네.
- 부모은중경中 -

어머님의 크신 은혜 땅에다 견주리까
아버님의 높은 은혜 하늘에다 비기리까
하늘 은혜 땅의 은혜 아무리 크다해도
어버이의 큰 은혜에 견줄 수 없어라.
- 부모은중경中 -

◉ 홍보용(1번~3번)
길거리, 절입구
(90Cm×6m)
1장당 40,000원

◉ 장엄용(4번~5번)
법당외벽, 절입구
(90Cm×2m)
1장당 30,000원

불교서원 전화 (062)226-3056, 전송 (062)226-5056

어버이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 어른되니 그 분 이미 세상에 없네.

8月 맞춤사보 (특집) 백중영가천도법회

우리 절 편집실처럼 스님의 뜻을 헤아려, 필수적인 내용과 경제적인 가격으로 사보(월간, 격월간, 계간)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신도교육과 포교, 행사안내와 신도사업체 홍보, 사찰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등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맞춤형 사보제작 5년 역사를 지닌 불교서원과 만나십시오.



8월호 내용
특집(1)백중(우란분절)과 영가천도
특집(2)불교에서 바라본 효도와 조상공경
특집(3)조상천도기도로 다시 찾은 가정의 평화

사보(1) 20쪽, 표지칼라
기본 (100부) 10만원, 추가 100부당 4만5천~5만5천원
사보(2) 8쪽, 흑백인쇄
기본(100부) 6만원, 추가 100부당 2만8천~3만5천원
※사찰 전용지면(4쪽)에 스님설법, 행사안내, 신도원고, 신도사업체 후원광고 등을 실을 수 있습니다

개량형 영가위패(1장에 15영가 위패)
각종 현수막(행사안내,부처님 말씀 등),책상용 명패(주지,사무장)
상패(임명패,감사패), 상장, 수계증, 사찰기, 조의기 등도
주문제작, 통신판매 합니다.

※주문입금계좌(농협 613-01-092143 예금주 : 선우), 입금시 사찰명을 꼭 기입바랍니다.

영가를 천도드릴 때 염송하는 각종 "왕생기도발원문집"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왕생기도와 천도재

(구)「무상법문집」 증보판 4×6배판, 값 3,500원

왜 그리고 어떻게 천도기도를 드려야 하며 실제로 기도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각종 왕생기도문(자신의 앞길을 닦는 사람이 올리는 극락왕생기도, 상가조문시, 낙태아천도재, 49재 등 천도재에 올리는 왕생기도)과 영가천도의 바른 이해와 인연공덕, 그리고 천도기도체험기는 사찰에서 필요한 왕생기도 신행지침서(백중, 49재 법공양판)가 될 것입니다.

※법공양을 원하시는 분은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오니 연락바랍니다.
※사찰에서 법공양판 제작시 특별할인 해 드립니다.

불교서원은 불교서점(전화주문 통신판매, 법공양 할인판매)와 불교전문인쇄, 출판사(7년 역사)입니다

불교서원 전화 (062)226-3056 전송 (062)226-5056

큰스님 수행한담

채울수 없어요"



◇ 1950년 보현사 주지시절 대웅전 앞에 선 등운스님.

눈앞에 물질만 탐하니
고통이 점점 커져요
욕망 버린자리에
행복이 찾아오는 법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지식
참회 정진하는 삶이 불심키우는 길

윤회하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돼요. 경에 이르길 '마치 한사람이 하루에 천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눈먼 선지식의 인도로 인하여 법을 구하는 모든 구도자들은 법에 대해 눈이 멀게 된다는 뜻이지요. 세인의 눈을 멀게 한것은 더욱 큰 일이지요. 그러니 불제자들의 공부는 얼마나 치열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지요.

상원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은사스님이 찾아왔어요. 강원 도반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것이 눈에 띄었는지 일본 유학을 가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경도 임제대학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당시는 일본도 어려웠을 때라 식사가 말이 아니었지요.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했는데 항상 멀건 죽 한그릇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공부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지요.

귀국하여 제천 한송사에 주지로 있다가 월정사로 들어와 서기를 봤지요. 특히 월정사는 발우공양이 엄했어요. 대중공양을 하는데 주지가 앉으면 왼쪽으로는 소임을 맡은 스님네가 앉고 오른쪽으로는 강원의 강주 강사스님이 자리를 하지요. 공양시에는 가사장삼을 수하는 것이 기본이었지요. 그러고 나면 대중방 부전이 종을 치고 신장앞에 밥이 올라가고 채공이 등장하지요. 주지스님과 강주스님에게는 특이하게 찬장을 갖다 줬어요. 죽비소리와 함께 순서대로 밥과 반찬을 덜고 나면 뒷쪽에 앉은 스님들에게는 밥과 반찬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숟갈씩 나눠서 덜어먹었지요. 또 부목이나 일을 많이하는 소임자에게는 다른사람보다 우선적으로 공양을 배분했지요. 학인스님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이상 거의 곯아앉아서 공양을 했어요.

또 불자들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와 내가 만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삶이 윤택해지기도 빈곤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꼭 오해도 있고 갈등과 대립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법을 몰라서 그래요. 서로 도우면서 의지하고 맞춰 살아야 해요.

나는 36년전부터 법회에서 법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1년에 두번 음력 10월보름부터 정월 25일까지 1백일 기도와 4월 초파일 기도만 해오고 있어요.

승려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신도들에게 아무말도 할 수가 없어요. 시주도 바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을청년들이 갖다준 나무로 손수지은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지금껏 예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교는 스님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현재 불교는 참회하지 않는 승가가 문제지요. 참회하지 않고는 바로 설 수 없어요.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보살은 내가 지나간 세상, 끝없는 세월에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탓으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악업이 한량없을 것이다. 자신의 업이 한량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잘못을 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참회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이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이 80이 넘었으니 갈 때도 됐지요.

불법의 진리는 끝없이 어려운 것 같아도 대략적인 줄기를 잡아 공부하다 보면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큰 대양도 알고보면 한낱 웅덩이에 지나지 않게 되는 이치지요. 모르면 크고 끝없어 보이지만 알고나면 우주라는 것도 한낱 내마음속에 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마음에서 일어나고 내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문명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 탐합니다. 그러다보니 마음도 빛이 바랠 수 밖에요. 마음창고에 물질을 아무리 넣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우주처럼 넓은 마음을 어떻게 물질로 채우겠어요. 아무리해도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고통을 치유할 약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불교의 진리로 채우기 시작하면 마음이 맑아져요. 그리고 우주를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릴 수 있어요. 이점을 알아야 해요. 뭐가 중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빨리 알아야 합니다. 욕망을 버리면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불교 백날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지식불교 기복불교에서 벗어나 참된 실체인 마음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음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불교의 진리를 체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관령 준령 대공산성밑에 한 토굴에서 사는 노인네가 이런말 한다고 무슨 메아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종단을 이끌어가는 스님네들은 그 곳에 있을때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불자들은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고 종단이 어떻고 스님이 어떻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불성을 찾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것은 모두 방편인데 왜 방편에 의지하여 맡겨버리고 그럽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세상에 나와 우주의 근본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중생에게 가르쳐 준 것이 불법이지요. 우주의 법칙인 진리는 성인이 나오거나 말거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법칙을 일깨워 바른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깨달아서 인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마음을 깨닫는 지름길은 기도하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푸른바다를 우주를 감싸안는 큰 마음이에요.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마음을 풀어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둘러봐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피땀흘려 노력하고 정진하면 그만큼 반드시 성과가 찾아옴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찾아오는 행운은 일시적으로 기쁨을 줄 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업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해요.참회정진하는 마음이야말로 불심을 키우는 지름길임을 알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양 원 식 〈부산교사불자회장〉

관음 정근 30년째…병마에도 감사
"부처님 향기 온몸에 감돌아야 불자"

교사가 천직인데다 불자였던 나는 조례시간이면 학생들에게 합장한 채로 눈을 감고 2~3분 정도 명상을 하게 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들려주었다. 또한 사람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음을 일러주며 어제의 일을 반성하고 오늘의 일을 준비하는 목표가 있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냈다. 학생들에게 부처님이 가르쳐 준 생활 지혜를 조금씩 심어주었던 것이다.

30년 세월이 흐른 요즘, 거리에서 졸업생들을 만나면 아침 명상 시간이 인생의 지표가 되었다고 말하곤 한다. 그리고 어김없이 요즘 건강이 어떠냐고 묻는다. 그런데는 이유가 있다.

30여 년 전, 목숨에 대한 경이로움을 체험했다. 교단에 선지 3~4년쯤 되던 해의 일로 당시 수업이 일주일에 41시간 정도였다. 국어 독본시간, 국어 문법시간, 국문학사 시간 등 야간 5학급의 국어시간을 전담했고 2학년 담임까지 맡다보니 병마가 찾아온 것이다.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황달기가 나타나고, 검게 타는 과정에 들어간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건강은 이미 악화되어 있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오른쪽 갈비뼈 밑에 손을 댈 수도 없을 정도의 통증이 느껴졌다. 이불을 등에 받치고 먼 산을 힘 없는 눈으로 하염없이 바라보게 하는 간경화였다.

무슨 업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무서운 시련을 주나 싶어 절망과 좌절의 서글픈 나날을 보내기 일쑤였다. 병이 들고 보니 성질을 부리게 되었고, 모든 것이 귀찮았다. 이같은 나날이 계속되면서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이 머릿속을 휘감아 돌았다. 그중에 언젠가 법회날 들은 웃음의 중요성에 대한 법문이 생각났다. 그 법문의 요지는 일소일소(一笑一少), 일로일노(一怒一老)이다. 그 때부터 나는 이것을 나의 건강비법으로 정하고 대안으로 시작한 것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것이었다. 서재 한켠에 불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향불을 붙이고 관세음보살 염송을 시작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찾기 시작한 것이 30년 세월을 이어온 나의 수행법이다.

절에 가 부처님전에 기도를 드리고, 법회장에 나가 법문을 듣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 등 어느하나 부처님 일 아닌 것은 없다. 하지만 돈독한 신심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진실로 실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한 불자는 부처님 향내가 온몸을 감싸고 돌아야 한다고 한다. 말 한마디가 주위사람을 기쁘게하고, 가는곳마다 연화장세계가 열려야 한다. 나는 이 사실을 병마와 씨름하며 알게 되었다. '몸에 병없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이는 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임을 나는 알았다. 내가 만약 관세음보살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좋은 약과 내조가 있더라도 병마와의 싸움에서 완패했을 지도 모를일이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종교에 의지한 내 생활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한다. 나는 요즘 주위사람들에게 가슴이 답답할 때 '관세음보살'을 외쳐 보면 마음의 평정과 여유를 찾게 될 것이다고 권유한다. 그들은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순간 무언의 가르침이 가득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부처님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지게 한 그 때의 병마저 감사히 여기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웃음을 잃지 않는 불제자로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교사불자연합회의 일이다. 나는 병마에 쫓기며 관세음보살을 찾을 때와 같은 간절한 신심으로 교사불자회 일을 하고 있다.

● 199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교보문고 집계 종합 1위)

맑고 향기로운 법보시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스님 • 류시화 엮음

강원도 산골, 화전민 오두막에서 홀로 생활하는 법정 스님의 삶의 풍경과 지혜의 말씀
그 목소리와 함께 전해지는 감동의 메시지

오디오 북

법정 스님이 직접 읽은 〈산에는 꽃이 피네〉 카세트 테이프

이 책은 〈산에는 꽃이 피네〉의 내용을 법정 스님이 직접 읽어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로 만든 오디오 북입니다. 출퇴근 길 차 안에서, 또는 조용한 거실에서 스님의 숨결과 영혼이 담긴 목소리로 직접 듣는 메시지는 책에서와는 또다른 감동을 줄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어른들에게도 뜻깊은 마음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 70분 테이프 2개/값 8,000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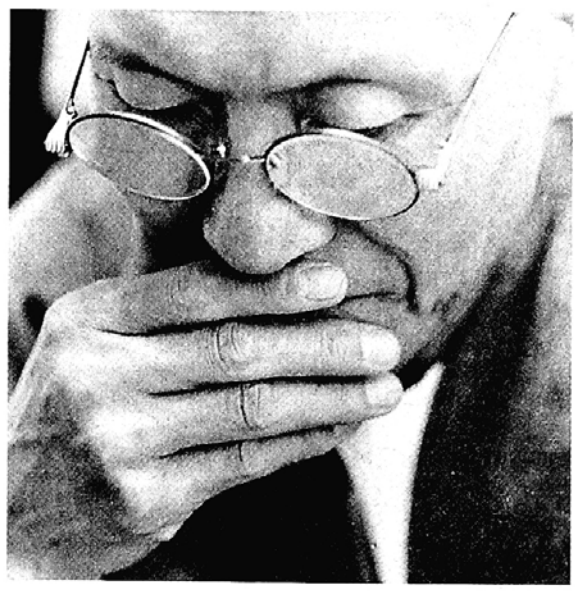
작은 책

주머니 속의 향기, 〈산에는 꽃이 피네〉 작은 책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산에는 꽃이 피네〉를 아주 작은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손 안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지만 큰 책의 내용과 감동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담았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에게 선물한다면 진정한 마음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손 안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 248쪽/값 3,000원

● 다량으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다량 주문은 출판사에서 직접 받습니다.)



아름답고 달콤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실행이 따르지 않는 그런 글에 독자는 실망과 공허함을 느낀다. 언행이 일치하는 스님의 음성을 대하면 나는 갈증나는 산행길에서 샘물을 만났을 때와 같은 기쁨이 솟아오른다.

– 이계진(방송인)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18-9 배영빌딩 401호 전화 2263-1941/ 팩스 2263-1946 동쪽나라

한민족의 정기 오롯이 품었구나





◇노고단에서 바라본 지리산. 멀리 보이는 가장 우뚝한 봉우리가 백두대간 남한 구간중 가장 높은 천왕봉이다. 왼쪽사진은 천왕봉 아래 중봉에서 노고단쪽으로 바라본 지리산의 모습.

프롤로그

하늘로 오르는 한 길이 있으니, 이름하여 백두대간이다. 또한 그 길은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서는 길이기도 하다. 솟구치며 물을 풀어 놓는 까닭이다. 그리고 그 물은 온 땅을 적시며 뭇 생명을 길러낸다. 사람 또한 그 길을 오르내리며 삶을 엮어간다. 산에 등 기대고 강물에 발 적시며 살아가는 것이다.

산을 오르는 모든 길은 오름과 내림의 연속이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저 홀로 곧추선 게 아니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수많은 봉우리들이 어깨를 겯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하나의 산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등산과 하산은 동의어이기도 하다.

백두대간 또한 크고 작은 산들로 이어지는 이 땅의 으뜸되는 산줄기이다.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도상 거리 1625km: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백두대간에 가장 많은 품을 보탠 한 사람인 조석필씨의 글에서 그대로 갖다 쓴다) 이 땅의 등뼈를 이루는 산줄기. 그것이 바로 백두대간이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금강산, 설악산, 점봉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과 같은 대부분의 명산들이 대간 위에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백두대간은, 두류산 조금 못미처



◇천왕봉의 성모마고상. 지금은 중산리의 천왕사에 모셔져 있다.

서부터 동해 맨 꼭대기의 서수라에 이르는 장백정간을 추켜올리고는, 줄곧 남으로 내달리다 매봉산에서 몸을 틀어 서남쪽을 향하다 속리산을 부려놓고는 다시 남으로 지리산에 이르는 동안 13개의 정맥을 펼쳐 놓는다. 정맥과 정맥 사이로는 이른바 10대강을 품에 안는다. 한강 수계니 낙동강 수계니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네 삶이 강줄기를 터전 삼고 산줄기를 울타리로 삼을 수밖에 없음이

13정맥과 10대강 품에 안은 대간

도선스님의 '옥룡기' 백두대간 개념 원류

이로써 분명해진다.

문화권이라는 것도 그렇다. 인위적인 행정 구역이나 산맥 개념의 추상적인 지리 공간에 의해 모둠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줄기에 의해 결정된다. 영남 지역이라 함은 새재의 이남을 말하며, 영서라 하면 대관령의 서쪽을 일컫는다.

이렇듯 우리의 산과 강은 뼈와 살의 구조를 이룬다. 산이 체(體)라면 강은 용(用)이다. 몸과 몸짓의 관계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지리 인식이 산경(山經)의 원리인데, 그 내용은 지극히 간단하다.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 산이 물을 가른다는 것이다. 당연히 물은 산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이 말 속에는 산 또한 물을 건너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고산자 김정호가 대동여지전도의 발문에서 밝힌 이 원리는 우리네 전통지리학의 핵심 원리이다.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 산경 즉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줄기를 정리한 책이 〈산경표〉(우리 나라의 산줄기를 족보식으로 정리한 책으로 권찬자는 분명하지 않다. 18세기 중반 이후에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인데, 그것의 실제 모습이 바로 1대간 1정간 13정맥이다. 이로써 우리는 마치 책 손바닥의 손금 들여다보듯이 우리 땅의 실체를 육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산맥은 어떤가. 예를 들어 '마식령산맥'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지리학자나 입학 시험을 앞둔 학생들 빼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맥은 지질 구조를 바탕으로 그은 것이

백두에서 지리까지 이어져 이땅의 등뼈 이루는 산줄기

므로 실제 지형과는 동떨어져 있다. 아무리 그 이름을 외워봤자 실체로 다가오기는커녕 생각수록 생뚱맞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아프리카의 국경선들이 네모 조각으로 모자이크된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대간과 정맥은 그렇지 않다. '한북정맥' 하면 확실히는 몰라도 아, 한강의 북쪽에 있겠구나. 그래서 소양호 쪽에서 흘러내리는 강줄기를 북한강이라 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기 된다. 더욱이 우리의 대간과 정맥은 실제로 그 등마루를 따라 걸을 때, 단 한 번도 물을 건너지 않고 온전히 밟아 나갈 수 있다. 백두산 꼭대기에서 지리산 꼭대기까지 한번도 신발을 벗지 않고 온전히 밟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간과 정맥이 다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80년대 초다. 이우형이라는 한 지도 연구가에게 인사동의 고서방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산경표〉가 얼굴을 내민 것이다. 그 후, 박용수나 조석필과 같은 사람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등산 전문지인 〈사람과 산〉이라는 명석을 만남으로써, 산맥이라는 남(일제)이 만들어 준 도수 맞지 않는 안경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산천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미리 밝히건대, 이 작업 또한 이러한 분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때론 남의 글에서 얻은 내용을 갖다 쓰면서도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용색한 변명이지만 매체의 특성상 어쩔수 없음으로 이해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산경의 원리는 18세기에 집성된 조선의 지리학적 성취다. 하지만 그 뿌리는 신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고려로 이어진다. 다음의 인용문은 〈고려사〉의 한 부분으로, 공민왕 6년(1357), 사천 소감 우필흥(于必興)이 왕에게 올리는 글의 일절이다.

"옥룡기(玉龍記)에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지리산에서 끝나는데, 그 지세(地勢)의 본 뿌리는 수(水)요 줄기는 목(木)이라…(司天少監于必興上書言玉龍記云我國始于白頭終于智異其勢水根木幹…. 번역은 북한 사회과학원의 것임).

위의 글에서 옥룡기(玉龍記)라 함은 옥룡비기 또는 옥룡비결 등으로 불리는 도선(道詵, 827~898) 스님의 예언서를 가리킨다. 도선 스님이 누구인가, 동리산문의 선풍을 이어 옥룡산문을 연, 신라말 후삼국 격변기의 대선사이자 한국 풍수의 비조가 아니든가.

이러한 우리 땅에 대한 인식은 〈택리지〉로 널리 알려진 이중환(1690~1752)에 의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고, 이것이 후대로 계승되어 신경준(1712~1781)의 〈산수고(山水考)〉, 정약용(1762~1836)의 〈대동수경(大東水經)〉 등 자연지리서를 낳고, 정상기(1678~1752)의 '대동지도'를 이어 김정호(생몰 미상, 1800~1864년 사이로 추정)의 '대동여지도'로 꽃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선 후기의 지리학적 성과가 실학이라는 당시의 실천적 학문 토양에서 집성되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을 거울 삼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김정호보다 1세기나 앞선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이미 모든 산들이 개별적이 아니라 이어진 맥으로 그려졌다는 사실도 똑똑히 기억해 둘 대목이다.

이제 대간의 끝 등마루인 지리산의 천왕봉에 올라선다. 백두로 나아가고자 함이다. 동강난 허리에서 시작할 바에야 그 시원을 가능성으로 남겨 두고 싶은 것이다. 백두산이 어디 보통 산인가. 이 땅의 뿌리이자 머리인 산이 아니던가. 형국으로 치면 뿌리이지만 그 기상은 하늘에 닿아 있으니 어찌 머리라 하지 않겠는가.

모쪼록 이 걸음이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해 본다.

글: 윤제학

산문(山門)이라는 말이 있다. 산의 어귀를 일컫는 말이다. 또한 절의 입구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제 1의 의미는 절의 입구다.

명산(名山)라 할하여 대찰(大刹)은, 구슬라 비처럼 작도 어렵선다. 그래서 산은 가슴을 수호하는 신공이 되고 한 폭의 탱화가 된다. 따라서 이 작업은 이 땅이 곧 절토이기를 꿈꾸는 나의 오체투지가 될 것이다.

· 본사 '여시아문' 출판부장, 동화작가



사진: 손재식

80년대 중반 이후 득불처럼 번진 '백두대간 발굽 운동이 부추겨 내년 듯한 지금, 사진가운서의 나의 고민은 새롭게 싹트고 있다. 아직 해야할 일이 숙제처럼 남아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대간을 걷고 또 걷는 동안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이 내 눈으로 가늠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바랄 것 없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야겠다.

· 사진작가, '사람과 산' 편집위원



황금꽃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특이할 만한

구도의 대지침서

제3의 눈을 찾아서

저자 도엽



제3의 눈의 개안(開眼)은 모든 구도의 99%를 차지하는 구도의 대본(大本)이다.
이 책은 저자의 30년 간의 수행과 체득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구도서이다.

석가모니 부처나 보살들의 이마에 제3의 눈의 표시가 있는데, 그것을 '백호(白毫)' 혹은 '영안(靈眼)'이라고 한다. 부처님도 '동방의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동방의 샛별은 옛날부터 '영안'의 고유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름이다. 또는 부처님은 비파싸나 호흡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비파싸나 호흡법은 영안 집중과 분리할 수 없는 호흡법이다.

제3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
제3의 눈을 열자! 이 책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가 12,000원

"제3의 눈은 육체의 부분으로 존재한다. 그대가 죽을 때, 그대의 육체는 죽지만 제3의 눈은 그대와 함께 이동한다. 그것은 새로 탄생한다. 두 번째 육체가 죽지 않는다면 그대는 탄생, 죽음, 재탄생, 재죽음의 반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제3의 눈의 계발이, 이 지상에서는 마지막 단계이다. 그 다음은 부처, 신의 단계, 우주와 하나가 되는 단계뿐이다. 그는 지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제3의 눈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인기의 예속(隷屬)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기미사마, 또는 귀신, 조상(祖上)을 등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명상 중에 나를 만나면, 즉시 죽여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 본문 중에서 –

'고타마 붓다'의 영혼을 받아들인 오쇼의 이야기 !

– '무심(無心), 그 영원의 꽃들'인 20명의 선사(禪師)들에 대한 강의 –

고타마 붓다 / 보현(普賢)
각산 / 석두(石頭)
남전(南泉) / 수산주(首山主)
대주(大珠) / 방산(邦山)
대자(大慈) / 위산
마조(馬祖) / 유관(惟寬)
문수(文殊) / 방정(芳聖)
바쇼(Basho) / 장사(長沙)
법안(法眼) / 조주(趙州)
보리달마(菩提達磨) / 백각(栢覺)



정가 9,000원

5월 19일 출간

무심 그 영원의 꽃들

저자 오쇼 / 옮긴이 류원창

일본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신도(神道) 신사(神社)의 영능력자인 카츠에 이시다는 오쇼의 사찬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미륵불(彌勒佛, Maitreya The Buddha)이 들어간 그 사람이다. 그는 21세기의 유토피아를 창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수많은 파괴적인 힘이 그에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를 사탄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결코, 독극물에 중독된 사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사탄은 흔히 독극물을 중독시키는 자이지, 독극물에 중독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오쇼를 보호해야 한다. 부처가 그에게 들어갔다."



카츠에 이시다

"7주 동안의 투쟁의 마지막 날, 모든 고통이 나의 육체로부터 사라졌다. 그것은 거의 기적처럼 일어났다.
그 마지막 날 밤, 한밤중에 나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드문 일이었다. 아무도 나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나는 눈을 떠야 했다. 밖 안은 무척 어두웠다. 그러나 나는 문득 순수한 빛으로 이루어진 한 인간이 닫힌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손님은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향기로웠다. 나는 그를 선뜻 내 가슴 안의 침묵 속으로 받아들였다.
이 순수한 빛의 몸은 다름 아닌 '고타마 붓다'였다.
그대는 지금도 나의 눈 속에서 내가 내 안으로 흡수해였던 그 불꽃을 볼 수 있다. 2,500년 동안 은신처를 찾아 지구를 배회했던 불꽃을." – 오쇼 –

도서출판 황금꽃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 몸에서 벗어나야 모든경계 벗어나

참선이란 대도의 걸음걸이는 차근차근 단계 밟지 않고 한 찰나에 뛰어넘는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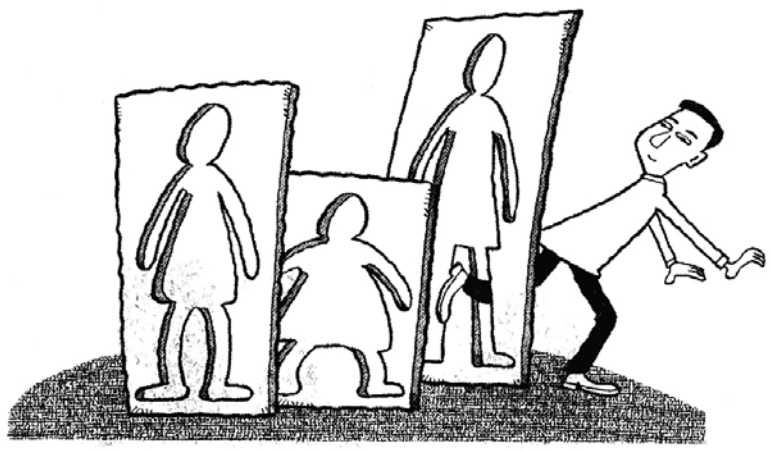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분별없이 무심으로 무행해야 자유권 얻어 소임각각 맡아도 혼자일 아닌 전체의 일

여러분을 뵐 때마다 아주 마음이 충만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처럼 더불어 같이 이렇게 마음공부하는 분들이 드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어느 외국을 봐도 전세계를 다 둘러봐도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해가나 하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그렇게 직선적으로 들어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마음이라 하지만 그 마음 하나에서 수만가지로 갈라지는 그 마음을 한데 잡고 나갈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것인데 쉬운 걸 쉽게 끔 생각을 못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어느 제자가 은사스님한테 "저는 여기서는 시끄럽고 골치가 아파서 공부가 안되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이나 짓고 혼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은사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가긴 가되 물도 먹지 말고 남이 농사지은 쌀로 밥도 해먹지 말고 또 땅도 딛지 말고 나무도 베지 말고 불도 때지 말고 일체를 하지 말고 혼자 할 수 있거든 가거라" 하구요. 그러니 제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니 도대체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래 생각을 바꾸기를 '혼자는 살 수가 없구나' 를 생각을 했더랍니다. 혼자는 살 수 없는 거로구나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를 생각해 보니 자기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생명들을 자기 토굴에 있는 중생들이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고로 깨달으셔서 많은 중생들을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내 토굴이지요. 냉철하게 판단한다면 바로 내 집이자 토굴이자 주머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토굴을 벗어나야만 된다, 네 토굴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모두를 벗어날 수 없는 경계가 생기느니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리라고 믿지만 불국토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불국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꼭 만든다 안만든다 하기 이전에 이미 불국토는 만들어져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불(佛)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이요 교(敎)라는 것은 우리 삶이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어느 종교의 이름을 따서 모아놓고 이 종교가 맞느냐 저 종교가 맞느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의 진리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볼 때에 그 생명들 즉 말하자면 미생물의 생명도 생명이요, 축생의 생명도 생명이요, 인간의 생명도 생명이니 모든 것이 생명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이 생명들이 모두 살고 있으니 불국토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불국토를 만들고 안만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오히려 흐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불교는 경전이 많고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해놓으셔서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시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물론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될 것도 있지만 참선이라는 이 대도의 걸음걸이는 걸음걸이가 따로 없이 한 찰나에 뛰어넘을 수도 있는 공부입니다. 있다 없다도 없는 것입니다. 있다 없다도 없이 그냥 무심으로써 그대로 행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한 까닭입니다. 모두가 공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긍정적으로 우리가 길을 찾아서 가는데는 결국은 무심으로써 무행을 해야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서 또는 습에 의해서 전자에부터 살아온 걸 볼 때 모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저렇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게 틀리다 저게 옳다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별을 하죠. 그리고 또 학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 바보로 만들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 법은, 이게 법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 공법에는 알고 모르고도 없고 길이 끊어지고 이어진 것도 아니고 또는 오늘만 있고 이 한 생만 산다 이런 것도 없고, 요다음에 또 산다 이것도 없고 이 모두가 자기 스스로서의 자유권을 얻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유스럽게 자기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야만이 된다. 그러면 자유스럽게 어떻게 하느냐.

또 그렇게 이름을 만들고 갖추어놓고 다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억지로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애를 써보세요. 계율을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계율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러기보다도 계율을 지킨다도 없이 슬기롭게 잘 지혜롭게 돌로 보지 않고 잘 해나간다면 그건 계율을 지키고 안지키고도 없이 그대로 무조건 그냥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계율을 안지킨다 지킨다도 없죠.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사람이 이 우주관이 탁 터져서 자기 몸뚱이 주머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서 지구라는 주머니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모두들 이 몸뚱이 주머니 안에서도 못빠져 나가서 애를쓰지 않습니까. 몸뚱이 주머니 안에서 못빠지는 사람이 어떻게 지구를 벗어나겠습니까. 말로만 우리가 도리천하고 외치지마는 이름없이 그대로 벗어나는 길이 진짜로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다고 봅니다. 백번을 말을 하고 백번을 움죽거렸다 하더라도 움죽거리는 바가 없이 그냥 함이 없이 하고 가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으면 그렇게 움죽거렸어도 움죽거린 바가 없고 말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한마디를 해도 틀리지 않게 하셨으리라고 믿으니까 말입니다. 진정코 자기 속에서 그대로 자기와 둘이 아니게끔 사랑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드뭅니다. 여기에서 정말 만사 가운데서 폭포수가 터지고 화산이 터지듯이 그렇게 온 우주에 터져서, 모두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이 된다면 정말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조금도 어김없이 육도의 중생들을 다 건지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미생물이나 지옥고 또는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하늘인간 모두 합해서 다 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한생을 살다 보면은 버리고 다시 옷을 입어야 하겠죠. 그때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높은 차원이 된다면 높고 낮음도 없이 자유스럽게 나툴 수 있겠죠. 부처님 세계에서 자유스럽듯이, 예를 들어서 도깨비 장난처럼 내가 소를 건지려면 소로 들어가고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남의 집에 방문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고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권을 얻어서 자유스럽게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과거도 따로 없고 미래도 따로 없으니까 현실에서 그렇게 해가면서 자꾸 터득을 하는 거죠. 저는 그전에도 말을 했지만 그거 터득을 해가지고도 실천을 해보지 않으니까 그게 안심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걸 한번씩은 다 해봤거든요. 어떤 미숙한 점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이 모두가, 이 보살의 이름이라는 것이 다 부처님의 마음이로구나 그런 것도 알았고, 그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없이 나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일이나 한 나라의 일을 볼때, 소임은 각각 맡아서 하되 그게 전체의 일이지 혼자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자유스러운 권리만 갖는다면 자동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잘못된 일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무슨 기도를 해라 무슨 정성을 드려라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지는 않죠. 자신이 알아서 하시는 대로 공덕이 되는 거니까요.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더러 한 말이 있죠. 당신은 아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인생이란 모르면 생존경쟁, 알면 공부



인생이란 '응아!' 하고 고고성을 울리며 나왔을 때에 이미 예고 없는 사형 선고를 받는 가운데 일생을 꿈속의 일처럼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다. 또는 잠깐 이승에 소풍 나왔다가 가는 것과 같다. 우리의 육신 · 재산 · 권력 · 명예라는 게 본래 실체가 없어서 허망한데, 찰나 동안 살면서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을 놓고 서로 빼앗고 싸우고 울고불고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미 죽을 숙명을 안고 태어난다. 마치 사형이 확정된 죄수와 같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만 나는 내 인생을 몇 십 년 동안 관리할 뿐이라고 확철하게 안다면 마음은 생사의 걸림에서 벗어나 편안해질 것이다.

우리는 한 철 살다 가는 나그네이다. 그러한 나그네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평등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매사를 내 탓으로 돌리며 넓은 아량과 지혜를 가진 인간으로 사느냐, 아니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야 하겠다는 모진 마음으로 나가느냐 각자 관단해 볼 일이다. 다만 한 철 나기 위해 이 세상에 와서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간다면 언제 다시 와서 실현할 수 있을지 도저히 기약할 길이 아득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인간이란 지구 안에서도 그렇지만 대천세계를 합친 자리에서 보면 티끌처럼 보잘것없다. 그럼에도 티끌 같은 존재가 티끌 같은 일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왈가왈부하며 화목하지 못한다. 그러니 공부한다 하기 이전에 말 한마디라도 오순도순 곱게 해야 하고 일을 해도 융화를 도모해야 하고 서로 마음을 거슬리지 말아야 하겠지만 몸 떨어지면 그뿐이니 어느 때 삶의 의미를 알게 되겠는가.

사람은 꿈이 꿈인 줄 모르는 까닭에 혹은 기뻐하고, 혹은 괴로워한다.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쾌락의 꿈과 고통의 꿈에서 깨어나 크게 한 번 껄껄 웃고 명철한 눈으로 이 세계의 참모습을 보며 살아야 한다.

'이 즐거운 세상,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이 편케 살면 그뿐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 하나 편한 것으로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 일시적인 향락이 근본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우리의 삶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나 혼자만이 몰래 하는 일까지도 업이 되어 내게 되돌아온다는 법칙도 알지 않으면 안된다.

몸은 조만간 스러져 흩어질 것인데 자기를 어떻게 영원하다 하는가 라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모습을 바꿔 옮길 뿐이지 죽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비유하건대 애벌레들이 고치를 틀고 들어 앉았다가 나방의 모습으로 화하여 공중을 나르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은 그러기에 생동력 있게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는 것이다.

인생의 최대 문제는 지금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계에서 위 차원으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다시 지금의 차원을 되풀이 하느냐, 아니면 아래 차원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 해답은 각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참 나를 깨달으면 영원히 밝은 세계를 보게 된다.

도대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억만의 부를 쌓고, 까마득하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은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기껏해야 백년도 못사는 인생, 그렇게 집착하며 구하던 것들도 일단 병들어 죽게 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청산유수 같던 언변도 일단 몸을 여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다른 유위법적인 보람도 무의미해진다. 그런 것을 바라고 마음 닦는 것은 정녕코 아니다. 고작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위대했던 아무개'라는 소리가 전해진다 한들 뿌리 없는 일이니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자기의 참 주인과의 해후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나은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는 데 급급해서 공부할 겨를이 없다고 말한다. 그 시간에 물건 하나라도 더 파는 게 중하다는 식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한다면서 마치 부업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토록 바삐 살면서도 여전히 인생살이가 힘겹다고 한다.

지금 현실의 환난과 고통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공부할 사이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통이 모두 나로부터 나온 것이니 나온 곳에다 되맡겨야 녹아 내리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변해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환난도 고통도 다 공부의 재료인 것이요, 생활이 그대로 이 공부라 하는 것이다.

과학 문명이 발달된 덕분에 현대인들은 예전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현대인들은 그 여분의 시간을 어디에, 무엇하는 데 쓰고 있는가?

이렇게 살기 좋은 노른자위 안에서 이 노른자위 공부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불법은 만 가지 맛이 나는 과일이요 만 가지 향기가 나는 꽃이다. 그리고 수행자들은 그런 과일을 키우는 농부요, 그런 꽃을 재배하는 정원사라 할 수 있다. 모든 생산 중에서 가장 맛이 나고 해볼 만한 생산, 모든 농사 중에서도 가장 보람있는 농사가 바로 불법 수행이다. 그리고 그 농사는 다른 모든 일상 생활을 버리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생업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누구나 불법을 닦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오히려 생업이야말로 불법을 제대로 닦을 수 있는 연마제인 것이다.

인생이란 모르면 생존 경쟁이지만 알고 보면 공부이다.

협찬 : 주인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둘 아니게 사랑하면 너·나 따로 없어요

☞ 15면에서 계속

무리 했어도 공덕이 없노라고요. 마음을 그렇게 뒀으니까 그 마음대로죠. 마음을 그렇게 가졌으니까 그분이 커질 수도 없고 또 적게 될 수도 없죠. 우리가 자유권을 얻는다면 때로는 적게도 되고 때로는 크게도 되고 때로는 길게도 되고 때로는 짧게도 되고 둥글게도 되고 모도 나고 이렇게 할 줄 알텐데 말이죠.

'스스로 길잡이 나온다'는 뜻은

문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법형제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도입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 중에서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큰스님 말씀중에서 공부하다가 보면 스스로 길잡이가 나온다고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말없이 질문하고 말없이 대답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그래요. 말없이 질문하고 말없이 대답을 하게 되죠. 말한 놈도 그놈이고 대답하는 놈도 그놈인 까닭이죠.

'목마르면 냉수 마신다' 의미

문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전에 스님과 한암스님 대담중에서 한암스님께서 "마음을 보았느냐" 했을적에 스님 대답이 "목마르실텐데 냉수 한사발 드십시오." 이렇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젖지 않는 청수를 말하신 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답 그건 이렇게 말해도 맞지 않고 저렇게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이치가 있죠. 꼭 알아보세요.

못도 지남철이 되는 이유

문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못이 지남철에 붙으면 못도 지남철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못이 지남철에 붙으면 그 자석의 힘이 느껴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생활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저절로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 노릇이 저절로 되구요. "여보" 하고 부르면 남편 노릇이 금방 되지요. 그거나 마찬가집니다. 체가 없는 마음에서 하는 것은 체가 있는 것을 항상 돌아니게 굴리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믿지못해 병원 다녀왔어요

문 저는 공부하면서 겪은 제 체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산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갔다 내려오는 길에 그네를 탔습니다. 그네가 너무 높이 올라갔는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내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생각하기를 '자기가 있으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갈려고 힘을 딱 줬는데 이상하게 미끄러지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자리 밑에는 돌무덤이었는데 인제 머리가 박살났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딴 사람 허벅지에 가서 부딪히고 엉덩이는 먹고 남은 음료수병 껍질에 가서 떨어져서 머리에 약간의 혹만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을거라고 했는데 저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딪힌 사람한테 미안하다 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집에서도 병원에 가서 X-Ray 찍으라고 하는 걸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지럽증 증세가 자주 나타나길래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냐고, 병원 가야 되는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속에서 대답하기를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병원에 가서X-Ray를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어요. 그때 병원문을 나서면서 드는 생각이 '아하 아직도 이게 덜 떨어진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경험담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못믿으면 안되죠. 마음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근본을 믿으라는 거죠. 마음은 마음이 아닌 겁니다. 너무 마음이 많아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뭐 요것뿐이다 이럴 수도 없고 이것 뿐이다 이럴 수도 없고 태산같다 이럴 수도 없구요. 마음이 어떻게 많다 적다 할 수가 없지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죠.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요. 때에 따라서 보고 듣고 적응이 돼야 마음이 생기는 거지 덮어놓고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착에서 생기는게 고통
그 집착만 딱 떼어놓으면
육근·육진이 그냥 멸해요

지금도 말하는 사이없이 말을 했고 여지껏 말을 해온것도 사실은 말하는 사이가 없이 했습니다. 허허허…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아님이 없다고 한 그 까닭이 뭔가. 자기 아님이 없다는 것! 그것은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전부 자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만 인도한 게 아니라 벌레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벌레 하나도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진화가 되고 형성되고 또 진화되고 형성되고 이렇게 거푸거푸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람이 돼서 잉태가 되면 그 사람이 또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이 되고…. 사람이 세 번을 태어나야 중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세 번 태어나면서 삼생을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돼서 살다 보면 그때는 건너 뛸 수도 있죠. 십이인연법을 그냥 뛰어넘을 수가 있고 팔정도를 그냥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게 딱 한군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이죠. 사성제도 그렇죠. 그 고통이라는 게 집착에 의해서 생기는 고통이거든요. 그 집착만 딱 떼어놓으면은 그냥 멸하는 거에요. 육근이다 육진이다 하는 것도 그렇구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뜸이 아주 잘 들면 밥이 맛있죠. 뜸이 안들면은 고실고실한 것이 생쌀 씹히는 거와 같고 그렇듯이 사람 사는 것도 그렇답니다 모두가. 그래서 침착하게 살라, 빨리 뛴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니 침착하게 뛰어라, 비가 와도 침착하게 걸어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모습을 두고 말한 거지 뛸 때는 진짜 뛰어라 이겁니다. 한 찰나에 뛰는 방법이 있는데 왜 몸뚱이가 뛰느냐 이거죠. 몸뚱이는 천천히 그냥 침착하게 가고 마음은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이리저리 내가 몸뚱이가 열 개가 돼서 나가도 그건 손색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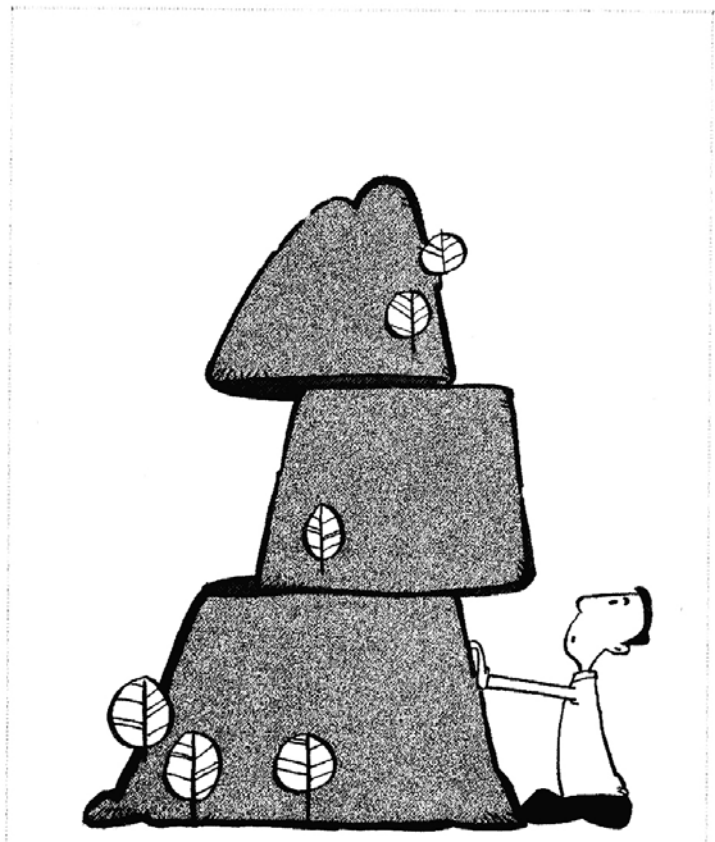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진화하니 세상에 나 아닌게 없어
무엇을 받으려 말고 무조건 주려고 해야

즉 말하자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사람이 돼야 거부하는 마음이 없이 수긍시킬 수 있죠. 모두 그 정도는 짐작하시고 남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사람이 생각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서 다 하는 거죠.

절에서 때로는 침을 놓고 또 때로는 관상을 보고 하시는 모양인데 많은 부처님들께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지금 절에서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문제를 놓고 볼 때에 받는 사람도 모르고 해주는 사람도 모르고 서로가 몰라서 고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거죠.

저도 산에 다니면서 실험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됐는데요, 알고 나서는 또 실천을 해봤죠. 예를 들면 돌이나 물이나 나무나 이런 거 하고도 서로 서로 응답이 오고 가는 것도 해보기도 하고요, 영가들을 만나보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것이 사람 사람이 누구나가 다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가고 오면서도 생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처음엔 그것을 내 눈앞에서 꼭 봐야만 속이 풀렸거든요. 그걸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봐야만이 남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남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모자란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이 세상에 내가 나를 못믿으면 누구를 믿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대신 살아주는 사람도 없고 대신 믿어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나와 나밖엔 없을 게 아닌가. 그런데 나도 못믿으니까 나는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육신은 참 자기가 하자는 대로 심부름 하는 것 뿐이지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죠. 말로는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구스님네들이 비구니라고 해서 업신여길 때 그건 마음에서 벌써 다 알게 돼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쪽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서는 되지 않을 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크면 큰대로 똑같이 돼주는 거예요. 언제든지요. 내가 더 큰데 왜 나를 작게 보냐고 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왜냐, 그 사람보다도 작게 될 때 가 있거든요. 아주 더 작게 될 때도 있죠, 필요에 따라서 말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을 논의할 것도 없고 여자 남자를 따지는 것도 논의 할 것도 없어요. 수없이 찰나찰나 바뀌니까요. 때로는 그 사람만도 못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처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아무거나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부처다 아니다 내가 크다 작다 할 것도 없죠. 그래 누구한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 사람 넉넉하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구요, 들을려고 애 쓸 필요도 없구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작아지지 자유스럽게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면 천차만별로 모습이 바뀌져서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말입니다. 아버지 보다 아들이 못하다 이래도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나은 사람도 있구요, 아들보다 아버지가 나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천차만별이니까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없지요.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누가 잘한다 잘 못한다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남한테 무엇을 받을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줄려고만 생각한다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둘 아니게 보고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냉철할 수 있는 마음, 정돈할 수 있는 마음, 그저 항상 둘 아니게 사랑할 수 있다면 너나가 따로 없겠죠. 그걸 일부러 생각을 내서 할려면 그것도 안되죠. 천성이 그렇게 되듯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신다면 물에 있는 생명들도 다 보게 돼있어요. 허공에 있는 중생들도 다 보게 돼있구요. 다 같이 통신할 수 있는 거지만 통신이라기 보다도 그냥 가깝게 이렇게 돌아니게 될 수가 있죠.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죠. 깨우쳤다 나는 못깨우쳤다 이럴 필요도 없구요.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되지 못한 까닭에 그렇게 된 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사람 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지금 여기는 상세계와 하세계를 잇는 교차로입니다. 이 중세계에서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상세계로 올라가기도 하고 하세계로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떨어지는 놈은 떨어지고 또 올라오는 놈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연방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 거죠. 인간되기 이전에도 수천 번을 자기 모습을 벗지 못하다가 인간으로 화할때는 한 찰나에 화하거든요. 그 모습을 가지고 수없이 죽고 수없이 피를 토하고 그러다가 인연따라서 그 마음이 아주 한 찰나에 돌면서 그게 환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그저 나쁘게 쓸려고 애쓰지도 말고 좋게 쓸려고 애쓰지도 말고 스스로 그냥 자기 몸을 자기가 이끌어 간다면은 참 좋으실 거예요. 지금 말 한 것은 정말 요 다음생에라도 그렇고 요 다음다음 생에라도 그렇고 모두 여러분이 '참 그때에 그 모습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그분 고마워' 또는 한구석 더 넘어가면 '아 그때 그분이 그때만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계시구나.' 하겠죠. 지금 자기가 걸어가면서도 '아 이게 지금 그분이 걸어가고 있네.' 이러기도 하구요.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분이구요 그분이라도 그분이 아니고 서로 찰나찰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찰나찰나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생을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죠. 하나만이 아니니깐요. 우리가 살면서 참 아프지 않게 살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을 꼭 그렇게 사는 것만이 부처님 법이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불국토 얘기를 했지만 불국토에서 그대로 여여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육도윤회를 돌고 돌면서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에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벗어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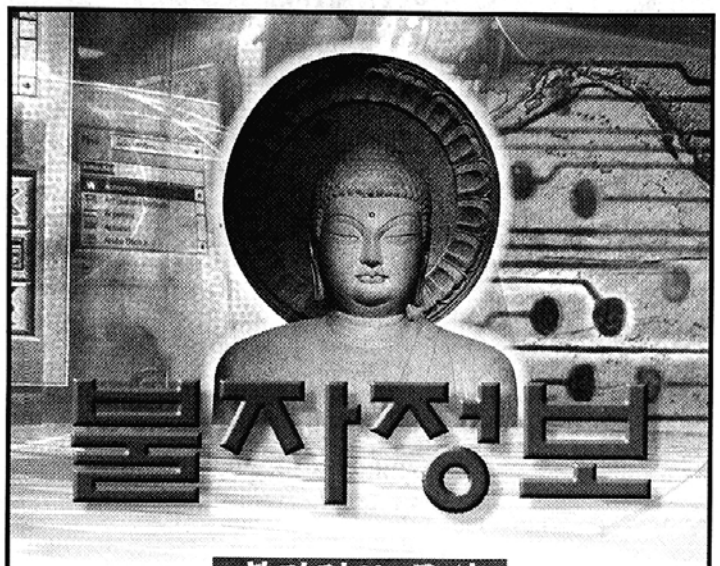
여러분과 같이 성불함이 없이 성불합시다.

※위 법문은 1999년 7월 4일 법형제회 정기 법회때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가끔은 언덕을 넘다 그만둔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737-0697)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강좌

수맥파 (나쁜기운) **차단**
1. 수맥찾기 강좌(신비의 추 L-로드)
2. 건강과 행운의 목걸이
종일 온몸이 나른 하신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 등
3. 수맥 차단제 판매
4. 활동 공간의 기 균형
02)734-2118/011)239-6817
대붕 氣 살림

최면-견성지도 수련테프 판매!!
1.생물 = 생명(?+기록물)+물질(육체)
(1)?;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 無形, 무게부피無
(2)기록물(업);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 무게부피無
(3)물질(육체); 법칙성, 부자유, 수동타율, 生滅, 有形무게부피有
2.견성; 볼래야 볼 수 없는 ?을?이 본다.
3.?을 보아 병과 운명을 고친다.
4.만성난치병/금연 금주/
악습비만체질교정/학습력강화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017)609-9068

전통불교 의식 연구원
02)
511-0108

귀 알림 귀
철학관 수강생 모집
과목: 육효점, 평생사주,
일년신수, 궁합 기타
▶적중 100% - 전과목 3주완성
완성후 직접손님 상담가능
(비법 전수함)
02)962-9871 **자비원** 석산

구인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0417)554-7986

사찰불사 후원하실 분
불사에 직접 참여하실 단체·개인
중고 포크레인, 건축자재, 배
- 기증이나 후원하실 분 -
(강수위관계로 필히 문의)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각동리
불교요양원 다불원
0373)372-1930
018)305-7661

기도스님 · 행자님
모십니다.
포항시 신광면 불광정사
017)534-3750
0562)261-3750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0582)533-2133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기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항상 피곤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염, 당뇨병, 고혈압, 체질개선
정력증강, 손발냉증, 변비, 요통등...
■가격: 분말 230g 39,000원
환 250g 45,000원
동양물산(주)
02)832-0742 / 011)381-8157

달·마·보·급·처
0346)575-2323

수맥차단
차량운행
이사,삼재
3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天書 인연불자 보급
마음 다스리는 글·사업번창 이루고 고민 다스리는 글·화두 볼 수 있는 글·불법 이루는 글

※ 홍광 사진 보급 ※
미덕사 0441)852-8990

간 병 신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로
유료 간병 서비스는
물론 무의탁 노인 등에게
무료로 간병 자원봉사
불심깊은 불자간병인
전 화 : 02)363-7884
팩 스 : 02)364-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전통 불교 의식 모집
관음시식 도량게
복청게 초게향
◆교육기간◆
3개월(개인지도 가능)
0351)865-4893
011)661-9119

·기운보강 ·스트레스해소 ·노화방지
·면역성강화 ·질병예방 ·순환기장애에…

내재의학적 자연치유!
난치병 치료에 신비!
쥬천 玉山家 (02)777-0105


귄 달마스님
◆사주: 대운·행운·신수
◆작명: 출세 문자 비법
◆관상: 빈부 귀천 학당
◆풍수: 자손 창성 번영
◆부적: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15:00
02)999-5551
02)999-4804
051)418-4804 **달마사**

사람을 찾습니다

◆ 성명: 윤 정 숙 ◆
나이: 42세가량 키는 163cm
충청도 말씨
암자나 절 주방에 기거예상됨.
011)217-7468
(야간 3463-5770)
윤정숙 거처를 제공하시는
분에게 후사하겠습니다.

사찰안내

사찰 (급) 안내
◇위치 : 서울
◇부지 : 1,500평(국유지)
◇요사 : 20평 ◇법당 : 20평
◇가액 : 1억 2천만원(급매)
◇강능고찰터 1천평(4천만원)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733-0108
광진불사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근교**
◆부지 : 약 1,000평(대지 약740평, 임야250평)
◆법당 : 40평
◆요사 : 40평, 미륵불, 관음불
◆가액 : 답사후 결정
◆특징 주차장 및 조경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대작불사에 적합한 포교 및 기도도량입니다
※ 포교당(안산시 주택가) ※
40평(관세음보살,지장보살) 방2개 및 주방(현대식시설)
해동불사 이처사 합장
02)389-7880/ 019)390-6110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부지 : 약 1,500평
◆법당 : 58평 / 산신각 : 5평
◆요사 : 65평
◆특징 : 법당목조, 법회당, 일주문
※전국에 소재한 사찰 포교원, 사찰부지 급히 구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성실히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찰을 양도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즉시 좋은인연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多寶佛事 02)3545-056
019)234-5506

사찰 양도 운영하실 분
◇위치: 공주
◇법당: 30평 ◇요사: 20평
◇부지: 11,000평
◇가액: 3억 6천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위 치 : 서울시내
◆대 지 : 210평
◆매매가 : 평당 300만원
◆입지특성:
경관 뛰어난 명당터
011)244-2083
(매도자와 직접 상담)

포교당 안내
◆위치 : 광주시내 요충지
◆2층 45평
◆가액 : 전세 4천, 월세가
◆시설비 있음.
011)633-2851

사찰(급) 안내
◆위치 : 서울 노원구
◆대지 65평, 임법당, 건평 100평
(위층 법당, 아래층 요사채)
◆가격: 3억 5천만원
◆특징: 주차시설 완비, 전철역에서
2분거리, 주위에 아파트 5천세대
10월 입주-포교당으로 손색이 없음.
02)3391-4845/02)3391-4848
011)752-4842

절터 안내
◆위치 : 경북 김천시 감문면
송북2리 85번지
◆대지 437평, 건평 237평(가옥1채)
0547)439-00942
0547)430-0049
※ 절터로 최적지임

포교당 안내
◆ 위 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 평 수: 35평(포교 최적지)
◆ 가 액: 5천만원(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 ※
02)307-2616
011)416-2782/011)478-5979

연수원 및 사찰부지(급)
◆위치 : 경기도 홍천군 서면
◆특징 : 홍천강 유원지 및
대명리조트 10분거리
서울에서 40분거리, 숲속의 분지
약2500평(토목공사완료) .
한라공인중개사 0343)386-6444
016)212-0988

사찰부지 안내
곤지암 근처 사찰명당
◆위치 : 경기 광주 태화산 입구
◆부지 1500평(토목공사완료)
◆서울에서 40분거리, 교통편리,
태화산 입구, 산세가 좋고
계곡물이 좋은 수양도량
032)466-4867/011)9775-4867

사찰양도 안내
◆위치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평수 : 약 3천평
◆특징 :고성읍서 10분거리,
약사전 법당안에 석간수가 흐르며
약수물 유명, 경관수려, 불사에
필요조건 구비, 주차장 완비
◆가액 : 4억 5천만원(현지답사후 결정)
0556)674-7598/0556)674-0392

사찰 안내
◆위치: 전북 군산 시내에서 15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2평, 요사채 50평,신축건물,
거실 大 1개, 방 4개, 목욕탕 3개,
부엌 20평, 다용도실 겸 창고 1, 태양열
온수기 한통 설치, 약수물 연꽃독 설치
◆대지 : 360평(대지 80평, 밭 172평)
◆등기필
◆가격 : 2억 9천(절충가능)
※ 절엎에 3층 지방문화재 석탑 있음.
0654)451-2410 / 011)671-5161

사찰(급) 안내
◆위치 : **경남 남해 봉화리**
◆부지 7필지, 대지 및 임야 준농림
약 4만 5천평, 주택 2동 ,
현재 유실수 농장임.
◆특징: 경관수려, 약수有, 사찰
수련원 및 실버타운, 납골당 ·
절터 최적지임.
◆가격: 11억 2천만원
011)551-3535
0591)758-7370

사찰 안내
◆위치 : **경기 파주**
◆대지 273평,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방6, 주방3, 욕실3,
화장실3, 주차장 완비
◆특징: 산세좋고 물좋고 기도도량
으로 좋습니다.(운영하실스님께 양도)
◆가격: 4억 2천(답사후 결정)
0348)952-7905

사찰 및 실버타운 부지
◆위치 : 밀양시
◆면적 : 1.준농림 1만8천평
2.대지 1천평 상대농지 8천평
◆특기 : 4차선 도로확장 및 시외버스
정류소 개설, 전원 주택지 적합
0527)351-1008
011)596-5028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 7층 석탑에 관해 관심 있는 분
문의(스님께 한함)

사찰 (급) 안내
◆위치:경남 마산 하안 시내와 5분거리
◆법당 2층 40평, 1층 공양실, 기도실
40평 - 산신당, 향토 찜질방 1채,
아파트형 요사채 20평 1채,
대지 1천평, 330평 등기필,
시설완비 A급, 일체시설 무료보시
◆가액 : 3억(답사후 결정)
011)559-9651/0551)286-043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달성**
◆ 스님 이민 관계로 급히 양도
◆ 신도 다수, 비구니스님 환영,
도심지의 유일한 암자
◆가액 : 권리금 4천만원
(보증금 없음)
011)245-5467

암자부지 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대지 250평
(즉시 건축 및 등기 가능)
◆가액 : 3천 5백만원
◆호수가 보이는 조용한 곳,
현주택 1동 유실수 다수
◆목조법당 희망할시 최저가 건축
보장(주인이 건축 기능보유자임)
0563)336-4480 박허운 합장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시 수정동**
◆건물3층, 22평, 법당1, 방1, 시장
상가 밀집지역, 즉시법회가능
◆가격: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850만원
011)563-4454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 1리 75번지
◆준농림지 : 1,800평 (대지200평)
◆건물 : 25평
◆가액 : 1억
0564)733-5366
011)655-3883

사찰 안내
◆위치 : **공주시 (마곡사 근처)**
◆대지 200평, 요사채 40평,
법당 17평, 조경시설 완비
◆특징: 교통편리,주위에 전원주택
터미널에서 7분거리
◆가격: 9천 5백만원
0416)841-4780

사찰(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 대 지 : 85평
◆ 건 물 : 법당17평, 주지실, 상담실, 거실, 방3개, 주방, 욕실(전평45평)
◆ 가 격 : 일억 팔천만원 (매매가)
◆ 특 징 : ●건축한지 3년 됐으며 사찰로 등기 되어 있어 어떠한 종교 행사도 할 수 있음. ● 건물 전면에는 주택 단지, 뒷면에는 야산에 산책로 조성되어 있음 (2K) ●전철역에서 택시 기본 요금거리 위치 (지하철4호선)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탱화 모셔져 있으며 법당 조성되어 있음. ● 단독주택이나 구조는 사찰용도로 건축하였음(현재 운영중) ●융자(오천만원) 할 수 있음
0345)419-3224 / 011)417-1008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소재**
◆ 부지 약 500평, 법당 30평,
요사채 100평
◆산세 좋음.
◆가액 : 답사후 결정
018)273-9390

서울,부산지역 사찰구함
서울 부산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전화상담시 상담내용은
보안유지합니다.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이문동 대로변2층 40평**
◆방4, 입법당
◆가격: 보증금 500만원-55만원
(이런 싼곳은 없슴)
◆무속인, 철학 기타
자비원 02)962-9871

사찰 (급) 안내
◆위치 : 진주시
◆부지 142평,대지(등기필)
법당·요사채 37평
◆가격 : 1억 1천만원
◆특징 : 진주시내 10분거리 소재,
교통편리, 준공4년, 고급전원주택
(임법당), 시설일체 무상기증
0599)933-7988/011)488-3339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최고요지**
◆평수 40평
◆법당, 청동 삼존불, 공양실, 방2개,
에어콘, 후불탱화
◆시설 최고, 옥상40평 사용 가능
◆보증금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51)293-0137
011)825-1662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랍니다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35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80평 방8개 주방2개 지하20평, 명부전10평 단청필 주지실 12평
◆ 건물 완공은 3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만원
◆총 공사비가 12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 011)885-2876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컴퓨터 원격진료시대

(의료)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의사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시대가 열렸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팀은 23일 이 병원 원격진료센터와 한국통신 본사 의무실을 연결하는 원격진료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원격진료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 청진기를 갖춰 심장박동 등의 진찰과 각종 혈액검사, 귀·눈 등의 진찰도 가능하다.

항암 삼계탕 · 오리고기 시판

(건강)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18일 항암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공액화리놀산(지방산의 일종)이 함유된 삼계탕용 닭과 오리 생산기술을 개발, 식품업체인 화인코리아에 이전시켜 9월 중순부터 본격 생산, 판매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생등 900명 모집

(모집) 서울시는 8월10일까지 직업훈련생 및 고용촉진훈련생 900명을 모집한다. 15~64세 서울시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보호대상자 등은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훈련 직종은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패션디자인, 미용 등 19개 직종. 훈련비용은 무료이며 수료 후에는 취업도 알선해 준다. (02)3707-9373

칠월칠석 과학문화축제

(축제) 우리의 전통명절인 칠월칠석이 과학문화축제로 다시 태어난다.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천문우주기획은 8월17일 칠석(음력 7월7일)을 맞아 다음달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칠석축제를 개최한다. 행사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KBS 제1라디오방송을 통해 견우와 직녀성 찾는 방법도 전국에 생중계된다.

한강 좋은영화 감상회

(영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27일부터 8월5일까지 한강시민공원과 여의도공원에서 '한강 좋은 영화 감상회'가 열린다. 매일 저녁 8시 30분부터 무료로 상영. 영화상영에 앞서 세종국악관현악단, 임학성 재즈 밴드 등이 나와 오후 7시50분부터 음악공연도 갖는다. (02)3707-9416

매주 목요일 '혁신의 시대'

(방송) EBS가 올 초부터 방영하고 있는 '다시 보는 20세기' 프로그램중 새 시리즈물인 '혁신의 시대'를 22일부터 8월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방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에서 제작된 밀레니엄 다큐멘터리. 블랙파워(흑인운동)·패션·여성·건강·무기·선박 등 6가지 주제가 다뤄진다.

부패고리 끊을수 없나

옷로비-도지사부부 수뢰등 '뇌물중독증' 심각
부패방지법 절실…시민 신고정신 고취도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인가'

고관집 거액 도난사건과 장관 부인 옷로비 의혹사건에 이은 임창렬 경기지사 부부 수뢰사건은 또한차례 국민을 허탈과 분노에 빠뜨렸다. 몇몇 지방 단체장들도 검찰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이젠 중하위직 공무원이나 민간부패는 이미 애깃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다.

지난 6일 월드리서치는 규칙을 잘 지키면 자기만 손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60%에 달했다는 사실과 함께 가장 시급히 추방해야 할 사회병폐로 부정부패를 꼽은 사람이 62%나 됐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리서치 앤 리서치사도 6월에 응답자의 92%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 심각한 정도라고 응답한 여론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20일자에 '한국 부패스캔들은 최상류층의 탐욕탓'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쯤되면 '부패공화국'이라는 자조를 할만도 하다. 도대체 끝도 없고 대책도 보이질 않는다.

지난 16일 청와대 대변인은 "부패구조는 국가 존망의 문제"라며 "부패구조 청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몇 십번도 더했던 말이다. 속을대로 속아서인지 이제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과연 부정부패의 고리는 끊을수 없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잇달아 열린 부패관련 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학자와 시민단체 지도자들은 '한국의 부패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으며 구체적이고 시급한 부패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의 부정부패는 조직원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조직 부패형'인데다 부정부패를 싹틔우는 '연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뇌물 중독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건이 있을 때만 호들갑을 떠는 '냄비근성'을 버리고 분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의식개혁이나 경조사비 안받기, 공직문화 개선책 등의 방안만으로는 미흡하다. 제도적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시민의 원칙 준수와 고발정신, 행정기관과 기업의 정보공개 및 시민의 행정 참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지나치게 관대한 국민정서도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6월말 한국을 방문했던 부패문제의 세계적 권위자인 고든 틀럭 교수(미 애리조나대)는 "한국의 부패수준이 일본이나 대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축소 △야당이나 언론의 효과적인 감시 △윤리 확립 등의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홍콩 미국 영국 등은 엄격한 부패방지법을 정해 공직자 부패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가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

〈잡아함경〉에 "곧고 바른 것을 길(道)이라 하고 두려움 없는 곳을 목적지라 한다. 고요하고 한가한 수레를 타고 진실의 가르침을 덮개로 삼고 부끄러움을 고삐로 삼으며 바른 생각을 재갈로 하여 지혜를 훌륭한 말몰이 삼고 바른 소견을 안내자로 삼으라"는 말씀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생각으로 악업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셨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우리 모두의 공업(共業)이다. 경쟁력 있고 맑은 사회 건설은 우리 모두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가족 불안정-장래불투명-부패
한국 사회불안 3대요인

'신창원 사건' 부패현실 증거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국가체제 최고의 위기상황을 100(내란)으로 보고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 정도를 수치화하는 측정법을 개발해 조사한 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수준은 70.2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79.4에 비해 낮아졌지만 폭동이 우려되는 '심각한 위기'(81 이상)에 여전히 근접해 있는 수치로 비교적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다.

분야별로는 '가족 불안정'이 78.5로 가장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조사됐다. 이혼율이 20%가 넘고 아동유기, 가출, 가정폭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위로는 '장래 불투명'(75.3)이 꼽혔는데 비행학생이 늘고 있는데다 대졸 취업률과 신분상승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위는 '부패 및 정책불신'(71.6)으로 계속돼 온 정치혼란에 각종 비리사건, 신창원 사건으로 드러난 사회부패상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가지가 결국 한국 사회불안의 3대요인인 셈이다.

보건사회硏 '위기수준' 측정

분야	사회위기지수 98년5월	99년5월
대외불안 경제불안	77.6	46.3
부패및 정책불신	100.0	71.6
생활불안정	77.9	70.4
사회 갈등	64.3	69.4
가족불안정	89.3	78.5
문화적 부패	49.1	49.1
보건복지부 수준	47.3	61.6
개인적 불안정	57.3	64.6
불투명한 장래	75.3	75.3
총체적사회위기지수	79.4	70.2

지구촌 인구 60억명 돌파

UN "인구억제책 시급"

지구상의 인구가 마침내 60억을 돌파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오전 0시 24분(한국시간 오전 9시24분)경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준으로 18일 자정 직후 60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세계인구는 39년만에 2배로 늘어나게 됐다. 또 세계인구가 87년 7월11일 50억명에 이른 이후 불과 12년만에 60억을 돌파하게 됐다.

세계 인구는 1초에 3명씩 늘어난다. 5명이 태어나고 2명이 죽는 것. 세계인구는 이후 2015년까지 매년 1% 이상 증가해 2013년에는 70억명에 도달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80억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상무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최다국은 중국(12억5천만명)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이런 인구증가 속도는 환경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탱되기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2050년의 인구를 80억명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론

해뜨면 어둠은…



성기서 〈서원대 교수〉

지난 7월 17일 "알선수재혐의"로 전격 구속된 임창열 경기지사와 부인 주혜란 씨 부부의 이른바 '뇌물수수 사건'은 우리 지도층의 정신적 부패를 융변적으로 보여 주었다. 일부 장관부인들의 고급 옷 뇌물사건,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국세청까지 동원하여 기업체에서 돈을 긁었다는 어느 정당의 세칭 "세풍(稅風)"의혹등 맥락을 같이 하는 이 사건의 밑바닥에는 "도덕불감증"이라는 뿌리깊은 우리의 병이 자리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임지사 부부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갖은 명목으로 수 천억대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과 준조세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정치자금으로 쓰거나 개인의 치부를 한 큰 도둑들에 비하면 이들은 진짜 "송사리"다. 검찰에서는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법원에서는 이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 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겠지만, 불교인인 나의 입장에서 바라는 바는 송사리든 고래든 감옥에서나 사회에서나 "죄는 원래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며, 마음이 멸하면 죄 역시 사라짐을 깨닫아 참으로 참회하여," 한 마음 돌이키면 그들 자신이 본래 부처님과 다름없는 최상의 인간임을 깨닫는 것이다.

> "부패의 근원은 탐욕과 무지이니 한마음 돌이켜야"

크고 작은 이런 사건 속에서 나는 우리의 덧없음(無常)과, 괴로움(苦)과 '나 라고 할만한 실체가 없음(無我)을 본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일어난다. 개인적으로는 임 지사가 욕심을 내었기에 깨끗하지 않은 돈을 받았을 것이고, 깨끗하지 않은 돈을 받았기에 죄를 지은 것이 되고, 죄를 지은 혐의가 있으니 포승줄에 묶이는 신세를 피하지 못하는 인과의 사슬에 매인 것이다. 부인 주혜란 씨도 인과에 따른 과보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하나도 남편과 다르지 않다. 사회적으로는 썩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정치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죄 되는 줄 모르면서 함께 죄를 지은 것이다.

나라에서는 이번 일을 기회로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일시적인 형벌이나 제도의 보완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 깊숙히 자리잡은 모든 인간악의 근원인 탐욕과 무지는 뿌리뽑을 수 없었음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는가? 우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부터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 자기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시범케이스로 송사리 몇 잡아들인다고 부정부패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지도층이 도덕성을 회복하면 함께 하는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닮아갈 것이고 도덕적 풍토는 삼천리 강산에 널리 퍼지고 죄를 짓는 사람의 적어질 것이다.

무엇을 기초로 도덕성을 회복하게 할 것인가? 첫째는 지도층 인사들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결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선거혁명을 이루어 내고, 올바른 시민을 육성하는 자발적 시민의식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환경을 빨리 이루어 내야 한다. 다음으로 불교인들의 의식전환이다. 말로만 불교의 삼법인(三法印)과 사성제(四聖諦), 오계(五戒), 육바라밀(六波羅密)이 제일이라 하고 불교교리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아무리 높은 소리로 외쳐 봤자, 실천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어리석은 이의 잠꼬대와 다를 바 없다.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불자다운 불자가 되자. 해가 뜨면 어둠은 절로 물러가듯 우리 나라의 모든 불자들이 참으로 계·정·혜를 힘써 닦는다면 임 지사 부부도, 무명 때문에 고통을 고통인줄 모르고 참 즐거움인 줄 아는 우리 죄업 중생들도 인연 따라 자연스레 최상의 행복, 깨달음의 길에 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깨달음의 사회적 연기가 아닐까?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5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 성 철(승가대교수) · 권 탄 준(동국대교수) · 보작스님(승가대교수) · 권 기 종(동국대교수) · 혜원스님(동국대교수) · 윤 열 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 정 섭(금강선원이사장)
2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교육원장) · 최 봉 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정 병 조(동국대교수) · 오 국 근(동국대교수) · 남 수 영(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 상 현(동국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 · 장 휘 옥(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6월 15일~ 99년 7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9년 8월 7일(토) 오후 5시 (동산교육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불교계 유일의 종합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여름호

지상강연 혜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3 - 禪강좌
곽암 선사의 십우도송(十牛圖頌)

불교계진단 10 / 불교계 실버산업의 현실
실버산업의 현황 및 불교계의 운영실태를 짚어보고 불교계 주요 노인복지시설 몇 곳을 소개한다.

최초완역 /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 스님의 또 하나의 역작, 『중편조동오위』.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서어 민영규 선생이 일본 京都대학에서 발굴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귀중한 자료인 『중편조동오위』를 천태종 역경원장이신 이창섭 선생이 국내 최초로 번역, 소개함으로써 일연 스님의 선사상을 새롭게 조명한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10 / '99건축문화의 해 특집
동해를 앞마당으로 둔 절, 낙산사
낙산사는 절 자체보다는 절이 위치한 자리를 통해 더욱 빛나는 조형미를 연출한다. 관음신앙의 성지이며 주변환경과 어우러져 시야가 넓어지는 낙산사와 홍련암. 젊은 건축가 류경수 씨와 함께 새롭게 음미해보는 낙산사의 건축문화체험

특집 / 21세기 해양의 시대와 동아시아 불교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아 해양을 통해 이루어졌던 한 · 중 · 일 동아시아의 활발했던 불교문화교류의 역사적 근거를 통해 장보고를 필두로 해상을 호령하던 그 기상을 오늘에 되살려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불교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 21세기 해양의 시대와 동아시아 불교의 미래
- 한 · 중 · 일 해상교류와 관음신앙
- 佛典 및 기록으로 보는 불교와 해양

인터넷 불교 /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현재 개설, 운용되고 있는 인터넷 불교사이트를 평가한다
-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통도사, 송광사 등이 뛰어나다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학술편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획
근 · 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의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 역사와 歸의 만남, 황의돈 선생
- 한국 도서관의 아버지, 박봉석 선생

우리시대의 匠人 2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장인들을 찾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텃밭을 일구어가는 숨은 장인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리즈.
- 북 장인(鼓匠), 임선빈 씨

연재소설 / 『관세음보살본행경』 평역
『산은 산, 물은 물』, 『만행』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소설가 정찬주 선생이 소설적인 구성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소설.
관세음보살 이야기 〈1〉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
1998. 12 - 1999. 6.
불교 관계 각종 자료(단행본, 논문, 학위논문)를 목록으로 정리.

불교와 문화 구독 및 광고 문의 : 02-719-1855 우)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대보빌딩 '불교와 문화' PC통신 ID :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 kbpf, E-mail : kbpf@chollian.net

■ 현대불교 · 생명나눔회 캠페인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스님들 장기기증 줄이어 '값진 보시'



◇통도사 옥련암 캠페인은 대웅전 등 불사 회향식과 함께 열린 문화한마당 속에서 진행됐다.



◇승가사 캠페인에는 등산객들도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11일 통도사 옥련암 · 17일 승가사 법회

장기기증 79 화장 433명
옥련암 문화행사 열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본사가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 대법회가 11일과 17일 통도사 옥련암과 서울 승가사에서 각각 거행됐다.

양산 통도사 옥련암(주지 법선)은 11일 10년 불사회향과 함께 생명나눔캠페인과 문화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88년 시작한 대웅전, 청소년회관, 요사채 등의 불사를 회향하면서 장사익씨의 노래, 풍물패 노름마치의 길놀이 등이 어우러져 멋진 무대를 자아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158명이 화장유언 서약을, 62명이 장기기증을 서약하는 등 모두 220명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35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통도사 주지 월파, 영주암 주지 범산스님을 비롯 4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법선스님은 "불사회향의 값진 자리에서 생명나눔의 보살행까지 더불어 하게 되어 기쁘다"며 "모든 불자들이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서울 하늘높은 절 구기동 승가사(주지 상륜)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자민스님을 초청 생명나눔 실천 특별법회를 가졌다. 연휴로 이어진 공휴일법회인 이날 5백여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개최된 행사에서는 275명이 화장유언 서약을, 17명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 등 292명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자민스님은 "베푸는 삶을 사는 지혜만이 자신과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다"고 법문했다.

서울=위영란 기자, 양산=천미희 기자 (yryui@buddhapia.com)

이모저모

승가사 후원 신청자 17명

○… 승가사 생명나눔 공동캠페인장은 후원신청자가 그동안의 법회 가운데 최대의 수치를 기록하는 경이를 보였다. 연휴인 공휴일이라 법회 등참불자는 기대에 못미쳤으나 월 정기 후원자로 활동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17명이나 접수됐다.

승가사 관리인도 후원

○… 승가사에서 첫 후원자로 1만원을 접수한 정태철씨(54세)는 10년동안 승가사 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정씨는 "돈으로 돕는 것이 가장 쉬운 방식이 아니냐"며 장기기증에 서명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지적하기도.

등산온 기독교인 동참

○…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최희진씨(31세 · 홍은중 교사)는 등산하다 승가사를 찾았다며, 좋은 캠페인에 뜻을 같이 한다면서 사후 각막 장기 시신을 기증하겠다고 접수해 눈길.

부산 영주암 법회요청

○… 옥련암 주지 법선스님을 비롯 통도사 기산스님, 극락암 도웅스님, 영주암 범산스님, 보현선원 정여스님등 스님들이 장기기증에 많이 동참. 특히 부산 영주암 주지인 범산스님은 "너무 값진 행사"라며 "영주암 신도들에게도 생명나눔의 장을 마련해 주고 싶다"며 다음 캠페인 법회를 영주암에서 할 것을 제안하기도.

권유의 말

"육신 애지중지 하는 것 큰 집착"

초청법사 자민스님



식물을 보더라도 씨앗은 익으면 하나일 뿐이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더 많은 씨앗을 잉태하게 됩니다. 하다 못해 원수에 대해서도 원한을 맺힌 대로 갚겠다는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살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면 자신도 모르게 원결이 풀리게 됩니다. 또한, 설사 남에게 속게 되는 일을 당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속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자신을 위해 속이지 않는 생활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 · 수 · 화 · 풍(地水火風)의 4대로 이루어진 속절없는 육신이 영원불멸할 것처럼 애지중지 착을 두지말아야 합니다. 내몸은 하나지만 안구 신장 등 각 장기가 다른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보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할 보시실천이 지금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으니 우리 마음자세를 달리하면 보살행을 제대로 실천할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기증은 둘 아닌 도리 실천"

옥련암 주지 법선스님



장기기증과 같은 생명나눔은 의미 깊고 값진 대불사입니다. 나의 장기가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게 된다면 그것은 많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 둘아닌 도리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량 불사에 온갖 정성을 다하듯이 이 생명을 나누는 불사에도 우리 불자들은 마음을 다해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고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창조가 되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혼자인 듯 하지만 우리 모두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으므로 나의 보시로 새생명을 얻은 이는 나를 복되게 하는 인연이 되어 함께 할 것입니다.

화장문화 선도에도 불자들이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죽고 나면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남기는 것은 묘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입니다. 훌륭히 살다갔다면 묘자리가 없어도 후손들은 영원히 그 삶을 기릴 것입니다.

동참자 명단

장기기증 서약(79)

▲통도사 옥련암=기산스님(통도사) 도응스님(극락암) 범산스님(영주암) 법선스님(통도사 옥련암) 영월스님(장곡사) 정로스님(통도사 서운암) 정여스님(보현선원) 강현숙 권양수 김광석 김말기 김미옥 김송림 김우숙 김윤숙 김인란 김정미 김주영 김필숙 김향덕 김혜인 남인양 남정자 문 경 민외조 박복순 박애자 박은아 박지원 박창숙 배연이 백순희 서경애 서원일 송옥순 송준영 안명희 양은지 양태영 우영숙 윤귀남 이경출 이진호 이춘남 이화심 임길례 임인기 전수연 정정숙 정징원 조정숙 조창국 주언정 지은아 차선아 최귀옥 최영관 최영덕 최영민 최희진 허도익 현미경

▲승가사=강순남 민춘자 박미경 박미연 박수성 백순희 서정희 서채현 이전희 장정임 전복윤 정길자 정종일 최금옥 최종필 최현백 최희진

화장유언 서약(433)

▲통도사 옥련암=도언(통도사) 도응 법선(옥련암) 보성(보승사) 성월 영로(통도사) 정각(문수사) 진철(통도사) 청명(통도사) 청일 청호(동해사) 태민(부산 대흥사) 태영 현운(부처님절) 현초(통도사) 효산(통도사) 강대훈 강소금 강정희 강현숙 고석진 고영상 구옥선 권병훈 권양수 김광석 김근수 김기산 김동욱 김말기 김미옥 김미화 김복선 김부경 김분술 김석장 김성룡 김순녀 김순녀 김순자 김영분 김영준 김우숙 김원태 김윤숙 김을년 김인란 김정미 김정희 김종수 김치관 김타관 김탄임 김태숙 김향덕 김현수 김혜인 김홍숙 김휴호 남인양 남정자 문 경 문정순 민외조 박병우 박복순 박순부 박영진 박은아 박정명 박정자 박지원 박찬현 박창숙 박한주 반인순 배연이 백순희 서경애 손선남 손행련 송옥순 송준영 신매선 신윤희 심옥자 안명희 안상남 양은지 양정미 양태영 양황자 양효명 오동희 오상환 오윤기 우영숙 윤영복 윤영일 윤종배 이경출 이남진 이두순 이득자 이민정 이봉열 이봉중 이상강 이상민 이선덕화 이세경 이순직 이승학 이신자 이옥선 이원심 이정근 이종관 이주홍 이진숙 이진호 이춘남 이태순 이화심 임길례 임말연 임병관 임인기 전명숙 전수연 전정하 정경숙 정경아 정대현의 조무량득 조밀순 조인자 조정숙 조창국 주언정 주인태 지은아 진여성 차선아 차현주 최귀옥 최대근 최소광 최영관 최영덕 최영민 최정윤 최희진 하형임 한현숙 허도익 현미경 홍영준

▲승가사=김만준 김옥연 김은혜 김인경 김정각심 김정숙 남궁원 문혜숙 박선미 박수성 박은주 박일주 박정민 박찬호 손봉식 송세덕 신영애 신종연 윤성자 윤재철 이무탁 이반야행 이봉순 이선희 이수연 이은주 임병안 임송월 임은덕 전수진 정길자 정옥채 정옥경 조현휘 최종필 최희진 한성희 백순희 최금옥 서정희 강순남 최현백 전복윤 서채현 장정임 정종일 박미경 강병일 고광철 고영주 고인숙 고준자 구은미 권오숭 김강영 김기관 김기오 김명노 김묘순 김미수 김미숙 김선자 김성희 김애경 김영식 김옥화 김재분 김정중 김정희 김준서 김택주 김형년 김홍민 민미자 박계자 박동순 박상현 박성태 박세록 박소현 박순찬 박일헌 박진현 배금자 서금주 서재표 석정환 설정덕 소행연 손동대 송화자 신석규 신용철 신인숙 안기철 안진우 양영단 오강석 오용석 오진석 우계숙 윤미화 윤준호 이숙 이강우 이경아 이동운 이상철 이영례 이완희 이재혁 이정숙 이정숙 이정옥 이충규 이태진 이형순 인성호 임순희 임옥선 장경화 장성민 전오희 전정열 정선주 정세광 정순자 정윤성 정종배 정하건 조경식 조기순 조수진 조윤석 조일용 조진현 주기원 최병대 최순자 최정분 최정숙 최지현 최현희 피성철 한금자 허남영 홍영기 황세진 황영숙 김병구 류청 조경희 김영숙 이숙희 노영숙 이명례 송기섭 박선영 박은선 김현미 백경숙 윤경철 이미자 박옥남 류혜영 박장수 천승택 방영주 박성신 김동현 심상덕 김선민 노만기 정환수 최종광 허대현 황명금 민경부 조충권 강승완 백상희 최성철 한두영 권명희 박정자 신승철 임재만 장준환 장선희 김미성 김선주 전영남 정정환 노현길 김정화 송영진 김보경 전병국 조민환 이재희 전계환 김진천 권민 한양숙 박미란 이상숙 박성화 유중희 유영미 김종채 권경숙 김재연 송순영 송기석 남인철 유인배 김대중 이옥순 우정욱 이용생 최은주 정미경 서한길 김병현 김남순 이정옥 황현주 한경수 김문철 이춘성 홍지영 이명란 이해진 오갑순 김상욱 조명희 오완숙 권원식 김충식 김영미 장계옥 정호섭 백미연 신형철 최동혁 권귀순 김경현 임경화 김무선 이소희 김재우 강윤정 조명림 이건준 김상호 서현정 류강렬 조규영 박현진 안철현 오복자 김은경 김정수 주선욱 김철현 김옥희 유종숙 서흥식 류재목 김현정 심재화 김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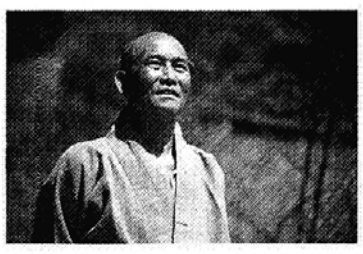
(사)생명나눔실천회는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서약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02)734-805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 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A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예정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화제의 신간

해서 명리진평

혜서 신명리진평은 자평서(子平書), 적천수(適天殊), 궁통보감(窮通寶鑑), 명리정종(命理正宗), 잡론구결(雜論口訣), 추명가(推命歌)등 고서(古書) 전부를 하나로 묶어 알기쉽게 완성시켰습니다.

▸▸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이책을 출간하기 위해 필자는 오랜 연구노력끝에 5년간에 걸쳐 완성시켰습니다. 우리의 역학발전에 꼭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혜서 조 영 수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 서점 판매중 ※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우리말 21C 최신판 대운만세력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여는 사람은 세월(철)을 알고 행해야 한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쓰기와 한글표기를 중심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새로 만들었습니다.



혜서 조 영 수 지음
4×6배판/ 값 15,000원
신국판/ 값 3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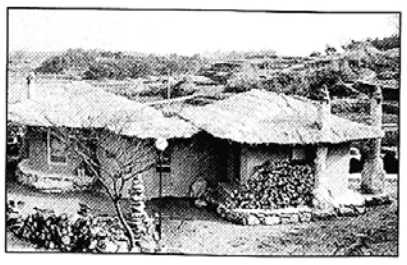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9000원(大)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택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명리학과 오운육기론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택만 편저/정가 25,000원(大)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임 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大)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祥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무박사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무박사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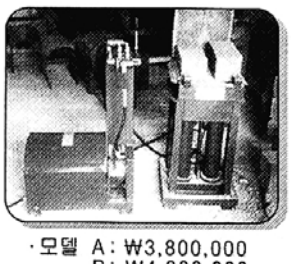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관음출판사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 부다피아(http://mall.buddhapia.co.kr)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부다피아 쇼핑몰 신정
여름 기획 상품 특판전

부다피아 티셔츠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나팔

- 재질 순면 100% (20수)
- 색상 흰색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 ₩7,000

1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 부다피아가 8월 6일부터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불자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빠른 서비스 고급화된 매장, 부담 없는 가격을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에서 만나십시오.
아울러 고객 여러분들의 보다 쉽고 빠른 접속을 위해
새로운 도메인 주소인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로도
동시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 서비스, 고객중심 매장 서비스 및
저렴한 가격의 마하몰은 생활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갈 것입니다.

(마하(摩訶)는 범어 maha의 음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크다는 뜻과
많다, 초월한다, 신묘하다는 뜻으로 경전의 이름이나 불교용어의
앞에 붙어서 그 의미를 확대 해주는, 불자들에게 친숙한 불교용어 입니다.)

달마도 순금판 액자

신상품





■ 가격 : ₩120,000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증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카드(99.9%) 위에서 느껴보세요
개인소지 벽걸이용,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27cm X 32cm
순금판크기 10cm X 15cm
실용신안등록 No 24266 호

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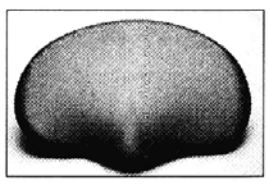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식물의 감촉 · 스님 요식체 · 불자들의 경전읽기 · 자녀들의 학습

- 크기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재질 ASH(느릅나무)원전칠옥
- 가격 : ₩85,000

참선 명상 방석



국내최초 인체공학적 설계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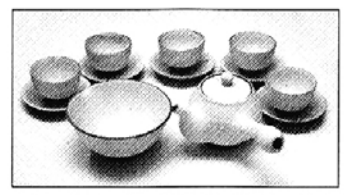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약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제품의 특징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있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진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처는 사찰, 신행단체, 선방, 심신 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

■ 크기 39×43(cm) ■ 가격 : ₩27,000

고산다기



고산 이규초 선생은 임진란때 일본으로 강제납치 되었던 조선도공 팔산의 혼을 사백여년만에 한국에 되돌려온 도예가이다 팔산의 십일대손인 고촤정신신생이 그 조선전래 비장의 도예술인 그 불꽃을 조국에 되돌리고자 한국의 도예특기자를 전국의 수많은 지망생 중에서 선발하여 일본으로 데려가 그 문하에서 5년간 기법을 연마시켰던바 그 수제자가 이규초 선생이다.

이리하여 이규초 선생은 그 도예진수를 발휘하여 국내외 전시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내고 있으며 따라서 고산 이규초선생은 일본살산기의 예술혼의 불꽃을 현해탄을 건너 고국에 옮겨놓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역사를 지닌 고산요(高山窯)에서 만들어 진 다기이다

■ 가격 : ₩120,000

찻상



- 크기 52×38×8(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찻상 정반
- 제작기법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수공예품

■ 가격 : ₩54,000

다기함



- 크기 50×39×19(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다기 보관함
- 제작기법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수공예품

■ 가격 : ₩126,000

옥베개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개란?
東醫寶鑑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잣나무 함에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에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청명해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침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젊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피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만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명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하거나 걸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사가 필요하신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분 코걸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 가격 : ₩30,000(1개), ₩56,000(2개 한세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브론즈 코팅형



개금형



골동품형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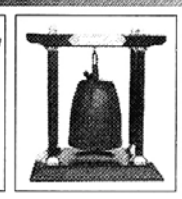
- 재질 100% 청동
-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크기 40.5cm

■ 가격 : ₩350,000(코팅형,골동품형) ₩580,000(개금형)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대 ₩63,000(11×25cm)
중 ₩47,000(8×16cm)
소 ₩31,000(6×13cm)



대 ₩219,000(15.5×25cm)
중 ₩89,000(10.5×16cm)
소 ₩29,000(9×13cm)



대 ₩37,000(11.5×18.5cm)
중 ₩25,000(8.5×14.5cm)
소 ₩17,000(6×10cm)

신라의 미 하면 가장 먼저 성덕대왕신종. 속칭은 에밀레종을 연상하게된다 봉덕사 선덕대왕신종 은 구경(口徑) 2.227mm, 전고(全高) 3663mm, 두께 203mm, 음통고(音筒高)648mm의 거종으로서 종체의 규모에 있어서나, 영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최상 최우수 걸작품이며 종양의 장중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기의 명종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유산을 재현하여 100% 청동과 100% 수공작업으로 만들었다

상진주 호신 메달

상진주(像進珠) 란?
조개속에 미리 새겨진 백을 삽입하여 수년간 양식 과정을 거쳐 그 상(像)대로 형성 되어진 진주입니다. 상(像)은 인위적인 가공없이 자연 색상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니며 성공율 30%로 희소가치가 큰 보석입니다.



상품명 엄툰 호신불제일
판매가 ₩241,200
재 질 금18K 약1.2돈
상진주



상품명 진미래 호신불제일
판매가 ₩268,200
재 질 금18K 약1.5돈
상진주



상품명 미래나 호신불제일
판매가 ₩165,600
재 질 금18K 약1.0돈
상진주



상품명 12연기 호신불제일
판매가 ₩199,800
재 질 금18K 약1.6돈
상진주



상품명 연토 호신불제일
판매가 ₩159,600
재 질 금18K 약1.6돈
상진주



상품명 거북 호신불제일
판매가 ₩134,000
재 질 금18K 약0.5돈
상진주

반야 불교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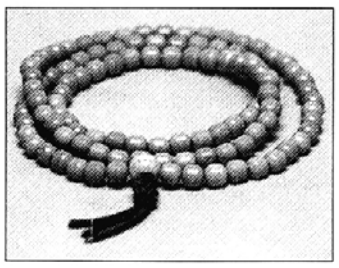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육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斬力)
강력(强力), 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훈법력(訓法力)
항마력(降魔力)

■ 재질 금큐빅(18k,14k-1.5돈) ■ 가격 : ₩130,000(18k), ₩120,000(14k) ■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리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여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 가격 : ₩35,000

쑥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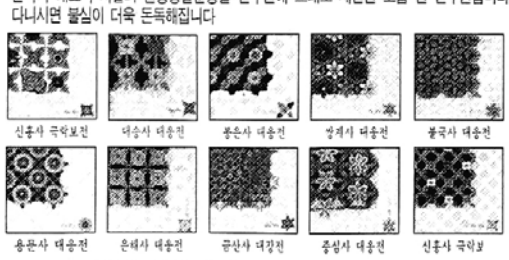
■ 가격 : ₩55,000
(1달분 1통 (1500정))
■ 가격 : ₩80,000
(2달분 2통 (3000정))

3년 숙성시킨 강화사자발쑥 쑥 환 으로 드십시오 !

사자발 쑥 환이 좋은 3가지 이유
1 복용과 휴대가 매우 편리합니다
강화사자발쑥 환은 기존의 환제품과는 달리 쑥 특유의 쓴 맛을 꺼려하는 남.녀 . 노소 특히 어린이도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휴대나 보관도 매우 편리합니다.
2. 효과가 빠릅니다
쑥 환이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저녁 과식후 속이 더부룩 할 때 20환 정도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 속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쑥 100%입니다
사자발쑥 환은 순수 강화사자발쑥 100%로 고품질의 강화도 특산품입니다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쑥 환 제품중에는 쑥을 당이지도 않고 분쇄후 물하고 섞어서 환으로 만든 제품도 있는데 주의 바랍니다.)

불교전통 창살문양 손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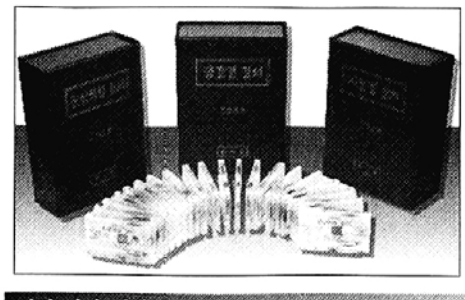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 재질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5,000

다림 주문시 환인하여 드립니다

무비스님 특강 녹음 테잎



무비스님의 경전 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비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환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지장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 20개 ₩45,000

향적원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찌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108진주 팔찌

신상품



천연 진주를 이용하여
만든 팔찌 제품 특상상
고품위를 더하기 위하여 양쪽 끝은
칼라색상의 둘로 마무리 하였다. 손목의 크기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하였다.

- 108 진주 팔찌(세트- 진주 104개 칼라스톤 4개)
  가격 : 40,000
- 108 진주 팔찌 (날개 - 진주 52개 칼라스톤 2개)
  가격 : 22,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 가격 : ₩70,000(가방포함)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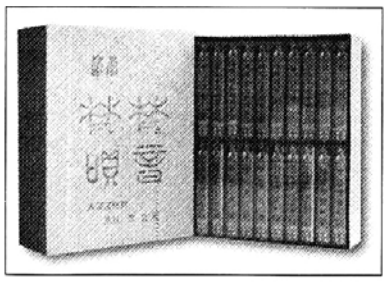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인가?
- 체질이란 무엇인가?
-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사상의학이란?
- 체질 감별법
- 자신의 외모,심성 범증으로 체질 진단
- 체질병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 체중조절에 도움이되는 보약
-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
- 과일,해물,차등
- 건강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문구암스님 법음 · 범패집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테이프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관욕의식 등 분야별로 녹음되어습니다.

1.불공의식 2.심신이운 3.신장청 · 소주권공 4.상단청 5.상단권공 · 거목 6.대령 · 관욕의식 7.대령 · 관욕의식 II 8.대령 · 관욕의식 III 9.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영신작법 I 11.영산작법 II 12.영산작법 III 13.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지장권공 II 16.전시식 17.배송 18.운신게 19.법사이운 · 명전점안 20.종성 · 천수작법 · 요잡

■ 가격 : ₩60,000

아이디어 건강 칫솔 (어린이 선물용)

신상품



■ 가격 : ₩3,900

치약을 내장 시킬수 있는 칫솔로써 칫솔과 치약이 분리되는 데서 오는 불편함(치약을 떨어 뜨리거나, 과다사용)을 말끔히 해소시킨 아이디어 상품

제품의 특징
1.미국 듀폰 타이넥스사의 부드러운 양질의 모를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을 보호
2.치약 1회 주입으로 12~15회 사용
3.치약 떨어 뜨림, 과다사용 방지
4.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양치 습관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줌

사용방법
· 피스톤을 분리 후 칫솔 몸통을 쥐고 치약을 짜 넣습니다.
· 필요에 따라 적정양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선물용으로 다림 주문시 환인하여 드립니다

실용신안 제18263호 / 의장 제16339호 / 상표 제28424호

법성게 걸망



법성게는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7언 30구(210자)로 압축 요약하면서도 그 심오한 진리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의상스님이 저술 하였다.
이러한 법성게를 걸망에 디자인 하여 만든 제품이다. 스님 및 일반신도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걸망 옆에 지퍼를 이용 사용 자가 편리하게 물건을 넣고 뺄 수 있게 하였다.

- 크기 500×460(mm)
- 색상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 가격 : ₩15,000

법회안내

4일 조계사 백중법회



무진장스님(동산반야회 법주)8월 4일 오전 10시 조계사 백중맞이 초청법회. (02)720-1390

대구 삼보사서 법문



근일스님(영주 부석사 주지) 8월11일 오전 10시 대구 삼보사 초청법회. (053)738-5220

무불선원서 참선실수

효성스님(무불선원 원장)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무불선원 참선실수법회. (02)541-0002

금하선원 정기법회

청암스님(금하선원 원장)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보름법회. (02)823-9135

삼보여름불교대 특강

이항녕박사(전 홍익대 총장)8월 1일, 8일 오전 10시 대한불교삼보회 삼보여름불교대학 '불교의 현대적 이해' 강좌. (02)913-2859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7월28일 (수)

■ 봉선사 여름 선수련회=봉선사 여름 선수련회가 31일까지 청풍루 교육장에서 열린다. (0346)527-1955

7월29일 (목)

■ 일본문화와 백제문화 유적답사=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는 8월 2일까지 일본문화와 백제문화 유적답사 및 체험을 떠난다. (032)583-1318

7월30일 (금)

■ 금산사 여름 수련회=금산사는 8월 2일까지 일반인을 위한 여름 수련회를 연다. (0658)548-4440

■ 우리는선우 청소년 문화캠프=우리는선우가 주최하는 '우리들의 열정'청소년 문화캠프가 8월 2일까지 경북 서악사, 봉정사 등지에서 열린다. (02)2278-8672

"아빠 엄마와 함께 마음닦아요"

선암사 8월6~9일 첫 가족수련법회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인곡)는 8월6~9일 3박4일 일정으로 제1회 여름불교 가족수련법회를 개최한다.

태고종 보현도량(회장 법성)이 주최하는 이번 수련회는 어린이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에서 맛볼 수 없는 가족간의 유대와 불심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련회는 청소년반과 성인반으로 나뉘어 강의, 수행,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된다. 청소년반은 사찰예절, 부처님의 생애, 불교를 왜 믿어야 하나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참선자세, 호흡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명상의 시간, 사찰구조와 전통미술을 배우고 익히는 불교미술체험, 찬불가 율동 교리퀴즈게임, 반야심경 사경대회, 캠프화이어 등의 프로그램이, 성인반은 불교와 생활 등의 강의와 참선실수, 찬불가 강습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02)445-4543, (02)303-1106

7월31일 (토)

■ 백련사·대둔사·보길도 답사기행=답사여행의길잡이 터사랑은 1일까지 백련사와 대둔사, 보길도, 동천석실을 돌아보는 답사기행을 떠난다. (02)725-1284

■ 대구구도회 하계 수련대회=8월 3일까지 전북 부안 내소사에서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53)256-8589

8월1일 (일)

■ 금강메아리 북한산 사찰순례=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북한산 노적사, 원효사, 태고사 등지로 8월 산행법회를 떠난다. 3호선 구파발역에서 오전 9시 출발한다. (02)772-9517 윤부윤

8월2일 (월)



◇지난해 건봉사에서 열린 제1차 염불성지대회.

■ 염불만일회 건봉사 성지대회=전국염불만일회는 4일까지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제2차 염불성지대회를 연다. (02)732-1215

■ 강남포교원 학생회 수련회=강남포교원 학생회 수련회가 6일까지 북한산에서 열린다. (02)539-2631

8월3일 (화)

■ 개심사 및 마애삼존불상 참배=용진신행회는 오전 6시 30분 해미 상왕산 개심사와 서산 마애삼존불상 참배를 떠난다. (02)2279-1191

8월4일 (수)

■ 7일 용맹정진=우리는선우 전북지부에서는 선우회원들과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7일 용맹정진 수련회를 개최한다. 4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오후 7시30분~9시 전주 전북불교회관 3층 시민선방. 016-652-8892

게 시 판

알림

▲무료법률상담=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2일~13일까지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02)2282-1108

▲무료가족영화상영=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30일 오후 8시 복지관 주차장에서 무료가족영화 '돌아온 짱구'를 상영한다. (02)817-8052

▲무료 가사보조원 교육=덕유사회복지관은 8월 2일부터 27일까지 매우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 여성실업자 및 주부를 대상으로 무료 가사보조원(파출) 교육을 실시한다. 선착순 접수. (032)325-2161

강좌

▲대원불교문화원 강좌=한국불교대원회가 대원불교문화원을 개설하고, 8월 1일부터 제1기 강좌를 진행한다. 영어회화, 영문법 교실, 노래사랑 교실, 발지압 강좌, 생활역학 강좌 등을 비롯 무료 한문교실, 무료 삼능침 시술강의를 연다. (02)773-9173

▲시민문화강좌=전북불교회관은 수지침, 건강기공, 메이크업, 참선교실, 논술지도, 한문교실, 생활영어 등 시민문화강좌를 개설했다. 8월까지 진행한다. (0652)251-4942

▲중학생 자기표현훈련=목동청소년회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중학생들이 생활속에서 적절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표현훈련을 실시한다. (02)646-8341

▲무료 선체조=능인선원에서는 매주 월, 화, 목, 금, 토요일 오전 11시30분 무료 선체조 강좌를 실시한다. 장소는 서초동 서초법당. (02)3462-8411

▲모형항공기 만들기=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모형항공기 만들기를 지도한다. 로켓을 만드는 것에서 발사하는 단계까지 과학적 사고능력과 창의력을 개발한다. (02)852-0525

▲기초교리반=광륵사는 제3기 기초교리반을 연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불교 기초교리 및 사찰예절을 지도한다. (062)222-7801

▲흙사랑 도예교실=법동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과 3시 2회에 걸쳐 정서함양을 위한 흙사랑 도예교실을 연다. (042)633-1141

▲금정불교대학=범어사 금정불교대학에서는 교리반과 경전반 주야간 과정을 마련했다. 불교기초교리와 〈금강경〉, 〈육조단경〉 등을 지도한다. (051)866-7277

▲주부교양프로그램=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커텐침구소품반, 홈패션, 양재, 생활한복, 아이옷만들기, 가족머리손질, 주부컴퓨터반 등 주부 및 일반인을 위한 교양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51)265-9471

▲직장인 야간강좌=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한식조리사자격증반, 제과제빵사자격증반 등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를 개설했다 3개월 과정이다. (02)2281-1108

▲청소년 영어·수학교실=덕유사회복지관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공통수학과 영어를 지도한다. 영어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수학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032)325-2161

모집

▲총무과 여직원=덕유사회복지관은 총무과에서 근무할 여직원을 구한다. pc사용과 운전면허소지자여야 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한다. (032)326-0502

▲능인불교대학 수강생=능인불교대학이 제28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기초교리, 불교의 본질, 비교종교학, 불교의식 등을 4개월에 걸쳐 지도한다. 9월 개강. (02)577-5800

▲무료급식 자원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조리 및 배식 활동을 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52-0525

▲은평주간보호소 이용자=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이상 경증치매자나 중풍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은평 주간보호소 이용자를 모집한다. (02)385-1351

▲이동목욕봉사자·후원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이동목욕 봉사에 동참할 봉사자와 후원자를 기다린다. 봉사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중 가능한 시간에, 후원은 각종 생활용품을 지원하면 된다. (02)852-0525

▲좋은이웃 111후원자 캠페인=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좋은이웃 111캠페인에 동참해 극빈장애인을 정기적으로 도와줄 후원자를 기다린다. (02)989-4215

종 단 소 식

조계종

고운사 본말사 주지간담회

의성 고운사(주지 법조)는 16일 안동 석수암에서 본말사 주지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동호 안동시장과 박창엽 안동경찰서장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경북 북부지방의 불교문화재를 홍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태고종

백련사 한문서당 개설

서울 백련사(주지 월해)는 8월 19일까지 방학을 맞은 인근지역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7회 한문서당을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이번 강의에서 초등학생들은 구암스님으로부터 '사자소학'을, 중 고등학생들은 정우스님으로부터 '명심보감'을 통해 한문을 익히고 있다.

천태종

상월 대조사기 배구대회

제26회 상월원각 대조사기 전국 청년회 배구대회가 15일 오전 8시 단양군 영춘면 영춘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배구대회는 9인조 극동식으로 각 지역 청년회가 단일팀으로 출전하고 배구외에도 줄다리기, 단축마라톤, 릴레이, 씨름 팔씨름, 족구 등이 펼쳐진다.

진각종

종단이미지 통일화작업

종단의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담당하게 될 업체로 '그리고디자인하우스(대표 박상현)'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그리고디자인하우스는 종단 CIP작업에 필요한 기본조사및 분석을 이달중에 마무리짓고 8~9월에는 심벌마크 연구와 기본 디자인 연구 등 기본 시스템연구를, 10~11월에는 서식, 표찰, 깃발, 이벤트류 등을 집중 연구 개발해 12월중 완성하게 된다.

대한법화종

제주 광파종무원장 취임

제주교구 전임 강일조 종무원장 이임 및 신임 문광과 종무원장 취임식이 31일 정오 제주시 일도2동 본문사 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제주교구신도회는 9일 본문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에 김종휘씨, 부회장에 김성필 전음송 유원주 강충하씨 등을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새로 개편했다.

임제종

총무원장 혜공스님 취임



제3대 총무원장에 박혜공스님(사진·서울 불국사)이 취임했다. 광화문 총무원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혜공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임제종의 정통법맥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종단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무부장에는 혜철스님 교무부장에는 혜법스님 재무부장에는 법화스님 사회부장에는 정현스님 사정부장에는 혜명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도량석·예불체험 연수

백덕산 관음사(주지 강암)는 새벽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및 사시 불공을 직접 체험하여 실참실수할 수 있도록 스님과 법사 및 관심있는 일반불자들을 대상으로 도량석 종성 예불 사시불공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은 3박4일 또는 6박7일. (0373)374-9936~7

총지종

어린이·고교생 수련법회

제5회 어린이·고등학생 수련법회를 28~31일 충북 괴산 총지종수련장에서 개최한다. '자연아! 놀자, 환경을 지키자'를 주제로 2박3일동안 진행되는 이번 법회는 특히 고등학생들이 어린이 수련법회의 지도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02)552-1080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스님 재선



중앙종회는 9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종회를 열고 제11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인 혜정스님(사진)을 재선임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久服卽輕身耐老 延年不老) - 동의보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9시 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의 보도("**오가피 알고봤더니 金가피**")에 다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가 담긴 오가피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 추출액, 오가피 열매 발효액, 오가피 묘목
▮ 주소: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0333-682-5033/4
▮ 인터넷 홈페이지:http://myhome.netsgo.com/baeghj/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강의



설법방법 · 교수기법 · 실기훈련

說法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성격 좋고 화술이 능해야 합니다.
○이론과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격, 가치관의 체계확립
○자료의 재구성 능력확보
○설법, 강의, 강연, 화술, 사회, 회의진행
○음성, 태도, 수사(修辭) 원고작성, 상담기법등

■ 연 수 안 내 ■
▶ 기 간 : 2개월 과정
▶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접수
▶ 사후관리 : 정회원 대우(매달 1회 모임)
▶ 장 소 : 본연수원 강의실
▶ 지도교수 : 金 哲 會 박사

♣문의 및 신청♣
☎ 02)737-1567 / 725-1357
FAX (02)737-8725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립고 지겹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율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에 한맺힌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업.
◆ 장궤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청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차돌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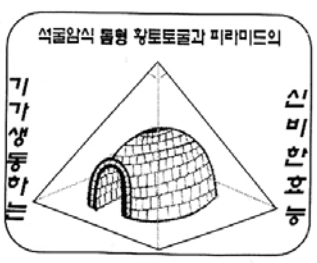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라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황토 집(토굴)

나무 장작과 구들방, 그리고 황토 외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과 일체가 되는 살아 숨쉬는 황토 집을 짓겠습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집(토굴)
● 자연식품+한약재 배합
● 황토 미장 특허
● 돔형 토굴체험 황토 벽돌 공장 견학
● 황토 사랑 모임회 월 1회 개최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 017)566-9969

"도시에 숲 만들어 새·곤충 살게하자"

'맑고향기' 생태섬 사업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스님)가 94년 설립시부터 추진해온 '꽃씨 나누기' 사업이 '우리 꽃심기', '생태섬 만들기' 사업으로 확대 전개된다.

'생태섬 만들기'는 도시에 우리 꽃과 나무가 우거진 작은 숲을 만들어 새와 곤충이 함께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환경운동. 이와 관련 맑고향기롭게는 행정자치부로부터 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등 전부 1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생태섬은 구청 등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장소를 선정,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맑고향기롭게는 길상사를 생태섬 만들기의 첫 시험지로 사업을 벌인다. 지난해 이미 길상사에 꽃잔디동산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 원추리 할미꽃 능소화 영춘화 모란 작약 등을 심어 놓고 있다. 원하는 사람에게는 분양도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생태섬 만들기에 앞서 맑고향기롭게는 8월8일 서울과 대구에서 시민들에게 꽃묘목 1만 본을 무료로 나눠주는 '꽃나누기 행사'를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라구절초와 둥근잎꿩의비름 등 2종의 우리 야생화 묘목을 나눠줄 예정이다. 묘목을 받은 시민들은 꽃을 재배해 가을에 씨를 받고 그 일부를 맑고향기롭게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생태섬 만들기'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시민들로부터 돌려받은 씨앗은 내년 꽃나누기 행사에 쓰일 묘목의 종자로 재배된다. 이외에도 꽃구입비 등 재정후원과 꽃돌보기 등 봉사후원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맑고향기롭게는 해·꽃·사(해마다 꽃을 심는 사람들)를 만들 계획이다. 또 월 1회 매립 쓰레기 캐내기, 야생화 씨 뿌려주기, 겨울철 동물·조류 먹이주기 등의 행사도 꾸준히 전개해 나간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印에 첫 한국불교병원 세운다

JTS 18일 보드가야 근교서 기공식
2층규모 내년완공…1만명 이용 예상



◇7월 18일 인도 비하르주 보드가야 근교 둥게스와리에서 가진 '지이바카병원' 기공식.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 한국 불교종합병원이 최초로 건립, 불가촉천민 등 인도 하층민들에게 불심이 깃든 의료보시가 베풀어진다. 한국JTS(Join Together Society, 이사장 법륜스님)는 18일 인도 비하르주 가야시 서남쪽에 위치한 보드가야 근교 둥게스와리에서 불교종합병원 '지이바카병원'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법륜스님을 비롯 이지현 사무국장과 정토회 지도법사단 등 한국JTS 관계자들과 보드가야 마하보디소사이어티 스님, 가야시 의사 등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부처님 주치의 '지이바카'의 이름 딴 지이바카병원은 둥게스와리 전정각산 밑 대지 2천5백여 평, 건평 50여 평의 2층 규모로 건립된다. 병원에는 입원실과 약국, 대기실, 식당, 세탁실 등이 들어서며 내년 봄 완공될 예정이다.

병원이 세워질 둥게스와리 지역은 한국JTS가 보드가야의 수자타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사업 및 마을 개발사업을 벌여오고 있어 한국에도 잘 알려진 곳이다. JTS는 이곳 학교 건물 한칸을 활용, 95년부터 결핵환자와 피부병 이질, 외상환자 등을 치료해 오다 더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미비하고 낙후한 의료시설을 보완한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

병원이 건립되면 현재 하루 2시간씩 의료활동을 벌이고 있는 현지의 5명의 의사와 국내 자원봉사자 의료진에 의해 16개 마을 1만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JTS는 병원 건립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2천만원을 지원받는 등 올해만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건립 총 소요 경비는 2억여 원.

법륜스님은 "지이바카가 부처님을 치료했던 것처럼 지이바카 병원은 둥게스와리 지역 주민들을 치료해 갈 것"이라고 말하고, 병원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02)587-8995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표준 군법당 1호
호국 월문사 낙성

조계종 표준모델 군법당 1호인 육군 7포병여단 호국월문사가 21일 3개월여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1억5천만원의 공사비를 투입, 80평 규모로 건립된 호국월문사 낙성법회에는 증명법사인 봉선사 주지 밀운스님 이희용 군승단장을 비롯 서명상 7포병 여단장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새 법당의 탄생을 축하했다.

김재경 기자

31사단 군법당 기공

전남 광주시 육군 제31보병사단은 27일 오후 2시 부대내에서 이 지역 스님과 각급 기관장, 부대 지휘관 및 신도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법당 기공식을 갖는다.

지역 사찰 및 신도회로 구성된 31사단 군법당 추진위원회(위원장 천운·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의 후원으로 이뤄지는 군법당은 60평 규모의 법당과 40평의 요사채로, 개량한식 건물로 지어진다. 완공은 9월말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서울도심서 대국민 포교

진각종·선학원 함께
휴가철 시민안전 기원

대한불교진각종(통리원장 성초)과 재단법인 선학원(원장 성해)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31일과 8월 1일 이틀 동안 수도권 고속도로 톨케이트와 서울 중심가에서 휴가철 대국민 봉사활동과 포교활동을 벌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궁내동과 동서울 톨케이트를 비롯해 서울 명동과 종로, 대학로, 압구정동, 신촌 등 시내 중심가에서 진각종과 선학원의 자원봉사단이 포교용 홍보부채를 함께 나눠준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하루 20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것으로 집계돼 이번 행사는 불교포교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통도사 옥련암 10년불사 회향

대웅전·청소년 회관·무량수전등 낙성

통도사 옥련암(주지 법선)은 11일 대웅전인 '큰빛의 집'과 청소년회관, 현대식 식당, 요사채, 무량수전 등 88년부터 시작한 10년 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주지 월파스님, 안종길 양산시장을 비롯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법선스님은 "오늘의 불사 회향은 끝이 아닌 더 큰 보살행을 위한 시작"이라며 "청소년 회관, 대웅전 등을 대중의 문화공간, 수행도량으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련암은 이날 법회에 이어서 성명나눔캠페인과 문화공연을 열었다. 문화공연에서는 장사익씨의 노래공연과 목아박물관 박찬수 관장의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를 조각 시연이 있었다. 천미희 기자

국내거주 日할머니에
김희로씨, 위로금 전달

일본 당국에 의해 가석방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재일교포 무기수 김희로씨(71)가 최근 삼중스님(부산 자비사 주지)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할머니들에게 5만엔의 위로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후견인인 삼중스님은 "지난 5월 24일 구마모토 형무소를 방문할 당시 김씨가 자신에게 경주 나자레원에 사는 일본인 할머니들에게 전해달라며 성금 5만엔을 기탁했다"고 말하고 지난 13일 양로원에 대신 전달했다고 밝혔다.

"티벳에 환생 않겠다"

달라이라마 64회 생일맞아



티벳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그의 64회 생일을 맞아 "자신은 티벳에 다시 환생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국가에서 환생하게 될 것이다"고 발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인도의 신뢰언론사(Press Trust of India)를 인용, AP통신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환생의 목적은 전생에 미처 다 이루지 못하고 남겨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는 것.

오종욱 기자

불단설치 맨션 인기

日 젊은층 주문 늘어

최근 일본에 불단이 설치된 주문형 맨션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오이 그룹'이 7월 중순 주문형 맨션을 판매하면서 입주 희망자들 대상으로 가옥 구조와 시설에 관한 주문을 받은 결과 거실에 불단 설치를 주문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보도했다.

또 요미우리는 "지금까지 불단 주문형 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주로 노년층이었던데 반해 최근에는 젊은 신호부부층에까지 파급되고 있다"며 젊은이들 사이에 불교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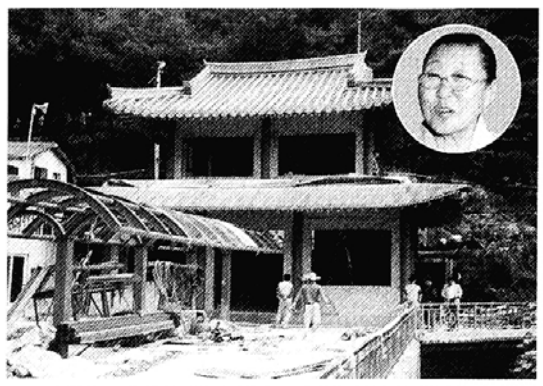
아바타크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워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우리절 불사 팔공산 약사암



◇선교종 팔공산 약사암의 3천불전은 사찰건축의 신가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원내는 약사암 주지 일여스님.

강철 소재 3천불전 조성

화재없고 내구성 강해
도자기로 된 불상 봉안

목재나 석재 혹은 철근콘크리트 대신 무도장(無塗裝) 내후성 강판과 스터드(STUD=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한 법당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 사찰건축의 신기원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불교 선교종 팔공산 약사암(주지 일여, 경북 경산시 와촌면)은 지난 1월 국내최초로 강판을 건축재료로 사용한 3천불전 공사에 착공, 오는 8월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교량이나 기념탑 등에 주로 사용되는 무도장 내후성 강판은 손으로 만져도 묻어나지 않는 나무색깔의 녹이 단단한 피막을 형성해 강판자체를 보호해주며 미관상으로도 우수한 건축소재로 평가된다.

스터드는 일반강판에 비해 내구성이 강해 세계철강협회에서 목재의 대체용으로 선정한 건축소재. 강판으로 지은 건물은 화재의 위험이 없고 견고한 특성을 가지는데 일본 고베지진때 그 효능을 입증한 바 있다. 또 두께에 비해 단열효과가 높고 습기에 강하며 사찰의 경우 단청이 잘 스며들어 차세대 사찰건축소재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암 3천불전은 (주)승우스틸하우스가 시공을 맡아 1층20평 2층10평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1층에는 식당이 2층에는 법당이 들어선다. 법당안에는 도자기로 조성된 3천불상이 봉안될 예정. 기둥과 보는 내후성강판으로, 벽체는 스터드로 시공하며 내부는 석고보드와 폴리에틸렌등의 보온단열재를 사용했으며 지붕에는 동기와를 얹었다.

일여스님은 "나무로 지은 산신각에 습기가 차 썩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강판건물은 관리가 쉬운데다 공사비도 저렴해 건립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사암은 3천불전 공사가 끝나는대로 연건평60평 3층규모의 대웅전을 내후성강판을 사용해 시공할 예정으로 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범어 청소년동네' 포교 본격화

초·중학생 1천5백명 여름캠프 실시

올해 3월 범어사(주지 성오)가 설립한 청소년법인 '범어 청소년동네(이사장 성오스님)'가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5일~27일 경남 밀양일대에서 중학생 1천여명을 대상으로 연 여름캠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범어 청소년동네'는 31일부터 2박 3일동안 범어사에서 초등학생 5백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학교를 개최한다.

또한 앞으로 장학금 지급,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비롯한 청소년대상 포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범어사안에 사무실을 두고있는 '범어청소년동네'는 보다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올 하반기 부산 진구 양정동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천미희 기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진달래

누구에게 보이려
꽃망울 꽃을 피웠나

곱디고운 모습으로
함박 웃음 머금고

분홍빛 드리운
솜털 구름위로

그대 그리워 바라보며
분홍빛 가슴으로

얼굴 묻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 드 폰 : 018-277-5592

삼광법사(三廣法師) 맹이청은 귀 포교원을 개원하여 귀
모든 부자님들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보전에 귀의하고 싶은 분 ※불사에 도움을 주고 싶은분
※불사에 동참하고 싶은 분 ※불교 연구를 함께하고 싶은 분

삼광법사 맹이청은…

♣ 오랫동안 역학을 연구하다가 만유음양(萬類陰陽)을 발견하여 1979~1983년까지 종로6가 벽제약국뒤 금용빌딩에서 1984년~1987년까지 여의도 제일빌딩에서 "동서양 자연철학 한구산아조절연구원"을 개원 세계최초로 "아들""딸"을 임의대로 임신가능함을 연구발표해 세인의 화제거리가 된바 있습니다.
♣ 사업문제, 진학문제, 결혼문제, 궁합, 택일, 이사, 길흉, 화복
♣ 신생아 작명, 개명, 해명, 평가 등. 인생문제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특히 가족계획을 꼭 하고 싶거나 실패하신 분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결혼상담소 개원

※초혼·재혼으로 고민하시는 분 또는 자녀들의 「혼사」문제로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위하여 평생을 배필을 찾아주기 위하여 무료로 상담소를 개원하였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이합, 3합, 상,충,파,해를 가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양철학, 점성학, 성명학, 서예(서도)및 불교를 연구하고 싶은 불제자 또는 불모살님을 몇분 모시고 싶습니다.

☎ 844-2124, 834-9491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13번지 대광빌딩 4층
불 심 도 원 (약사사)

수 맥 탐 사

건강하고 복을 받으려면
수맥을 피해 잠을 자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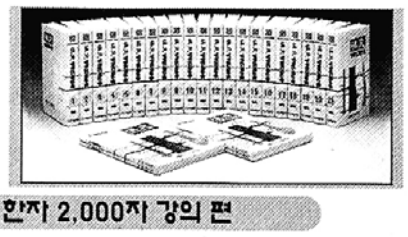
아래의 경우에는 수맥파에 의해 나타나는 피해 증상입니다.
1. 장기간 수행으로 인하여 관절염, 근육통, 요통, 우울증, 탈진 상태로 심히 고생하시는 수행자.
2. 잠을 자고 나도 피로 회복이 안되고 몸이 무겁고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흉몽을 자주 꾼다.)
3. 우울증이 생기며 대인 공포증이 생길 때.
4. 질병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 하여도 효과가 없을 때.
5. 노력해도 수업능률이 오르지 않고 주위가 산만해지며 정신집중을 못하고 쉬 피로를 느끼며 신경질 적인 학생에게.
6. 오십견, 관절염, 신경통, 편두통, 요통등 증세가 생길 때.

수맥을 정확하게 탐사하여
수맥 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수맥을 진단하여 수맥 파 차단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2. 수맥 파를 차단하고 중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드립니다.
3. 수맥 파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원기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금 강 수 맥 원
송파구 거여1동 135-67(201호)
(02)400-6190
017)332-5019, 011)711-6190

한자(漢字)는 현실입니다.
"불경(佛經)공부, 그 어려움은 오로지 한문 때문에…"



한자 2,000자 강의 편
기본 부수 214자를 중점 강의하였으며 교육부 지정 한자 1,800자에 실용한자 200자를 덧붙여 총 2,000자를 그림과 함께 그 유래와 쓰임새를 알기 쉽게 강의
(비디오테이프 2시간용 20개·교재 2권)

한문문법/고사성어 강의 편
한문불경이나 고전 공부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한문문법을 허자 중심으로 총정리하여 한시, 고전 등의 풍부한 예문과 함께 강의하였으며, 고사성어 80여 문구까지 강의
(비디오테이프 2시간용 3개·교재 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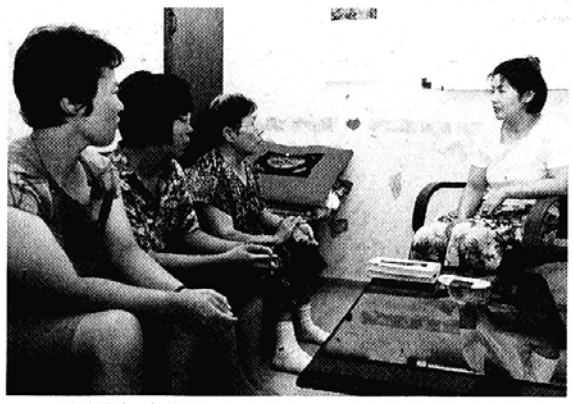
비디오로 한문 특수 암기 비법을 직접 재미있게 배운다!
이래현 선생님의 한문 강의 비디오 교재

문의처 : 학산 출판사 02)516-7500(代)

교계 여성실직노숙자 쉼터

화엄동산 본동 희망의집

"희망의 공간으로"



◇여성실직노숙자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으로 여성실직노숙자 쉼터들의 운영이 어렵다. 교계 쉼터 두곳중 한 곳인 '화엄동산'에서 상담하고 있는 여성실직노숙자들.

IMF구제금융체제에 돌입한지 1년 8개월. 경제는 점점 회복되고 있다지만 가정과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실직노숙자들은 여전히 많은 숫자다. 특히 여성노숙자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기를 다질 마땅한 지원기관이 그리 많지않은 형편이다. 이같은 사회적 무관심속에서 여성실직노숙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는 교계 여성실직노숙자 쉼터 두곳이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꿋꿋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교계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우리는선우가 목동에 개설한 화엄동산(소장 김기혜)은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104명의 여성실직노숙자들이 거쳐갔고 현재 26명이 입소해 있다. IMF실직자, IMF가정붕괴자, 부랑인, 중국교포, 정신장애자, 신체장애자 등 여성의 전화, 서울역 상담소, 구청등을 통해 들어온 여성실직노숙자들이 자립때까지 공공근로와 일반 취업활동을 하며 이곳에서 생활을 한다. 화엄동산은 현재 운영중인 여성실직노숙자 쉼터 가운데 규모가 큰 편에 속하지만 정부지원금 월 130만원과 후원회비만으로 부식에서부터 속옷, 양말에 이르기까지 의식주와 건강을 챙기기는 역부족이다. (02)2642-1363

지난해 10월 19일 본동복지관내 문을 연 본동희망의 집도 이와 비슷하다. 현재 8명의 여성실직노숙자가 입소해 공공근로활동을 하며 재활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보조금 월 100만원으로는 단순한 보호소역할외에 재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힘겨운 실정이다. (02)817-8052

화엄동산 김기혜소장은 "여성실직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IMF 구제금융하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전체에 대한 문제"라면서 "여성실직노숙자 상담소, 의료지원 등 사회적 안전보호장치 마련등에 교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단군은 건국의 상징"

KCRP 성명서 채택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고산)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고문·회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단군상 훼손사건에 대한 종교지도자 성명서'를 채택하고 "단군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라며 "신앙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다른 신앙과 신념에 대해 관대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성명을 통해 "단군상 훼손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이웃종교들간의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동노력을 펼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정부당국에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뉴스 & 뉴스

JTS 청소년 심성수련회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청소년사업부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성장의 길로'를 주제로 실직가정과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심성수련회를 연다. 실직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수련회는 8월 2일~6일까지,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심성수련회는 8월 10일~13일까지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청소년과 부모, 선생님의 전화나 면담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02)587-8995 이은자 기자

'로터스 랜턴' 2호 발간

조계종의 영문소식지인 계간 '로터스 랜턴(Lotus Lantern)' 2호(여름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한국사찰의 여름안거를 특빚으로 꾸몄고,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또 종 목어 운판 법고 등 사물에 대한 설명, 구산스님의 법문을 실었다. 불교소식으로 봉축행사, 불교도 금강산 순례,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의 봉정사 방문, 조계사 외국인 안내센터 개설 등을 정리했다.

로터스 랜턴 2호는 5천부를 발행해 일본과 동남아의 주요 불교종단과 미국과 유럽의 불교단체, 불교언론, 세계 주요대학 도서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주한외국대사관과 문화원 등에 배포한다. 정성운 기자

청각장애인 수련대회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원장 해성)은 8월1일부터 4일까지 3박4일간 상주 남장사에서 청각장애인 불자회 여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청각장애인 35명과 자원봉사자 등 모두 5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수화노래 배우기, 반야심경 사경 및 부처님 그리기, 염주 만들기, 불교 교리공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부산BBS 류사장 유임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사장에 류진수씨, 운영위원장에 성오스님(범어사 주지)을 만장일치로 유임시켰다. 운영부위원장에는 삼성건설 대표 정종욱씨가 새로 선임됐고 본부장에는 박순곤씨가 유임됐다. 현미희 기자

명신스님 횡령혐의 구속

강원도 양양 보리수마을 前대표이사인 명신스님과 당시 법인관리실장 허진씨가 지난달 26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또 10일에는 2대 대표였던 최교영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따르면 명신스님과 허씨 등은 보리수마을 입주자 78명이 낸 보증금 43억원을 97년 8월 국민은행 삼성지점에 예치한 후 이중 1억여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한명우 기자

석남사 비구니 특별선원 추진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과 석남사 주지 영운스님, 석남사 수행환경보존 대책위원장 도문스님은 23일 조계종총무원을 방문해 석남사의 비구니 특별수행도량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은 중앙종회와 협의해 특별선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남사 앞 4백m 거리에 있는 상가부지(300평) 매입을 협상중인 가운데 석남사에서 업자에게 2억원을 제시했으나, 건설업자가 7억원을 요구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석남사는 상가부지 매입을 위해 '땅 1평 사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직지사앞 음식점 철회 요구

대책위, 김천시청 항의방문

직지사 일주문앞 음식점 신축 허가의 철회를 요구하는 직지사 스님과 신도들이 김천시청을 방문해 항의농성을 벌이는등 본격적인 철회운동에 나서고 있다.

직지사 본말사주지스님과 신행단체장 2백여명은 16일 직지사 설법전에서 본말사주지 긴급대책회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뒤 김천시청을 방문해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산문앞 유흥음식점 허가철회 △자연환경 및 민족문화유산 파괴행위 저지 등 3개항으로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직지사부주지 법등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졸속으로 건축법 제8조4항이 폐지되는 바람에 이러한 진통을 겪게됐다"면서 "전사법상 사찰경내지의 개념을 고치는 의원입법을 추진중"이라며 근본대책마련을 밝혔다.

한편 직지사는 △25일 봉암사 선방수좌 및 강원학인 총궐기대회 △8월28일 제17기 행자교육참가자 5백명의 20일간 참회정진궐기대회 △9월29일 대구경북5개본말사 주지스님 궐기대회 △10월11일 구족계산림불사 궐기대회 △10월25일 전국불교신도 합동총궐기대회 및 보살계수계대법회 등 단계적으로 철회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윤호 기자

대불청 20대 회장에 전안호씨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에 전안호씨(43·(주)대경철강 대표이사)가 당선됐다. 대불청은 18일 대전 중앙불교회관에서 제40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 이상대 회장의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 전안호씨를 제20대 중앙회장에 선출했다.<관련인터뷰 3면> 전씨는 대의원 1백14표 중 62표를 득표해 52표를 얻은 이상번씨를 10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따라 전씨는 내년 12월31일까지 이상대 전 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부회장을 비롯한 각 부차장 등 신임 집행부는 9월11일 대전 충무회관에서 열리는 불청대회에서 인준, 통과키로 합의했다. 한편 전안호씨와 문성열 경기지부장 등은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예방했다. 도필선 기자

풍경소리와 어우러진 선율

산사음악회 '황홀경'

갑 사 매주 일요일 음악공연
인취사 8월15일 백련시사
신흥사 10월2일 김영동음악회

바람이 연주하는 풍경소리와 중생이 연주하는 악기의 선율이 고즈넉한 산사에서 만나면 어떤 오케스트라가 꾸며질까.

녹음이 짙어져 가는 여름 산사에서 찬불가, 국악,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가 마련되고 있어 산사를 찾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 수려한 자연풍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산사 음악회는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한다는 기쁨외에 불법의 그윽한 향기까지 느낄 수 있어 더욱 감동이 배가된다.

4일부터 공주 갑사(주지 장곡)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승과속이 하나되는 갑사 열린 마당'이 마련된다. 월 1회 불교록그룹 '아미타'가 출연해 찬불가와 록음악을 관광객들과 등산객들에게 선사하고 15명으로 구성된 한울림국악원 악단이 찬불가와 민요, 사물놀이 등을 연주하는 흥겨운 무대다. (0416)857-8981

속초 신흥사(주지 도후)는 10월2일 '99 관광엑스포'의 일환으로 '김영동의 바람의 소리'를 공연한다. '초원' '산행' 등 기존 곡과 6월에 발표한 김영동의 신곡 '메아리' '노을' 등 20여곡이 연주될 신흥사 음악회에는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할 예정. 또 중간 중간에 삽입되는 코러스는 보컬그룹이 연주를 맡는다. (0392)636-7393

양산 통도사 옥련암(주지 법선)에서는 지난 11일 장사익씨의 노래와 풍물패 공연, 노름마치의 길놀이 등이 펼쳐졌으며 24일 진천 보탑사(주지 지광)에서는 이광수의 사물놀이와 판굿, 소프라노 정율스님의 독창, 대금산조 이수자 자연스님의 대금곡 등으로 풍성한 음악회가 열려 산사를 찾은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아산 인취사(주지 혜민)는 8월15일 '제6회 백련시사(白蓮詩社)'를 준비하고 있다. 하얀 연꽃이 만발한 5백여평의 연못가에서 국악인 신기종씨를 비롯 지역 출신의 국악인들이 사물놀이와 가야금 병창, 대금 등을 들려준다. (0418)542-6441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한글대장경 내년 313권 완간

21일 동국대역경원 35주년 기념법회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스님)이 개원 35주년을 맞아 21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월운스님은 "35년간 이어져 온 팔만대장경 역경사업은 온갖 역경을 딛고 해온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회향을 위해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65년 개원한 동국역경원은 〈장아함경〉을 시작으로 최근 〈불모대공장명왕경〉에 이르기까지 283권의 한문경전을 한글로 펴냈다. 앞으로 〈광홍명집〉 〈홍명집〉 〈다라니잡경〉 등 목록집 및 사전류 30권을 더 펴낸, 한글대장경 시리즈는 2000년 가을경 총 313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방화2동 어린이집 수탁

태고종, 2년간 운영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는 8일 구립 방화2동어린이집(강서구 방화동 616-20) 위탁운영체로 선정됐다. 앞으로 2년간 위탁운영하게 될 방화2동어린이집은 70여명의 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언어생활 영어 등 정규 교육프로그램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경숙 기자

'포교사단운영위' 11월경 발족

조계종 서울·경기 포교팀장회의

조계종 포교사단(총재 정련·포교원장)은 21일 대학 어린이 청소년 경찰 교도소 군 상담 염불 사찰 신행단체 직장 등 분야별 25개 팀의 팀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경기지역 포교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경 전국 팀장 수련대회를 거쳐 '포교사단 운영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으며 27일 열리는 포교원회의에서 포교사단복을 결정, 9월부터 포교사들에게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80명이 참여한 소년소녀 돕기 후원자 납부 사업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포교사단 운영위원회는 지역의 포교팀을 관장하는 지역운영위원회, 해당 분야의 포교팀을 대표하는 분야운영위원회와 포교사단의 전체 포교팀을 대표하는 중앙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따라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실질적으로 포교사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경기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 8명을 선정, 김기병씨를 상임위원장에 선출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진현스님 멸빈

정빈스님 제적

조계종 초심호계원(위원장 종걸)은 22일 25차 심판부를 열어 불국사 공금횡령과 여의도 불교문화원 공금횡령과 관련된 진현, 정빈스님에게 각각 멸빈과 제적의 징계를 내렸다. 정성운 기자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주문이 많으므로 단체주문은 사양합니다. (1가정 1부씩)

◀용린 佛字체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담담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백봉 김기추거사님

귀의 삼보하옵고

삼각산 조계종 보림사 보림선원에서는 七日간 철야 용맹정진을 아래와 같이 하옵는 바 보림三關(不去不來處 生者何物 滅者何物 泰山刮目來 綠水掩耳去, 心外無法處 迷者何物 悟者何物 古路草自青 正邪俱不用, 人我皆空處 說者何物 聽者何物 若論今日事 忽忘舊時人)을 主題로 法門을 하며 二十一世紀 앞소식인 人天의 眼目을 열어가는 活句 大乘禪을 鷹揚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禪友는 來參하여 서로 탁마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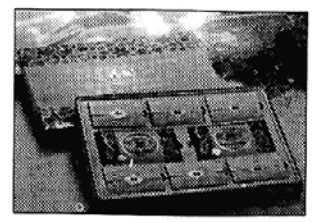
◆◆ 아 래 ◆◆

●일시 : 1999년 7월 30일(금) 오후 8시부터
8월 5일(목) 오전 7시까지
●장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번지)
02)914-6187
●회비 : 일반 7만원(1일 1만원 기준)
●연락처 및 문의처 : 914-6187, 017)332-4096
●교 재 : 보림삼관, 금강경, 82-85년도 철야정진 테이프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1,3,5,
5-1,16,710번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장아파트앞 하차(돈암역에서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묵 산 합장
보림회 회장 하동인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1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주부신행담

딸 넷 아들 하나



그림 · 문병성

줄줄이 딸 넷 낳자
시댁과 주위에선
외아들에게 시집왔으면
아들 낳아 대 잇는게
도리 아니냐고…
그럴 때마다 죽고싶었다

절에 다니며 원망도 미움도 부질없음을 알게되니…

딸 넷에 아들 하나. 물론 아들이 막내다. 바로 이 아들문제로 나는 한때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부처님을 만나지 못 했다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댁으로부터 온갖 몹쓸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했던 어려운 시절, 나는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덕분에 죽음 대신 기쁨을 맛 보았고, 미움 대신에 사랑과 자비를 키웠다. 그렇게 마음을 다진 덕분인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도 낳게 되었다.

나는 옛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이유때문에 자식을 다섯이나 뒀다. 그런 나를 주위에서는 안타깝고 때로는 한심하게 여기는 듯 했다. "아들 낳으시려고 퍽나 고생했겠군요." "뭐 하러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시집 와 낳은 첫 아이가 딸이었다. 둘째 애도 딸이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시댁은 물론이거니와 주위 어른 분들이 외동 아들한테 시집을 왔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하는게 도리 아니겠냐고 압력(?)을 주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큰일 난 노릇이었다.

하루하루가 살어름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다. 시댁 식구들이 두렵기까지 했다.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생각만이 머리를 꽉 메우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나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급기야는 집안 살림조차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심각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자 집을 나가거나 자살하고픈 충동도 느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것 같을 때 주위 불자의 소개로 나는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동안 불교에 대해 한번도 관심을 기울여 보지 않았던 나에게 부처님의 미소와 법당 가득히 풍기는 향냄새는 안정을 주었다.

이후 나는 열심히 절에 다니며 기도에 열중했다. 절에 다니면서는 잊지 못할 에피소드도 생겼다.

어느 초하룻날이었다. 당시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였는데 나는 부처님 전에 올리려고 공양미와 초 한 갑을 정성스럽게 싼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동네 파출소를 막 지나려는 순간이었다. 느닷없이 순경아저씨가 "아주머니" 하고 불러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 젊은 여자가 새벽 일찍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가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던 모양이었다.

"절에 가는데 왜 그러세요"라며 항변했지만 경찰은 확인할게 있으니 보따리를 풀어보라는 것이었다. 보따리를 풀고보니 안에 든 것이라고는 공양미와 초가 다였으니 경찰도 그때서야 봄 눈 소리로 "아주머니 너무 일찍 다니지 마세요"라며 보내주었다.

그 이후로도 나는 초하룻날이면 어김없이 새벽 5시30분에 대문을 나서 절에 갔다.

절에 다니는 동안 나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갔다. 초조하고 불안해 죽고만 싶었던 마음에 안정을 찾으면서 '나'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망도 미움도 부질없는 짓임을 알게되었다. 물론 시댁식구에 대한 미움도 사라졌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도리어 내 좁은 마음을 탓하게 되었다.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넷째 딸을 낳았다. 시댁식구들은 딸아이를 보러 병원에 한번도 와 주지 않았지만 나는 딸 아이가 이쁘기만 했다. 시댁 어른들도 이젠 지치신 눈치였다. 몸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부터 나는 다시 절에 나가 자식과 부모의 인연을 참구하며 정진했다.

"부처님 참회합니다. 이생, 전생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절은 차에서 내려 1km 쯤 더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는데 비가 오니 눈이 오니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나는 매주 절에 가서 기도를 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업장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또 만일 인연이 생겨 아이를 갖게 된다면 시부모님과 외동아들인 남편을 위해서라도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기도에 임했다.

아들낳기에 대한 간절한 원을 멈치지 못하는 내가 안타까웠던지 별 말씀이 없으시던 주지 스님도 "기도 열심히 하세요. 간절하게 기도 정진하다 보면 부처님 가피를 입게 됩니다"며 용기를 주셨다.

스님의 말씀은 얼마 후 현실로 나타났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다. 부처님이 나에게 가피를 주신 것이다. 아들은 잔병치레 한번 없이 튼튼히 자랐고, 누나들과도 잘 어울려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물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 부모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었다. 절에도 열심히 다녔는데 사찰 수련회가 있을 때에는 해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할 정도로 신심도 있는 것 같다. 그 아들이 이제는 장성해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해병대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부처님 해병대는 훈련이 고되다고 합니다. 나오지지 않고 건강하게 군복무에 임해 윗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아래 법우들에게 존경받는 군인이 되도록 발원합니다.' 아들을 위해 또한번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부처님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 아들은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소속부대에 배치됐다.

나는 요즘도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러 법당을 찾는다. 고마우신 부처님! 부처님을 알게 되면서 나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되었고, 내 삶을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 60 평생 받은 부처님의 은혜를 이제는 이웃을 위해 나누며 살것을 오늘도 다짐한다.

최영자(울산시 남구 삼산동)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발 우



부처님의 법다운 발우에 이 공양을 받으면서 원하오니 모든 중생이 선열(禪悅)로써 밥을 삼고 법희(法喜)로써 살게 하소서. [화엄경]

발우는 스님들이 항상 지녀야 할 도구의 하나로 밥그릇을말한다 원어는 발다라(鉢多羅-patra)인데 재료나 색깔, 양은 규정된 법에 따라야 하므로 '양에 맞는 그릇(應量器)' 이라 해석한다. 〈율장〉에서 본래 규정은 나무로 만든 발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철발(鐵鉢)이나 와발(瓦鉢)을 사용하게 하였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宏)이다.

와발우(4합) - 가 격:60,000원 무게 : 2.7Kg
와발우(2합) - 가 격:30,000원 무게 : 1 Kg
(2합은 재가 불자를위한 발우 입니다.)

황토질그릇 발우의 특징
- 순수한 황토와 천연유약을 사용한 인체 및 환경친화적 발우
- 율장에 근거한 법다운 발우
- 1300도씨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강도 높은 옹기 발우

• 주문방법 : 전화(02-732-1522/737-8881) / 팩스(02-737-0697)



한정판매

섬세한 목공예 작품을 소장하게 간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재 질 : 홍목(紅木 : Rose Wood ,일명 자단)
특 징 : 조각품 (중국 현지 소님 작품)
원산지 : 중국 남통시(南通市)

본 작품은 각 3점씩 한정판매 합니다.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8층목탑 - 밑지름 24cm X 높이 71cm
• 반야용선 - 가로 50cm X 세로 17cm X 높이 55cm
• 가격 : 500,000원

• 주문방법 : 전화(02-732-1522/737-8881) / 팩스(02-737-0697)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 부다피아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천연옥을 원석 그대로 가공한 석풍 건강옥 방석으로 시원한 여름을…
- 먼지날림, 공해이 세균 없는 청결한 옥방석
- 세계 최초로 방충 및 청결 효과가 있는 옥방석
- 천연옥을 가공한 건강 옥방석으로 여름철 시원함(대나무 방석 대용)
- 커피, 기름, 김칫국물을 흘려도 걸레로 닦아주는 것으로 처리
- 차량 방석으로 사용가능



•크 기 ## X ## Cm
•탯 면 국내산 면목 면탈
•쿠 션 펠트지
•비닥재 미끄럼방지
(우레탄 • 하이오레라텍 처리)
•가격:₩9,000

더우십니까? 참선명상 방석으로 선 삼매에 드세요.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크기 39×43(cm)
•가격:₩27,000



자비로움의 표현
불자들 모두가
함께입는 여름 필수
부다피아 티셔츠

•재질 순면 100% (20수)
•색상 흰색
•인쇄 나염인쇄 (칼라)
•가격:₩7,000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물국토를 염원하며 연꽃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 나팔

1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물명 인쇄해 드립니다.

천진동자 부채로 더위를 날려 버린다.



앞면



뒷면

•가격:₩750(1개)

금강경 병풍(8폭)



봉풍 전면에 금강경을 8폭이 금색글씨로 인쇄(반색업음) 됐으며, 후면은 팔상성도를 넣었다 탁상 및 자주 접하는 장소에 놓아 두면 좋은 소품이다.

크 기 세로 22cm x 가로 74cm(총8폭)
•가격:₩ 9,000

바위속에 숨은 부처. 대자대비 바위속에 숨은 영겁의 미소를 영상으로 보며 더위를 식힌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믿음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이름있고 성스러운 산 특히,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예possible 없는 신령스런 영산으로 믿어 수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형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정토 회업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신라인 혼이 서린 생역임을 실감케 한다

(제작) 대정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성 감독-황기태
상영시간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야용선 - 30분



•가격:₩13,000

숙면의 요인 중에는 베개선택도 중요한 요소!
한방 옥 베개로 시원한 여름을…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에 안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분에게
- 밤을 지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에게
- 밤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패턴을 하고 싶은 수험생
- 안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분에게
-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분에게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 분

•가격:₩30,000(1개) / ₩56,000(1세트)

몰·부다피아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mall.buddhapia.co.kr